

は、一人で行動することには抵抗はないが、新大久保は、韓国人が多いため、常に誰かと一緒に行動するという韓国文化に従っていないと、孤独感を感じてしまう。「この辺（大学の近く）だと、1人でやっても1人じゃないですから、本当に。1人でやってる人が私1人じゃないから、別にいいかなって感じなんですけど、そこでは1人でできないんで。この辺ではコーヒーショップとか結構1人で行くんですけど、新大久保に住んだときは、ちょっと遠めの新宿まで……」。ルームシェアをした友人と、とても仲良くなったこともあって、それ以降は、月に1、2回は新大久保に行くようになった。新大久保では、ラーメンやコチュジャンなどの韓国の食材を購入するのだそうだ。

◇ アルバイト ◇

アルバイトは中華料理屋や居酒屋でも経験した。現在、住んでいる関東圏の中都市で、アルバイトを探すのは難しい。「ネットとか情報誌とか見て電話して、最初に言って、『私は外国人な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って聞いたら、速攻で断るところもあるし……」。「あまり外国人がそんなに多くないから、このあたりは。あまり雇ってくれるところがそんなに多くはない」という。

中華料理屋では、あまり普段の生活では話す機会がないパートで働きに来る女性や年配の常連客との会話が楽しかった。同年代の大学の友人が使わない日本語が出てきたり、そのような年代の人の日本語の聞き取りは難しく、もう一度言ってもらったりすることも多かったが、逆にそれがおもしろかった。居酒屋では、言葉だけでなく、従業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しかたの違いも学んだという。例えば、韓国の飲食店では、客に呼ばれたとき、手をはなせないときには、呼ばれていることを認識しておくだけで、その客に対して「少々お待ちください」などと返事をするのは、あまりないそうだ。しかし、同じような場面で、Rさんは客の一人から「なぜ返事をしないのか」と怒鳴られてしまった。

今は韓国語の個人レッスンをしている。大学1年生だった2008年、日本語学校の先生の紹介で、もう一人の韓国人留学生と一緒に、高校で1学期間、韓国語を教えた。対象は、修学旅行で韓国に行く高校生である。それがきっかけで韓国語を教えることの楽しさを知ったという。大学で日本語教育の授業を履修しながら、それを韓国語のレッ

スンにも役立てている。

◇ 将来について ◇

大学を卒業後は、企業で広報関係の仕事をしてみたいという希望を持っている。できれば日本で就職したいと思っているが、どうなるかはわからない。そして、3年ぐらい働いたら、大学1年から学んでいるスペイン語の勉強をするためにスペインに留学してみたいそうだ。Rさんのお母さんが好きだという韓国の女性旅行作家の本に触発されたという。

<インタビュー 26 >

LS씨 (20대・여성) 「정겨운 나라 일본,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나라」

2010년7월17일, 서울 출신
일본어 어학교 재학, 체재 4개월째
인터뷰어: 이호현

◇ 약력 및 일본에 오게 되는 계기 ◇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 읽은 「인어공주를 위하여」라는 만화를 계기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소녀.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관련 학원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같은 취미의 친구들이랑 정보교류를 하고, 모임에 참가해서 만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다 점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만화행사인 「코믹」 「마카」 등이 서울에서 열릴 때 참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만화가에의 꿈을 키우며 교류모임이나 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부모님의 반대도 심해서, 많이 싸웠다고 한다. 그런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물론 입상하면 대학특전의 영광도 있었기에, 권위 있는 만화대회인 「카툰대회」에 참가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때 대상을 받게 되고, 쉽게 대학도 가고 부모님의 반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2년간의 전문 공부가 끝나고, 졸업과 동시에 이현세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지만, 지금껏 해온 이론과 만화세계의 실전과의 갭으로 인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6개월간의 문하생 생활을 끝 내고 방황하던 중, 친구를 통해 캐리커처 라는 세계를 알게 된다. 그림 실력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일러스트를 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광고, 작품, 게임, 동화, 교과서 등 그 활용의 광범위함에 매력을 느껴 일러스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일러스트로 2년간 생활하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에게서, 일본은 한 캐릭터를 만들면 많은 분야에서 각각 상품을 만들어 잘 활용한다는 세분화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국의 캐릭터 생명이 2-3년으로 짧은 것과 비교해 볼 때,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다. 물론 20살 때 세이카(精華) 대학에 가고 싶어 오오사카에 여행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친구가 수속 했던 유학원에 가서 일본유학의 수속을 거쳐, 신주쿠의 어학원에 오게 된다. 일본에 오는 것 또한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로 부모님이 반대 하셨는데, 마침 일러스트로 작업했던 영어동화책이 출판되어, 그 책을 보여 드리면서, 「내 가능성을 더 열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고 설득하여, 말씀이 많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잘하구, 몸 건강히 있구」라는 말씀을 듣고, 유학 길에 오른다.

◇ 일본에서의 생활 ◇

본인은 어학교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이유인즉,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어서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다른 어학교 친구들은 전철 타는 것 하나부터 쿠키숍에 가는 것 등 멀리 여행가는 것도 꺼려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에 마음의 의지할 곳 또한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행동반경은 주로 집에서 학교, 교회로 이루어 지는데, 학교가 신주쿠에 있기도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 등은 대부분 신주쿠, 신오오쿠보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신주쿠의 어학원에 다니는 초기 유학생들의 생활반경이 대부분 이러한데, 신주쿠를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모처럼 일본에 왔으니까, 이곳을 벗어나서 좀더 일본인이 많고, 일본적인 분위기의 곳에서 일본의 문화를 한껏 체험하고 싶은 것이 유학생들의 또 다른 바람이라는 점이 아이러니다.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인과 사귀고 대화도 하고 싶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좀더 많은 정보 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는 만남의 장이나, 전문분야 별로 조언과 교류를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듣고, 초기 유학생들에게 있어

필요한 점과 현실을 느낄수 있었다.

◇ 일본에 대한 이미지 ◇

현재 숙소가 있는 곳이 오오즈카의 주택지로, 일본이란 곳이 의외로 참 정겹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동네의 오래된 주택양식이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와서 소담을 나누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강아지, 고양이가 많으며 한적한 풍경은, 고향인 서울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풍경이기에 잃어버린 과거의 정겨움을 느끼는 듯 하다. 특이한 문화로는 신사를 비롯해, 동네 어디를 가도 곧 잘 눈에 띄는 빨간 마후라를 한 조그마한 불상(お地蔵さん)이 있는 미신적인 공간은 문화 충격 이었다고 한다.

또한, 반찬가게가 참 많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일본주부들은 만드는 것 보다 주로 사서 먹는구나 라고 느끼며, 한국의 어머니를 떠올렸으리라 본다.

아직은 일본인과 많이 교류해 보지 못했지만, 어학교의 일본어 선생님은 참 야사시이(やさしい) 하다고 표현한다. 패션이나 주위의 경관도 유심히 본다는 발언으로부터 일러스트로서의 기질이 엿보였다.

◇ 장래의 계획 ◇

일년 뒤 어학원이 끝나면,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뽀로로 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하나의 캐릭터가 탄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캐릭터를 활용화 한다는 일본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나가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적인 정서를 갖춘 LS씨가 일본에서 느끼는 정겨움을 잘 표현해 낸다면 멋진 캐릭터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インタビュー 26>

LSさん(20代・女性)「懐かしい町並みを残している国、にっぽん、たくさんの事を見て、いっぱい体験してみたい国」

2010年7月17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在学、滞在4ヶ月目
インタビューア：李 坪鉉

◇ 経歴および来日のきっかけ ◇

ソウル生まれ。LSさんは中学時代に読んだ漫画「人魚姫のために」がきっかけで漫画家を目指すことになった。その当時は漫画と関連した塾などが多くなかったので同じ趣味を持った友だちから情報を得たり、交流会などに参加したりして漫画を学び始める。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が急速に普及したこと、漫画の大きなイベントである「コミック」「マカ」などがソウルで開催されたことでより多くの人々と情報の交流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ころが、漫画家という夢を抱いて交流会や大会に参加することにご両親の反対があつて喧嘩もたくさんしたという。そのようなご両親を説得するために何かが必要だったので、LSさんは入賞すると大学に特別進学できる「カートゥーン大会 Cartoon」に参加することを決心する。その結果、グランプリに選ばれ、大学に進学することになってご両親からの反対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

LSさんは大学で2年間漫画に関する専門的な勉強を終えて、卒業後、漫画家であるイ・ヒョンセの門下生となる。しかし、漫画世界における現実と自分が今までやってきた理論とのギャップを感じ、6ヶ月で弟子生活をやめてしまう。その後、友達を通じてカリカチュア caricature の世界について知るようになる。絵を描く腕を保つためとお金を稼ぐためにフリーで働いている中、イラストの仕事に携わっている人たちとの出会いを通じて広告、作品、ゲーム、童話、教科書など、イラストの幅広い活用に魅力を感じてイラストレーターに目を向ける。イラストレーターとして2年間働いていた時に、日本での留学を終えてきた友達から日本のキャラクターの事情について聞かされる。日本では一つのキャラクターを作ると様々な分野で商品化され、活用するという細分化されたシステムが整っている。しかし、日本のキャラクター事情と韓国のキャラクター事情を比べてみると、韓国ではキャラクターの寿命が2-3年で短いので日本でぜひ一度は経験してみたいと決心する。もちろん、20歳の時に精華大学に留学するため、大阪へ旅行に行ったことがあった。しかし、今回は友達を紹介してくれた留学院で日本留学の手続きをして新宿の日本語学校に来ることになった。日本ということより海外に出ること自体にご両親の反対はあったが、ちょうど自分がイラストレーターとして作業した英語の童話本が出版されたので、

ご両親にはそれを見せながら「自分の可能性を確かめたい。もっと勉強したい」と説得したそうだ。普段、無口であるご両親から「元気でがんばりなさい」と言われ、留学することになる。

◇ 日本での暮らし ◇

本人は日本語学校の他の学生より運がいいという。日本語が上手なルームメイトのおかげで生活の不便なところはほとんどないからだ。日本語の上手くない日本語学校の学生たちは、電車に乗ったり、区役所に行ったりすることなど、遠くに旅行することも大変だという。そして、教会に通うことで心のよりどころができ、全体的に安定した生活を送っているようだ。

生活は主に家、学校、教会という範囲で行われるが、日本語学校が新宿にあることもあって、友達との集まりなどは主に新宿・新大久保であるという。新宿の日本語学校に通い始めた留学生の大半がそうであるように、生活半径は新宿を中心に回っているが、せっかく日本に来たからにはもっと日本人が多く、日本的な雰囲気が感じられる所で日本の文化を体験したいというのが留学生の望みでもあり、それがアイロニーなどところでもある。言葉が通じないがためにもっと日本人と話したいが、なかなか機会がないことをLSさんは残念に思っていた。留学生生活を始めた学生にとってたくさんの出会いがある情報交流の場や専門分野に関する情報やアドバイスを聞ける場がほしいということを知り、彼らの現実や必要としている部分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た。

◇ 日本に対するイメージ ◇

宿舎は現在、大塚の住宅地にあるが、日本は意外と昔懐かしい風景を保っている国だという。古い町並みや住宅様式、ペットを連れて散歩しながら会話を交えるおばあさんとおじいさんの姿、猫や犬がたくさんいる町の風景、静かな街並みなどは故郷であるソウルではめったに見ることのできない風景である。そのため、忘れ去られた過去の名残を感じることができそう。日本特有の文化としての神社を始め、町の至るところにある赤いマフラーをした仏像(お地蔵さん)のある迷信的な空間は彼女にとってはカルチャーショックだったようだ。

また、商店街におかずを売る店が多いことも面白かったという。日本の主婦は自分で作るよりお

店で買って食べるんだなあと感じながら、おそらく韓国のお母さんを思い出した瞬間だと思う。LSさんは、まだ日本人との交流は少ないが、日本人の先生のことをとても「優しい」と表現する。そして、ファッションや周りの景観などを興味深く見るという発言からイラストレーターとしてのプロ意識が感じられた。

◇ 将来の計画 ◇

日本語学校は後1年ほど残っているが、それが終わったら韓国での経験を生かして会社に就職したいという。それで韓国の「ポロロ」のような面白くて有益な子ども向けの教育キャラクターを創りたいと言っている。一つのキャラクターが誕生すると様々な分野で活用させるという日本のシステムを直接体験したいという夢が叶えることを願ってやまない。韓国的情绪をよく知っているLSさんが日本で感じた昔懐かしい、失われつつある情緒を上手く表現するとすばらしいキャラクターが誕生するに違いないだろう。

<インタビュー 27>

J・Eさん(20代・女性)「理系界の女性研究者を志す / (20代・ 여성) 이공계의 여성 연구자를 꿈꾸다」

2010년7월18일, 서울 출신
대학교 4학년, 일본체재5년4개월
인터뷰어 : 오세연

(인터뷰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병용되면서 이루어졌다 / 인터뷰어는日本語と韓国語가併用
されながら行われた)

◇ 自己紹介(자기 소개) ◇

일본에 온지는 벌써 5년 하고도 3,4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은 대학원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はい、私の名前は金智恩(キム・ジウン)です。日本に来て5年と3,4カ月程経ちました。今は大学4年生で、大学院進学のために勉強しているところです。)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 초등학교때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서 지금 거주중이구요, 서울에서 가족들이 거주중이구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가족입니다. (生まれたのは釜山ですが、小学校の時ソウルに引っ越して、家族は今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母、父、私の三人家族

です。)

지금은 신주쿠에 있는 동경 이과대학교, 이공계만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든요. (今は、新宿区にある東京理科大学という理工系のみ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전공은 응용학이에요. (專攻は 응용학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료들을 만들거나 주로 그 재료를 만들어가는 쪽에 가까운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私たちの生活に密接な関係のある材料を作ったり、材料の生産方法についての勉強をしています)

◇ 大学生生活(대학 생활) ◇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는 일본에 대한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면 다 잘되겠지 이런 생각이 커서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내용도 수업내용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차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된 거 같습니다.

*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 일본의 대학에 대해서,あんまり大した違いは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思ったより大変で授業の内容もとても難しくて。でも徐々に慣れてきて、あつという間に3年生になり4年生になったと思います。)

중간중간 서클을 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1학년 때도 좀 들어가보고 2학년되어서도 또 다른 서클에 들어가봤는데. 그런 서클이 방학 때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한테, 저는 그냥 방학 때 되면 한국 가서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커서 아무래도 그런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은 좀 개네들한테 메이와 쿠가 아닐까 해서 서클을 거의 방학 기준으로 해서 많이 그만뒀죠.

* (サークル活動をしようと思い、1年の時入ったり、2年の時もまた他のサークルに入りましたが、殆どのサークルが夏休みや春休みに活動をしていまして非常に頑張っている子もいるんですが、私は休みさえあれば韓国に帰りたくなりしたので、このような気持ちが頑張っている子たちに邪魔になったり、迷惑掛けると思って、夏休みを区切りにやめました。)

◇ 大学の友達(학교 친구들) ◇

大学には韓国人の留学生があまりいないです。ほとんど日本人の友達が多いため、私は日本・韓国の友道を分けて考えていません。實際、日本と韓国と分けなくても、人間として向き合ってから

そんな違いをまだそこまで感じられないです。どっちかというとなりの友達との差が見えますけど(笑)、女の友達はそこまで差が見えないです。例えば、私は実際、そこまで感じられなかったけど、なんか、周りから言われてやっぱりそうだなーと思っていたのが、兵役問題に関して。韓国の男の友達の方が、性格の強みが出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見えました(笑)。

* (대학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일본인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 친구로 나누지는 않아요. 실제로 나누지 않아도 서로 사람으로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틀린점이 없어요. 아마도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 보다는 차이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크게는 느끼지 않았지만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깐 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요, 병역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남자 친구들이 성격상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웃음))

◇ 新宿区との関わり(신주쿠와의 관계) ◇

学校が飯田橋にあるため、新宿区内での生活が多いです。新宿区のイメージは、本当に東京の真ん中って感じなんです。凄く活性化されている反面、神楽坂みたいにしてすごい住宅街とか落ち着いたような場所もあって、色んなものが混ざっている感じ。外国人もいっぱいいるし、最初住むにはけっこういいかなというイメージもあります。

* (학교가 이이다바시에 있어서 신주쿠내의 생활이 많아요. 신주쿠의 이미지는 정말로 동경의 중심인 느낌이 들어요. 매우 활성화 되어져 있는 반면, 카구라자카 같은 주택가로 조용한 곳도 있어서 여러모로 섞인 느낌. 외국인도 많고, 처음 살기로는 매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 将来の夢(장래의 꿈) ◇

なぜ、大学院に進学しようと思ったのかは、最初、それを決めるまで、本当大変でした。正直、理系だから当たり前のように皆、進学するって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自分も何となく進学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イメージがあったけど、実際勉強を始めたら、責任感なく、ただみんなが行くから行くという感じでは行きたくなかったです。もし自分が本当に研究したい分野とかが見つかったら、行くけど、それじゃなかったら、就活するって気持ちで、去年から就活もちょっと同時

にやったのですが、その内、自分がしたい勉強が明確に見えてきたし、だったら、私も進学して、もうちょっと自分のスキルや研究力も磨きたいと思ひ、大学院への進学を決めました。将来の夢は具体的にはなっていないけど、研究職に就き、色んな技術を学んで、学校だけじゃなくて、企業などでも学べるのがいっぱいあると思ひます。そういう力をつけてそれから本当に実務に近いような仕事をしてみたいです。どっちかというとな、そういう色んなところのかけ橋のような、そういう仕事のできる職を探したいです。

* (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생각했는지..먼저 이걸 결정 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공계라서 당연한 것 처럼 모두 대학원 진학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진학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한 후 책임감이 그냥 모두 가니깐 간다는 느낌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 제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직활동 한다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취직활동도 동시에 했지만, 그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명확히 보였고, 그러면 저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저의 스킬과 연구력도 기르고 싶다고 생각해서 진학을 결정했어요. 장래의 꿈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연구직에서 여러 기술을 배우고,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등에서도 배울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정말로 실무에 가까운 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면에 있어서 가교 처럼, 연결의 다리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インタビュー 28>

0さん(20代・男性)「自分の力で何とかできるのがいい」

2010年7月21日、チャンウォン出身
日本学校生、日本在住1年半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0さんは1984年生まれ、4人家族で両親、姉がいる。出身はチャンウォンで、小学校3年生のときにソウルに移る。高校卒業後、軍隊生活を2年送る。軍隊後、音響関係の専門学校に入学し、修了後は専門学校の先生のアシスタントを務め、その後、レコーディング・エンジニアとして2年間働く。

その後で、日本に 25 歳で来日。日本はレコーディング技術を磨くという目標を持って来日したが、まずは日本語学校に入学する。現在は、日本語学校に在学中で、2011 年から専門学校に入る。

◇ 中学校のときに会った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 ◇

O さんは、小学校 3 年生のときに家族がソウルに引っ越したので転校をした。それまでは山とか貯水池のある比較的郊外の街だったので友達と外でよく遊んだが、ソウルの引っ越し先の印象は町全体がマンションという印象で、友達とはサッカーぐらいしかできなかった。おもしろい性格なので学校にはすぐに溶け込めた。

O さんは中学校時代に今の O さんにとって重要となる人や本に出会っている。何でも話しあうことができる親友。中学生の頃は、勉強はあまりしなかったもの、幼児期にお母さんから本を読むように言われ続けてきたので、中学の時に偉人伝や小説を多く読んだ。その中でも 12 巻からなる冒険物語の『ドラゴンラジャ』という韓国では結構有名な本は毎日毎日読んでいた。

中学 2 年のときに、エヴァンゲリオンというアニメに初めて接して「ほんとにあの、ああすごいなと思ったんですよ」。プレーステーションやコンピューターゲームを通して、日本は面白そうな国だなとその時から興味を持った。そうして日本のアニメとゲーム、そして音楽が好きになった。

◇ 軍隊での生活 ◇

軍隊には、高校卒業後、6 か月で入隊、2 年間を軍隊で過ごす。軍隊は本当に厳しく、他の人が経験できないことを O さんは経験して、自分自身が変わったという。軍隊に行ったら「できない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何をしても、やる気があればできると思えるようになった。

軍隊での仕事としては、家を建てたり、音響に関わる仕事をした。音響の仕事は、機材がすべて英語で、説明書などもすべて英語だったため、高校ではあまり勉強をしなかったが、軍隊で英語を独学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英語は読めるようにはなったが、話すことはできない。

軍隊にいたときは中国の『三国志』を繰り返し読み、ギリシャ神話などの歴史に興味を湧いた。それから宇宙に関する本も片っ端から読んだ。軍隊では、国で本を買ってくれるので、小説や偉い

人の回顧録とか、いろいろなジャンルの本も読んだ。

軍隊に入ったときに、一番考えたのが、軍隊を出た後に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O さんが好きなものは音楽だったので、音楽に関わる専門的な仕事をしようと決心をした。

◇ 韓国での専門学校で技術を身につける ◇

軍隊後に、音響技術を学ぶために専門学校に入学をし、一年半ほど勉強をする。修了後、専門学校の先生から、もう学生として勉強するのはいいから、自分のアシスタントにならないかと誘われた。半年間、アシスタントをした後に、就職をして二年間、レコーディング・エンジニアリングとして働く。

仕事の現場はアマチュアのバンドの人たちが CD を作るための音響調整や、ミキシングをするスタジオで、時々コンサートの仕事もあった。コンサートでミキサーといっても、実際に機械を操作するのは 5 年以上経験をした人なので、O さんは主にスピーカーを運んだり、下働きをした。

この仕事をしているときに、O さんの現場に日本人が出張に来て、一緒に仕事をする機会があった。日本人の人は韓国語ができず、自分も日本語ができなかったが、「なんとかできたんですよ」。つまり、音楽の機材やスイッチの名前はすべて英語なので、技術さえあれば、仕事の上では日本語や韓国語の言語はあまり関係がないと実感したという。

◇ 専門技術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の日本留学 ◇

O さんによると、韓国での音楽事情は MP3 が主流で市場が小さく、日本の方が音楽市場は広いと感じたという。それなので、日本で勉強して、日本の音楽市場で働くのもいい経験にな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韓国で働いた時は、最初は留学しようとしても、留学の資金が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留学する 3 カ月、4 か月前、いきなり行きたくて、日本語の学校、教えてもらう塾で二か月ぐらい勉強しました。まだレベルゼロから」。両親の勧めもあり、留学を決意し、韓国にある留学斡旋会社で新宿と池袋にある日本語学校を見つけ、最終的に新宿区にあった学校に決める。

新宿区の日本語学校で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

午前中の 9 時から 12 時半まで授業がある。来日後、半年は日本語を学ぶのに忙しかったが、半年後にアルバイトを始める。このアルバイトは日本に住んでいる韓国出身が作成したインターネット上のウェブサイトで見つけた。

社会経験があり、専門技術をすでに身につけている O さんは、目標のはっきりした留学生活を送っている。しかし、日本語学校とアルバイトに限定されている生活なので、「自分が説明したい、うまく説明したい表現が日本語ではまだできないのが困る」という。特にトラブルと覚えることは起きないが、バイトの面接で落ちたことなどはある。現在は、朝学校に行って、その後、アルバイトに行き、家に帰宅するのが夜の 12 時、1 時の生活。恋人は学校の同級生なので毎日、学校で会う。お金を使うことになるので、あまり出かけず、同じ繰り返しの、単調な生活に今、飽きてしまった面もある。

来日した時は、一年間、日本語を勉強して、すぐに専門学校に入ろうと考えていたが、お金が足りなかったのが、二年目も日本語学校に残り、アルバイトをして専門学校に入るためのお金を貯めている。「これ以上、親のすねをかじることがちょっとできない」と感じ、日本語学校の学費、家賃を払いながら、専門学校の学費を貯めている。

日本に留学してよかったと思うことは、韓国の社会ではできない経験ができたこと。例えば、韓国社会のように年齢に縛られていなかったり、日本語学校には中国やマレーシアの友達がいるので世界に対する自分の見識が広がったりした。それから、韓国にいれば親の世話になっていることが、日本に来て、家賃や生活費、学費を自分で働いて払うので、「自分の力で何とかできるということ」、自立したと覚えることができる。

◇ 将来の目標 ◇

O さんは、現在、来日 1 年半なので、これから半年先に専門学校に入学し、その後の 2 年間、日本で音響技術を学ぶことになる。今の考えでは、その先は、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にいて音響の勉強を続け、専門性を追求していきたいという。音響の仕事ができれば、それが日本でも韓国でも他の国でも構わず、日本でこれから得る経験と他の国での経験が増えれば、さらに自分が成長し、どこでもやっ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こうして勉強し続けることや年齢に、特に焦りは

ない。

O さんの夢は、一番有名な歌手のコンサートの仕事をする事だという。レコーディング・エンジニアの仕事は、スピーカーを設置して、スピーカーで変な音がしないように、「一番いい音をお客さんに聞かせるという仕事」なので、O さんが技術者として音を支えることになり、ここにエンジニアの創造性がある。中でも、一番やりたいのは、クラシック音楽のレコーディング。そうすると日本より、ヨーロッパなどのほうに機会が多だろうから、その時は、ヨーロッパに行くことも考える。

親のことは心配だが、自分が立派な人間になることが親孝行であると考え、今は自分の将来を優先的に考えることにしている。「今、私に興味があるのは、どうしたら自分を強くするかということ」だが、「私が今、韓国人とかいろんな留学生みて惜しいと思うのは、目標がない人は本当に迷うことです。そして、何もできなくて帰るから、お金だけ使って帰るから、それが本当に惜しいなと思います。でも目標のある人は、どこに行っても何をしてもうまくできるから、自分の目標を強く覚えるの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

<インタビュー 29>

H さん (20 代・女性)「日本と韓国の関係をもう一歩進めたい」

2010 年 7 月 23 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生、日本在住 1 年

インタビューア：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H さんは 1989 年生まれ、ソウル出身。中学・高校と一生懸命受験勉強をした。特技として、音楽、特に声楽に長けていた。大学は、声楽科のある念願の大学に合格。しかし、一学期の後に、自分のやりたかった方向性と合わず、悩む。大学一年のときに、ヨーロッパの音楽院に移るために入学試験を受けに行くが、受からず、その後、日本への留学を目指すことになる。決心をすると、行動に移す性格なので、ヨーロッパから帰国後、留学院に出席し日本の留学を具体的に考え始める。翌年、大学一年を終わらずに、退学をし、すぐに日本留学のための資金のため、就職。半年後、日本に留学を果たす。

現在は、日本語学校に在学しながら、希望をする大学への入学試験を目指している。

◇ 中学で日本語能力試験 3 級に合格 ◇

H さんは、中学二年生の担任教師が「日本語」の先生だった。日本語が上手なだけではなく、イケメンの先生だったため、がんばろうという気持ちになって、第二外国語としての日本語を勉強し、結果として、中学の間に日本語能力試験三級に合格をした。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に触れたのは、中学三年の時で、初めてみたマンガは『ナルト』だった。

中学の時の成績がよかったため、学校の先生が推薦をしてくれて、伝統のある有名女子高校に入学できた。この高校では、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か中国語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H さんは日本語をいつのまにか選んでいた。

◇ 高校の時に日本にホームステイ ◇

高校一年生から二年生に上がる時に、学年から 10 人が選ばれて、埼玉県の高校にホームステイと留学を経験する。ホームステイでは、「自分のプライドが傷ついたというか」、全然、話が通じることがなく、うまくしゃべれないのでショックを受けた。ホームステイ家族とは、ことばが通じなかったのであまり仲が良かったとは言えない。しかし、このホームステイ留学がきっかけとなり、帰国後にはこのままじゃダメになると一念発起し、日本のドラマやアニメを全部ダウンロードして、いつでも流すようにした。内容が全然わからなくても、字幕を見ながら内容を推測し、3 回くらい繰り返し見ている。その成果が表れたのが、ホームステイをした一年後に今度は日本から学生が来て、H さんの家にも受け入れることになった時だった。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ホームステイに来た女子学生と日本語でしゃべっていた。このときの女子学生とは、今でも連絡を取り合う友達となっている。

高校時代には、アニメーションの『ブリーチ』や『銀魂』が好きになり、小説は吉本ばななや推理小説の東野圭吾が大好きになる。音楽は、小学 6 年生の頃から、嵐が好きになり、日本語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もっと好きになった。

◇ 韓国で念願の大学に合格 ◇

韓国社会では、H さんが高校に進学する頃に、

政権が変わり、教育政策も変化したため、高校一年生の成績が一番大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した余波が H さんの生活にも波及してくる。具体的には、高校が 4 時に終わると、5 時までに塾に行き、5 時から 8 時は勉強をして、8 時から 8 時 40 分くらいまでは塾の近くのファーストフードのお店でおにぎりを食べて、その後、また 12 時まで自習をする、といった勉強漬けの毎日を送ることになった。塾は 12 時に終わった後に、車で家の前まで送ってくれる。

帰宅すると、お風呂に入り、それから英語と韓国語（国語）を復習した。塾の先生から「何してる？」と電話がかかってくるので、寝る前に当日やったことをまとめ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この塾は、入るときにテストを受け、テストの成績でクラスを分けていた。そのくらい、どこにいても成績が重視され、偏差値の高い大学を目指すように励まされていた。中学も高校も成績がよく、声楽が得意で、母親とともに、いい大学に行くために必死になっていたが、今振り返ってみると、当時はいい大学を目指すことに対して疑問を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

大学は念願どおりの大学に合格し、声楽科に入学をする。

◇ 自分で選択をした日本留学 ◇

H さんは、大学に入ってから、自分のやりたかった方向と大学の勉強が一致せず違和感をもったため、夏休みにヨーロッパの声楽科のある学校に留学を前提として入学試験を受けに行く。イタリアの音楽院の試験を受け、実技で歌を歌ったが、受かることはなかった。そのときはスーツケースを持ってそのままヨーロッパ旅行をする。

「ヨーロッパの旅行が終わって、その時、いろいろ考えて結論を出して、それで、留学院（韓国にある留学を斡旋・仲介所）に行ったんですね。」この時には、せっかく入った念願の大学に戻るとは考えず、日本への留学に方向性が固まったようだった。一度、決心すると、H さんの行動は早かった。4 ヶ月後、大学の一学年が終わる翌年の 1 月に退学し、それからは日本の留学資金を貯金するため、化粧品販売員として就職をする。

H さんは親の方針で高校の時から、必要最低限のお金以外はもらわなかったもので、週末に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H さんは、「ホテルでサービングしたり、結婚式の手伝いでした。でも、専攻が

音楽だったから、ピアノも弾けるし、歌も歌えるから、週末はそのアルバイトをして結構もらったんです」。このアルバイトで得たお金をもとに、友人と二人で株をして、お金を儲ける経験もした。リーマン・ショックが始まる直前に止め、そのときに株はすべて売却をした。その他にも、10年くらい弾いたピアノを売ったりして、日本留学に向けて、次々に自分で資金を工面していった。

◇ 日本の生活 ◇

Hさんは、来日して、新宿区の日本語学校に入学をする。前はパン屋さん、そして今は、自分が常連客だったコンビニ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来日直後は寮に住んでいたが、今は、先輩から引き継いだアパートに住んでいる。韓国人のネットワーク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多く構築されているが、Hさんにとっては、「その中ですごく良い情報もありますが、自分にとっていない情報がほとんど」で、そうした情報は使わないという。

日本は韓国よりも先進国なので、今回、行政の業務処理が遅いので驚いた。外国人登録証の手続きのために区役所に行ったら、登録証をもらうまでに2週間くらいかかった。韓国は行政の業務がすごく速いから、日本の行政は正直に言って、一体、何してるの？って思うくらいだった。

日本に来て予想以上に良かったことは、電車のシステム。人身事故が起こったりしたら、すぐに流れて、「どこどこの駅で人身事故が起きており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というのには、すごいなと思った。

逆に日本に来てから韓国のことを考えたときに、韓国はやっぱりITに強いと思う。悪いところは、「言論？新聞とか、インターネットで流している新聞社とかの記事が汚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例えば、「ワールドカップの時、韓国が勝った時に日本でなんかこんなに悪いコメント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って、それを記事にするんですよ。そんなコメントをブログに書く人は、日本人全体がそう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風に記事を書くから、それは汚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

◇ 近い将来の夢 ◇

今年の秋には、現在目指している日本の大学の国際関係学科の入学試験を受ける予定。そこでは、国際関係について学び、特に韓国と日本の関係をもう一步進めるための外交問題に取り組み、外交

問題を少しでも解決することを学びたい。その学科には、大学を3年で卒業し、大学院博士前期を2年で、つまり5年でマスターまでの資格を取れる制度がある。当面のところ、日本には5年住み、その後、英語圏のイギリスとか、アメリカに行つて、33歳前後に博士号を取りたい。その後で、韓国に帰国し、外交官の試験をうけるつもりでいる。

<インタビュー 30>

Kさん(20代・女性)「もっと勉強をするなら日本で」

2010年7月23日、テグ出身
日本語学校生、日本在住10か月
インタビューア：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Kさんは1984年生まれ、テグ出身。両親、姉、自分、弟の5人家族。Kさんは、中学・高校と出身地のテグで過ごし、希望の大学に合格したことにより、ソウルで一人暮らしが始まる。大学では美術を専攻。

卒業を一年延ばし、英語を勉強し、TOEICなどの試験を受けたが、しかし、就職ができなかったのものでそれで大学院にいく気持ちになっていった。日本へは旅行や日本の大学との展覧会交流で訪れ、その時の日本の美術館などが強く印象に残り、大学院は日本で勉強をしたい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現在は、日本語学校で日本語に磨きをかけながら、経営学を大学院で学ぶために独学で受験勉強をしている。

◇ 第二外国語としての日本語 ◇

Kさんは、中学校のときに、両親の勧めで家庭教師から日本語を習った経験がある。期間は、3、4か月だったが、ひらがなとカナカナ、動詞の勉強をしたことを覚えている。高校で第二外国語を選択するときに、日本語、フランス語、ドイツ語の中から日本語を選んで、週に1時間の授業を受けた。日本語を選んだ理由は、中学生のときに習ったので点数がよく取れると考えたからだった。Kさんは中学や高校のときには特に日本のドラマや歌、アニメや漫画などには興味はなかったという。

大学の時も日本語の授業を1回くらい受けたことがあり、その時は初級クラスだった。

◇ 家族から離れ、ソウルにある大学に進学 ◇

Kさんは地方都市のテグ市で家族と一緒に住み、地元の中学校と高校に通った。高校時代の大半は大学受験のために勉強に明け暮れた。通っていた高校は普通高校だったため、美術大学に進学を目指していたKさんは、高校1年生の時から美術アカデミーという予備校に通っていた。学校が終わると、学校の近くにあったアカデミーに通い、友達と晩御飯を食べて、ずっと11時まで美術の技術や勉強をした。ソウルの美術大学へは一度で合格し、とても嬉しかった。そこから、家族から離れて、ソウルのアパート生活が始まる。Kさんの通っていた大学は学力的に上の大学だということだったが、Kさんいわく、「でも、入ったらあんまり他のところと変わってないという」印象だった。

◇ 日本との出会い ◇

大学時代に日本に旅行に行き、「美術館にいったら、韓国より、なんか、美術とか、芸術とかがちよっと発展していると感じて、勉強をするなら日本で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

Kさんは今回の留学の前に、3回日本に来ている。初めに来たのは、22歳のときだった。1回目は、大学の学科の友達と相談して、3泊4日で日本の大阪に行った。2回目は、初め、卒業旅行として友達とヨーロッパへ行くつもりだったが、予約をするのが遅かったため、ヨーロッパツアーの定員が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い、その代わりとして2週間の東京と大阪の旅行をしている。その時は「新幹線に乗りたかった」という旅行の楽しみもあった。3回目は、大学卒業後、東京の浅草で、日本と韓国の美術大生と一緒に交流展示会をするために、5日間展示会をしながら滞在した。

こうした短期の旅行は、動機はどうしても日本に来たかっ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大学を通して、また偶然が重なったという要素が強かった。この頃に見た日本のドラマは、『のだめカンタービレ』で「かわいくて、ドラマなんだけど、ファンタジーな感じ、漫画みたいな感じがあって、韓国のドラマと違うところがいいです」といっている。

大学を一年間休学し、23歳で卒業した。休学期間中は、英語を勉強して就職をしようとしたが、なかなかむずかしく、その中で日本の大学院に進学する意志を固めていった。

◇ 日本への留学 ◇

Kさんは、日本への留学を決心してから、6ヶ月後に来日している。その間、3・4か月の間、集中して日本語を勉強し、日本語能力試験2級に合格している。しかし、試験は「運よく」合格したということだが、実際に日本に来たときには会話ができないことを痛感したという。日本語学校が始まったときのプレースメントテストでは、日本語能力試験2級の勉強の成果が反映され、日本語学校では初めからレベル4にプレースされた。

Kさんは、美術を専門として大学院で勉強をしようとしたら、大学院の入試にも美術の実技が問われるので、留学院で日本語学校を選ぶ時に、日本語ばかり勉強させられる厳しい学校はやめようと考えたという。美術の専門科目は自分で勉強しようと考えていたので、日本語習得に使う時間と労力とのバランスを考えていたようだった。

そうして選んだ新宿区にある日本語学校だったが、入ってみるとやはり、日本語の勉強は予想以上に厳しくて、勉強は大変だと感じる。しかも、Kさんは、大学院の専攻を美術から経営に変えたので、週5日の午前中を日本語学校の授業で勉強をし、あとは週に一度くらいは気分転換をするが、それ以外、ほとんど家で勉強をする毎日を送っている。大学院の入試には、英語も必要で、これまでの専門と違うので経営の勉強も一人で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2011年1月の受験までは勉強漬けである。

Kさんは、両親から全面的なサポートを受けて勉強をしているので、今のところはアルバイトはせずに勉強に打ち込める環境にある。

Kさんは、2009年3月に日本に留学する決意をし、2009年10月に来日をしたのだが、留学生生活を始めるに当たって、当初、日本へ留学する人が集まってするブログ、「トンリュ」で、インターネット上で探したアパートに韓国のルームメイトと一緒に住んだという。しかし、インターネットで探した最初のルームメイトとは、あまり合わず、現在は、引っ越しして、気の合う友人と同じマンションに隣同士、住んでいる。

故郷のテグの両親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スカイプ」というテレビのように顔をみながら話ができるネット電話で定期的に話、就職・大学のためソウルにいる姉と弟たち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チャットで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今年のK

さんの誕生日には、韓国から母親と姉が日本に会いにきてくれたという。

◇ 将来の夢 ◇

Kさんの、近い将来の夢は、大学院で経営関係の勉強をして、2年後に修了するとき、日本で就職し、後々は「ブランド・マネージャー」になることである。「ブランド・マネージャーになりたいんですが、ブランド・マネージャーって初めからできないから、マーケティング部署とかに入ると思います。例えば、TOYOTAのレクサスというブランドがあったら、全体的にブランドをネーミングとか、イメージとか、マーケティング方法とかを管理する人になりたいです」。

美術専攻の学部ของときに、そうした勉強を少ししたということだが、美術だけでは就職の競争で残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ら、日本では大学院で経営学を勉強しようと専攻を変えたいらしい。

日本で就職できたら、できるだけ働いて、キャリアを積み、マネージャーになるくらいに努めたいという。その上でキャリアが確立したあとに、もし「スカウトとかされたら」韓国に戻ることも考えるかもしれない。

キャリアとは別に、歳をとったら、または、家族ができたら、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など、「住みやすいっていうか、環境のいいところ、アジアって学歴とか必要だし、なんか、競争が激しいって感じがあって、住みやすいところ」に子どものためにそうした環境の中で住んでみたいと思うこともある。自分の子どもには競争が激しくないところで育ててほしいという願いがあるようだった。

<인터뷰 30>

K씨 (20대·여성) 「더욱 더 공부를 한다면 일본에서」

2010년 7월 23일, 대구출신
일본어학교생, 일본체재 10개월
인터뷰: 후지타 라운드 사치요

◇ 약력과 가족 ◇

K씨는 1984년, 대구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언니, K씨, 남동생으로 5인 가족이다. K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고 희망했던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대학교에서는 미술을 전공하였다.

졸업을 1년간 미뤄서 영어를 공부하여 TOEIC 시험 등을 치렀으나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길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었다. 일본에는 여행이나 일본대학의 전람회에 교류를 위해 오게 되었는데 그 때 일본 미술관 같은 곳이 너무나 인상에 남아서 대학원은 일본에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은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경영학을 대학원에서 배우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 ◇

K씨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시켜서 가정교사에게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다. 3, 4개월 밖에 배우진 않았지만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동사의 활용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에는 일본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중에 일본어를 선택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 일본어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어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때 한 번 배웠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였다. K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에는 특히 일본의 드라마나 노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일본어 수업을 한 번 정도 들었는데 그 때에는 초급클래스였다고 한다.

◇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서울의 대학에 진학 ◇

K씨는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그 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은 대학 수험을 위해 공부만 했었다.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는 보통의 학교였었기 때문에 미술대학을 꿈꾸고 있었던 K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아카데미라는 입시준비학교에 다녔었다. 학교가 끝나면 학교 근처에 있었던 아카데미에 가서 친구들과 저녁밥을 먹고 11시까지 계속 미술에 관한 기술을 배웠었다고 한다. 서울의 미술대학에는 한 번에 합격하여 정말 기뻐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취생활이 시작되었다. K씨가 다니고 있었던 대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교였지만 K씨는 “하지만 들어가 보니 다른 학교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어요.” 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 일본과의 만남 ◇

K씨는 일본에 유학 오기로 결심하고 6개월 뒤에 일본에 오게 된다. 그 사이에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어능력시험 2급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시험에는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고 하는 실제로 일본에 왔을 때는 회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일본어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봤던 레벨 테스트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 2급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일본어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레벨4에 배정받았다.

K씨는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대학원 입시에서 미술 실기도 보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일본어만 공부시키는 엄격한 학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미술의 전문과목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일본어 습득에 쓰는 시간과 노력을 밸런스에 맞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학교가 신주쿠에 있었는데 역시 들어가 보니까 일본어 공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격해서 공부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K씨는 대학원의 전공을 미술에서 경영학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주5일의 오전은 일본어학교 수업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하루 정도는 기분전환을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입시는 영어가 필수인데 지금까지의 전공과는 다르게 경영 공부도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011년 1월의 수험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K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K씨는 2009년 3월에 일본에 유학오기로 결심하여 2009년 10월에 일본에 왔지만 유학생 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에는 일본에 유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블로그 “동유” 에서 찾은 아파트에서 한국의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구한 처음의 룸메이트와는 별로 맞지 않아서 지금은 이사하여 맘이 맞는 친구와 맨션에서 이웃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고향의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은 인터넷상에서 텔레비전처럼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스카이프” 라는 인터넷전화로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언니와

남동생과는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올해 K씨의 생일에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일본에 만나러 와주었다고 한다.

◇ 장래의 꿈 ◇

K씨의 가까운 장래의 꿈은 대학원에서 경영에 관련된 공부를 하여 2년 후에 졸업할 때는 일본에 취직하여 나중에 “브랜드 매니저” 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다.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데 처음부터 브랜드 매니저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마케팅 부서 같은 곳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요타의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네이밍이나 이미지나 마케팅 방법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술 전공의 학부이었을 때는 그러한 공부를 조금씩 했었다고 하는데 미술만으로는 취직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하고자 대학원의 전공을 바꾸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취직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만큼 일해서 경력을 쌓고 매니저가 될 정도로 일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때 만약 한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돌아갈 의향도 있다고 한다.

경력과는 또 다르게 나이가 들면, 또는 가족이 생긴다면 캐나다나 호주 등 “살기 좋다고 해야 하나.. 좋은 환경이 있는 곳.. 아시아는 학력도 필요하고 뭔가 경쟁이 심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살기 편한 곳” 으로 가서 아이들을 위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본적도 있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의 경쟁이 심하지 않은 환경에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듯 했다.

<インタビュー 31>

Zさん(20代・女性)「日本で学び、写真作家になりたい」

2010年7月23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生、日本在住1年7カ月
インタビューア：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Zさんは1989年生まれ。両親、自分、弟の4人家族。Zさんは、中学生のころからに日本の音

楽やドラマに関心を持った。それがきっかけとなり、中学1年生の時に、放課後の日本語教室に友達と一緒に申し込んで日本語を習う。

高校生の時に参加した美術キャンプで、美術よりも写真が自分にあると開眼する。その後、好きな写真家ができ、その写真家が日本人であった。

Zさんは大学受験をし、美術大学にも合格したが、大学に入らずに、日本の大学で写真を勉強するため、来日することにした。現在は、日本語学校で日本語を学びながら、2011年の大学入学試験に向けて、毎日勉強をしている。

◇ 身近な外国文化としての日本 ◇

Zさんは、中学校の時に日本の音楽やドラマに関心をもった。初めに好きになったドラマは嵐のメンバー、松本潤主演の『君はペット』だった。その頃は、韓国では、日本文化開放が始まったころなので、日本の音楽やCDが一気に韓国に入ってきた。

Zさんは、友達と一緒に、中学校で行われる日本語教室に申し込み、週に2、3回、日本語を習ったことがある。ひらがなやカタカナを少人数で習ったが、「でもその時は、本当に難しくて、それで、見ても読めない感じだったんですね。」それなので、この教室で日本語を習ったのは半年くらいだった。

その頃、Zさんはピアノも習っていた。勉強することに興味が持てなかったことから、将来は音楽が好きなので芸術学の道に進もうと母親と相談して決めた。中学3年生の頃、練習も大変で、経済的な問題もあるので、「好きなだけではできないから」ピアノもやめた。

高校は普通高校に入学をした。高校2年生の時に、第二外国語としての日本語を勉強する。このときは、週に2,3回、1年間勉強をした。

◇ 写真を日本で勉強したい ◇

ピアノをやめた時にも、音楽や美術など、好きなことは続け、それが高校1年の時に、高校の美術部への入部につながった。その部活担当の先生がとてもいい先生だった。最初、母親が「美術？」と怪訝な感じで言っていたが、先生と話しをしたりするようになり、部活に対して理解して、応援し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

高校2年生の時に、美術キャンプに参加した。

そこでキャンプの先生から「美術より写真が向いているんじゃない？」と言われたことをきっかけに、写真という芸術形式に興味を持ち始めた。ただ、その時はすでに高校2年生だったので、大学の美術専攻のための勉強もし始めてしまっていたこともあるので、すぐに専攻は変えられなかった。しかし、「ずっとそれ(写真)を心に置いて、美術を続けました」。

大学受験に関しては、親と意見が合わずに、苦しい時期もあった。Zさんは日本で勉強したいという希望を親に話したが、親からは反対されて、韓国で勉強してほしいといわれた。そして、「まず受験して受けてみてよ」と言われた。結局、韓国の美術大学を3校受けて、そのうち1校に合格を果たした。Zさんは、それでも学科に対しても、学校に対しても自分の思いとはぴったり合うと思えず、心の中では、日本で写真の勉強をしたいということの方が強くなっていった。「確信というか、心がたたないというか、この大学や学科で勉強したいとはどうしても思えなかったんです」。「美術学科で絵を描くことを勉強するよりも、写真について、映像について勉強してみたいという感じの方がもっと強かったんです」。

Zさんによると、韓国にもその当時、二つ、写真学科があったというが、受験勉強で受ける科目や成績の基準がこれまで準備してきた科目と違うため、間に合わなかったという。それもあり、親の期待に応えるため、また高校3年生の自分が日本に行きたいと言うと反対されるので、まずは、美術学科の受験をしたわけである。しかし同時に、Zさんは、「たぶん、合格したら、親と話しかくときにもっと話が通じると思った」という。つまり、大学受験は日本に行くための一つの過程だと考えていたようであった。

なぜ日本で写真を勉強しようとするに至ったかという点、Zさんには好きな写真家がいる、その人は川内倫子という日本人の写真作家だった。この写真作家の世界に魅かれ、日本で勉強できたら、韓国よりももっと幅の広い仕事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という。

◇ 日本への留学準備 ◇

Zさんは、2008年に高校を卒業し、日本には2009年1月に来日している。この間の一年間は、日本語の学校に通って勉強をしながら、留学資金を貯めるため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このとき

も、こうした一生懸命に準備をする Z さんの姿を見たら、親が認めて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が常にあったようだった。

この時期、実のところは、母親と口裏を合わせて、父親には大学に行っていると言っていたという。父親には、日本に出発する 1 週間前に日本に行くことを話したという。

こうして、ようやく日本に辿り着いた Z さんは、新宿区の日本語学校に入学した。その学校のプレースメントテストを受けて入ったクラスは、レベル 1 だったので、これまで日本語を勉強してきたのに、なぜと思ったという。しかし、それが現実だと受け入れて勉強を始めた。

◇ 日本の生活 ◇

Z さんは、初めの 3 か月はお母さんの知り合いの「お姉さん」と一緒に暮らしたが、今は、現在通っている気の合う同じ日本語学校の友達と、同じマンションに住んでいる。

初めのころは、生活上の人間関係に疲れ、韓国に帰りたくなったり、気持ちの上でも日本にきてよかったのかどうか、迷ったりすることもあった。今では、それが自分の成長する過程だと前向き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

Z さんが、日本に来てよかったと思うことは、いろいろな国の人と会えることである。自分は日本社会の中では「外国人」だが、日本語学校の中ではいろいろな背景や国籍の友達がいるので、そうした韓国社会ではない空間で、多国籍の友人たちと一緒に勉強ができるのが嬉しい。

逆に嫌なことは、日本が韓国を下に見ているという感じがするときとか、自分の名前の漢字を間違えられる時。韓国でも、日本のことを下に見ることがあ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わかりつつも、どうしてそのようにしか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時に漠然と思う。また、自分にとっては、いつもは、親切で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と丁寧に接する日本の人が、友達づきあいをするとき、自分と距離を置くのも不思議な感じがする。何より、外国人登録証のために日本の市役所に行く自分「外国人」なんだと実感する。

Z さんは、大久保のように日本の中で韓国人が多く集まるようなところには行か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いう。「せっかく日本に来たのに、なぜ日本にきてまで？」と考えるからだ。キムチも、日本のスーパーで買うもので十分だという。今は、ア

ルバイトをしていないので、人間関係に悩むことはないが、日本の大学生活やアルバイトが始まると新たな人間関係が生まれると将来のことを考えると、どうなるかちょっと心配している。

◇ 将来の夢 ◇

Z さんの、近い将来の夢は、高校の頃からの夢であり、様々な困難をくぐりぬけて辿り着いた、日本の大学で写真を学ぶことである。日本に来てからの 1 年 7 か月に勉強してきたことが、これから受験する志望校の入学という形で実ることがまずは夢の第一歩である。

大学に受かったら、4 年間は勉強し、その後、日本で就職を考えている。今のところは、韓国で就職することは考えておらず、もし韓国に自分ができることがあるようであれば、行ってもいいと思う。日本には、大学の 4 年間、さらに大学院に行くかもしれない、日本にはこれから 10 年くらいは住むことになると思っている。

将来の目標は、写真作家に変わりはない。

<인터뷰 31>

Z씨 (20대·여성) 「일본에서 배워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2010년 7월 23일, 서울 출생
일본어학교 학생, 일본체재 1년 7개월
인터뷰: 후지타 라운드 사치요

◇ 약력과 가족 ◇

Z씨는 1989년 출생으로 부모와 남동생, 그리고 Z씨 4명 가족이다. Z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일본의 음악이나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같이 일본어 교실에 등록해서 방과후에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참가했었던 미술캠프에서 미술보다는 사진이 자기에게 더 맞다고 깨달았다. 그 후로 좋아하는 사진작가가 생겼는데 그 사진작가는 일본인이었다.

Z씨는 대학시험을 본 뒤, 미술대학교에 합격하였으나 들어가지 않고 일본의 대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오기로 했다. 지금은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2011년 대학입학시험을 위해 매일 공부하고 있다.

◇ 친숙한 외국문화로서의 일본 ◇

Z씨는 중학교 시절에 일본의 음악이나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드라마는 아라시 멤버인 마츠모토 준이 주연으로 나오는 “너는 췌트” 이었다. 그 때에는 한국에서 일본문화개방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음악이나 CD가 한꺼번에 한국에 물려들어왔다.

Z씨는 중학교에서 열리는 일본어교실에 친구와 함께 신청해서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일본어를 배웠던 적이 있었다. 적은 인원으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배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려워서 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년 정도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 때 즈음, Z씨는 피아노도 배우고 있었다. 공부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았고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상담하여 장래에는 예술학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연습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피아노를 그만두었다.

고등학교는 보통의 학교에 진학하였다. 고교 2학년 때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다. 그 때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1년간 배웠었다.

◇ 일본에서 사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

피아노를 그만뒀을 때도 음악이나 미술 등,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고교 1학년 때에는 미술부에 입부하게 되었다. 서클담당 선생님은 매우 좋은 분이셨는데 처음엔 의아한 듯이 “미술?” 이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도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클활동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셨다.

고교 2학년 때, 미술캠프에 참가했었다. 그곳의 캠프 선생님이 “미술보다 사진이 더 적성에 맞지 않을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사진이라는 예술 형식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2학년이었기 때문에 대학의 미술전공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전공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늘 그것(사진)을 마음에 두고 미술을 계속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한다. Z씨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부모에게 말했으나 반대

를 하셔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은 시험을 쳐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결국 한국의 미술대학교를 세 군데 시험 쳐서 그 중 한 군데 합격했다. 그렇지만 Z씨는 학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속에는 일본에서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더 커져만 갔다. “확신이랄까, 마음을 접지 못 했다고 할까, 이 대학교나 학과에서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래도 생기지 않았어요.” “미술학과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사진에 대하여, 영상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었어요.”

Z씨는 그 당시 한국에도 두 곳의 사진학과가 있었지만 수험 과목이나 성적의 기준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추지 못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 고교 3학년인 자기가 일본에 가겠다고 하면 반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술학과의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Z씨는 “아마 대학교에 합격한다면 부모님에게도 더욱더 말이 통할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즉, Z씨에게는 대학교 시험도 일본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다.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고자 마음먹게 된 계기를 묻자 Z씨는 좋아하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川内倫子라는 일본인 사진작가였다. 이 사진작가는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면 한국보다도 더욱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 일본으로의 유학준비 ◇

Z씨는 200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는 2009년 1월에 왔다. 졸업하고 일본에 오기까지의 1년은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 유학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 때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Z씨를 부모님이 보신다면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모양이다.

그 시기에는 어머니와 말을 맞춰서 아버지에게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일본에 오기 일주일 전에 일본에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겨우 일본에 도착한 Z씨는 신주쿠의 일본어 학교에 입학했다. 그 곳의 학교에 레벨테스트를 받고 들어간 클래스는 레벨 1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워왔는데 왜?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 일본에서의 생활 ◇

일본에서 처음 3개월은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의 “언니” 되시는 분과 함께 생활했었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는 일본어 학교의 죽이 잘 맞는 친구와 같은 맨션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지쳐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졌거나 심적으로도 일본에 온 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될 때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도 자기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Z씨가 일본에 와서 잘 했다고 생각한 것은 많은 나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사회에서는 자기도 “외국인” 이지만 일본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 하는 공간에서 많은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반대로 싫은 점은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나 자기의 한자 이름을 틀릴 때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을 깔보는 일들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이해는 하지만 한국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늘 친절하게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 이라면서 예의 바르게 대해 주는 사람도 다른 친구들이 섞이면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시청에 갈 때 자기는 “외국인” 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Z씨는 오오쿠보와 같이 일본에서 한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모처럼 일본에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치도 일본의 슈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고민할 일은 없지만 일본의 대학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한다.

◇ 장래의 꿈 ◇

Z씨의 장래의 꿈은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때부터의 꿈이자 수 많은 고난을 뛰어 넘고 손에 쥔 꿈이다. 일본에 와서 1년 7개월 동안 공부해 온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시험 칠 지방학교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는 것이 일단은 꿈을 이루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합격한다면 4년 동안은 공부하고 그 뒤에 일본에서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대학교에서의 4년간 그리고 대학원에 갈 지도 모르니 앞으로 10년 정도는 살게 될 것 같다고 한다.

장래의 목표인 사진작가에는 변함이 없다.

<인터뷰 32 >

PH씨 (40대·여성) 「언제든 돌아갈 타국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는 나라가 된 일본」

2010년8월7일, 서울 출신, 자영업
체재 9년째, 인터뷰어:이호현

◇ 일본에 오는 계기와 첫 일본생활 ◇

일본에 온지 9년째를 맞는 40대의 여성분. 신오오쿠보에서 통신관련사무실을 운영하며, 남편의 무역업도 겸업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이 신오오쿠보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같은 통신계열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 남편이 하던 직업상 일본어가 종종 필요했기에, 좀더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일년간의 계획으로 유학 길에 오른다. 그러나 일년 뒤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옴으로써 일본에서의 첫 생활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한다 라는 언어문제 이전에, 타국에서 두남자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고, 집이 좁고, 이동의 불편함과 생활고 등으로 마냥 일본이 싫기만 한 매일매일이었다고 한다.

근처에 아이들이 놀 만한 곳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개구쟁이 두 아이들을 마음껏 놀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원 제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놀리겠다는 일념으로 남편 몰래 일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이 일할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온지 6개월만에 신쥬쿠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 지원해서,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서, 일단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다.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두 아이를 각각 다른 보육원에 보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신쥬쿠에 나오게 된다. 일이 끝나는 6시면 총알같이 달려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했기에, 신쥬쿠역까지 매일같이 카부키도오리를 달려야만 하는 일과 였지만, 일이 너무 재미있고, 일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기에 너무 좋았다고 한다. 아마도 일이 양육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돌파구 역할을 해준 듯 하다.

기억에 남는 양육중의 에피소드로는, 연년생의 두 아이들은, 쌍둥이 유모차를 태워 다녔고, 어느 날 우유랑 기저귀, 쌀 등을 사서, 유모차에 걸고,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오는 중에, 유달리 체격이 큰 두 아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유모차 채로 뒤집어 저서, 길바닥에 애들은 물론 쌀이랑 전부 쏟아 부어서, 서럽기까지 했던 일이 종종 있었다. 일본은 선진국인줄 알고 왔는데, 가까이 슈퍼도 하나 없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동네 슈퍼는 택배서비스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 불편한 나라 일본이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또 하나, 처음 자전거에 애를 태우고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서 무슨 곡예를 하는 것 같아 신기한 눈으로 봤는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자전거 앞뒤로 두 아이를 태우고, 짐들을 걸고, 심지어 우산까지 받치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옛날 얘기를 하듯 들려주었다.

◇ 신오오쿠보에서 사무실을 열기까지 ◇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같은 계열의 일이었지만, 일본어가 안된다는 핸디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인정받아, 일본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기까지 된다. 그러던 중,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계획을 세

워, 남편의 무역업과 부인의 통신업을 겸업한 사무실을 오픈 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이 있는 신오오쿠보에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때마침,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기였고, 고학년이 되면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부분들과도 일치하는 부분 이었다.

처음 신쥬쿠에 일하러 왔던 때는,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유리카오카에 비해, 한국인들이 많고, 점심시간이면 한국음식을 먹으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 만으로도 신쥬쿠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 삶의 주거지로서 살기 시작한 신쥬쿠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밤의 문화도 눈에 보이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일 관계로 엮인 고객들과의 인간관계가 일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세세한 부분까지 엮이고, 보이게 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터득해 나가야 하는, 진정한 삶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스트레스는 지금껏 좋기만 했던 신쥬쿠가 그렇게 매력적이게만 보이지는 않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언어문제 ◇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왔지만, 어린 아이들의 양육에 바쁜 매일매일로 일본어를 배워야지 라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을 통해 실전으로 일어를 배우게 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엔 일에 관련된 회화는 일어로 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 지금 현재도, 일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일상인데, 고객의 대부분인 한국인들과의 접객은 한국말로, 그러나, 그 일의 사무적인 사무리는 일본인과 일본어로 하는 패턴이다.

아이들의 학교 면담이나, 보호자 모임 등에 참가해서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언어적 감각이 좋은 것 같다.

◇ 자녀 교육 ◇

직장 동료로부터 전도되어 신유리카오카에서 신쥬쿠까지 매주 일요일을 전부 할애해서 예배

에 나올 만큼 열심이었던 것은 단지 신앙심 때문만이 아니라, 두 아이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감을 느끼게 하고, 한국어를 잘 사용하길 바라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PH씨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특별났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일이 우선시 되어, 조금은 선생님들께 일임한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두 아이들이 숙제랑 준비물 등 잘 챙기고 적응도 잘 해 주었기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개성이 강한 첫째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일본의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한국학교로의 전학을 생각하게 된다. 원래부터 한국어공부에 열성이었던 점과, 남자아이로써 자신들의 뿌리가 어딘지 확실히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자 했던 부분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일본공교육학교에서 한국학교로 보내게 되었지만, 두 아이가 일본인이 가지는 장점인 성실함과 계획성, 그리고 기초에 충실한 점들을 잘 배우고,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인 자유분방함과 독창성을 잘 살려서, 셋카쿠(せっかく: 모처럼) 일본에서 생활하므로, 두 나라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잘 배워서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 장래계획 ◇

한국에서 흔히들 어느 회사에 10년을 있으면 그 일에 프로가 되고, 20년을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상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PH씨도 그 분야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으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잘 계획을 세워서 다운되지 않게, 너무 목표에만 치중하지 않게, 일본의 좋은 장점들을 배워서 금전적인 면도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일본생활이 양육과 겹쳐서 너무 힘들었기에, 잘 보지 못했던 일본의 좋은 점들에 눈을 돌리고, 이젠 좀 일본을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언젠든 아쉽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100엔 슝 물건이 대부분 이었던 자신의 삶에서, 이젠 일본을 타국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이 걸러지는 나라로서 좀더 애착을 갖고,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일본인이 가지는 장점과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들을 잘 배우고 갖춘 아이들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32>

**PHさん(40代・女性)「いつでも帰るとい
う他国から、わが子が育つ国になった日本、
これからは賢く日本を満喫し、子どもたち
も両国の良さを学んでほしい」**

2010年8月7日、ソウル出身
自営業、滞日9年目
インタビュアー：李 坪鉉

◇ 来日のきっかけと初日本生活 ◇

日本に来てから9年目になる40代の女性。新大久保で通信関連の事務所を営んでおり、ご主人の貿易仕事の事務所としても活用している。小学生の2人の息子さんと夫婦の4人で新大久保に住んでいる。

韓国ではソウルで現在と同類の通信系列の事業をやっていたが、結婚してからご主人が仕事上に必要だった日本語をもっと勉強しようと思って1年の予定で留学したという。しかし、1年後に2人の息子さんを連れてご主人がいる日本に移ってきたことで家族4人そろって日本での生活が始まった。

最初は日本語ができないという言葉の問題よりも他国で2人の息子を育てることに対する負担や狭い部屋、交通の不便さ、経済的な苦勞などで日本での生活は嫌な毎日だったという。

家の近くに子どもの遊べるようなところもなかったし、友達もいなかったためにやんちゃな2人の息子を遊ばせる方法を探していた。その時、働くお母さんのための保育制度について知り、子どもに遊べる場を提供してあげようとご主人に内緒で仕事を探し始めたそう。しかし、日本語が全くできない自分が働ける場所はどこにもなかったという。

そのような日々が続く中、日本に来てから6ヶ月が過ぎた時に韓国での経験を評価され、新宿にある韓国系の会社でアルバイト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

一日の日課としては、朝6時から準備して2人の息子をそれぞれ違う保育園に送る。その後、バスと電車に乗り換え、2時間かけて新宿に来る。仕事が終わる午後6時には子ども達を迎えに行かないといけけないので毎日のように新宿駅まで歌舞伎通りを走っていたが、仕事は楽しかったし、仕事していると全てのことを忘れることができてもよかったという。おそらく仕事をしている瞬

間が育児のストレスから解放する突破口になったようだ。

記憶に残る育児のエピソードは、年子である 2 人の息子を双子用のベビーカーに乗せていたが、ある日は牛乳とおむつ、お米などの買い物をして家に戻る途中で事件は起きた。比較的に大柄であった 2 人の息子がベビーカーの中で少しでも動いたらバランスがとれなくなって倒れてしまった。それで息子はもちろんお米などが道に倒れてしまい、大変だったことがしばしばあったという。日本は先進国だと思っていたが、近くにスーパーもなくしかも宅配サービスもなかったのでバスで移動せざるを得ない状況がとても大変だったとその当時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語ってくれた。

もう一つのエピソードは、自転車に子どもを乗せているお母さんを初めて見た時にはまるで曲芸のようで驚いたが、いつの間にか自分も前と後ろに子どもを載せて、両ハンドルには荷物をかけ、しかも傘をさしながら走るようになったと苦笑いながら昔話を語るように聞かせてくれた。

◇ 新大久保で事務室を開くまで ◇

最初の仕事は彼女が韓国でやっていたことと同じ系列のものだったが、初めては日本語ができないためにアルバイトとして雇われた。しかし、韓国での経験を生かして頑張った結果、成果をあげることができた。そのことを会社から認められて日本の会社の代理店を経営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中、韓国系の会社で働いていたご主人と一緒に起業しようと考えた。それでご主人が勤めていた貿易関連の仕事と自分の通信関連の仕事を両方取り入れた事務所を開くことになった。もちろんほとんどのお客さんがいる新大久保で事務室を開いたのは当然なことだろう。

そして、子どもたちも小学校に入る年頃になったし、以前から子どもたちが高学年になったら韓国系の学校に通わせたいと思っていたので、新宿に移るタイミングとしてちょうど良い時期だったという。

最初、仕事で新宿に来た時には、外国人に会うことのなかった新百合ヶ丘に比べて韓国人も多く、昼の時間帯には韓国の料理を食べて韓国語で話すことができたので PH さんにとって新宿はとてもいいところだったようだ。ところが、実際新宿に住み始めたら今まで思っていた新宿と違って見たことのない夜の文化や特に子どもには良くない部

分が見え始めた。そして、仕事上で付き合いしてきた人々との関係が今までどおり仕事で終わるのではなく、もっと細かいところまでつながったり、いろんなことが見えたりして複雑な人間関係を経験することになった。それらを賢く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まさに本格的な人生の戦争が始まったという。

このような複雑で多様なストレスは今まではすばらしいと思っていた新宿がそこまで魅力的ではないと思いはじめたきっかけになったそうだ。

◇ 言葉の問題 ◇

日本語が全くできないまま 2 人の子どもを連れて来日したが、育児で目まぐるしい毎日を過ごす PH さんにとって、日本語の勉強をしようというのは夢にも考えられない状況だったという。アルバイトを始めてからは、仕事上でよく使う言葉から身について、いわゆる「現場の実践日本語」のようなものを覚えた。10 ヶ月が経った頃には仕事に関連する会話は日本語でしゃべ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現在も職場では日本語と韓国語を半分ずつ使っている。お客さんのほとんどが韓国人なので接客する時は韓国語で、その事務的な仕事は日本人と日本語でするパターンになっているそうだ。

学校の面談や保護者の集まりなどに参加してもそんなに問題なく日本語を使えるということから、言語的なセンスがすごくいいようだ。

◇ 子どもの教育 ◇

職場の同僚から紹介してもらった教会は新宿にあったので、毎週の日曜日に新百合ヶ丘から新宿まで通っていた。教会に通うために日曜日になるとほぼ丸一日という時間を潰すのだが、そんなに熱心に教会に通ったのは自分の信仰深さではなく 2 人の子どもに韓国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たせ、韓国語をたくさん使わせるという教育の側面が多く作用したからたという。このように PH さんの韓国語に対する熱意は特別なものだった。しかし、仕事を始めるとやはり仕事優先になってしまい、子どもの教育は先生に任せる部分が多かったという。もちろん、PH さんが宿題や準備物などは手伝ったし、子どもたちも良く適応してくれたおかげで上手くやっていくことができた。しかし、個性豊かな長男が高学年になると日本の教育システムに適応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

韓国系の学校に転向することを考え始めた。元々 PH さんが韓国語の勉強に熱心だったことや男の子として自分のルーツがどこ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たせたいという気持ちもあつたのだという。

息子さんは日本の公立小学校から韓国系の学校に転校することになったが、せっかく日本に住んでいるので2人の子どもが日本人のいいところである真面目さと計画性、そして基礎を大事にすることなどを身につけると同時に韓国人の長所でもある自由奔放なところや独創性を上手く取り入れてよりいい人生を切り開い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と云った。

◇ 将来の計画 ◇

韓国ではある会社で 10 年間働くとその仕事においてはプロになるし、20 年間働くと自然にトップになれるといわれている。PH さんもこの分野では 20 年近くやってきたので、ある程度会社も安定しているし、自信もついたので、これからは良く計画を立てて、安易にならず、そして目標だけにこだわらず、日本のいいところを学びながら、金銭的にもよく管理して、会社の運営に頑張りたいと言った。

そして、PH さんにとって、初めての日本での生活は育児と重なり合ってとっても辛かったせいで、今まで気づけなかった日本のいいところに目をむけて、これからは日本をより楽しみたいという。いつでも惜しまず韓国に帰れるように、生活用品のほとんどを 100 円ショップで購入したことが象徴するような日本での自分の生きざまを変え、これからは日本を他国ではなく、自分の子どもたちが育つ国としてもっと愛情を注ぎ、調和しながら生活を送りたいという。何より子どもたちが日本人のいいところと韓国人のいいところをよく学び、それらを備えた人として成長してほしいと付け加えた。

<인터뷰 33 >

JOさん (40代・여성) 「日本語が 너무 좋아, 좀더 실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일본 유학을 결심. 지금은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박사논문 연구 중」

2010년8월7일 서울 출신, 한국어 강사

◇ 일본에 오는 계기와 첫 일본생활 ◇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중, 편집 중에 번역을 의뢰 할 때마다 필요성을 느끼며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 그 당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다문화이해의 첫걸음은 언어 습득이다」는 문구로 더욱 언어습득에 대한 목표를 다지게 된다. 학창시절 배우던 외국어와는 달리,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즐겁게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 학습을 할수록 그 재미에 빠져들었던 일본어. 아플 때 조차도 일본어 학습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JO씨. 그 열정 덕분인지, 배운지 일년 만에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취득한다. 그러나 더욱더 자신의 일본어가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인 친구를 사귄 때 자연스럽게 통할지 의문이 생기며, 좀더 능숙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고, 실전에서 경험하고픈 열망을 안고 주위의 많은 반대 충고를 뒤로하고 유학 길에 오른다.

나리파 공항에서 「림진바스는どこですか」라고 물었을 때, 친절히 가르쳐 주던 답변에, 자신의 일본어가 통했다는 기쁨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やった」라고 외쳤으며, 웃음짓는 JO씨. 일본에서의 첫걸음은 이렇게 자신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신주쿠에서 시작된 외국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향수병을 겪는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타문화였고, 집을 떠나 외국에 나와있다는 것 만으로 두려움이었다고 한다. 일본의 문화도 잘 몰랐기에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하며, 몇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한국의 교회에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 집에 초대받아,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지만,持ち込みパーティ였기에 자신의 빈손이 너무 부끄럽고, 분위기도 썰렁해져서 당황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또, 공항 도착해서 일본어가 통했다는 자신감에 그 후의 모든 생활상의 수속과 전화 문의 등을 혼자서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화 상대방의 말은 완벽하게 다 못 알아 들을 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はい、わかりました」라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하 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랐으며 웃었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한번 묻든 것은 순간의 수치지만 묻지 않는 것은 평생의 수치다 라는 일본의 속담이 떠오른다

고 한다.

◇ 신주쿠의 편리함 ◇

신주쿠는 JO씨에게 있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한다. 처음 일본에 도착 후 리무진에서 내린 곳이 신주쿠이며, 그때 있었던 사쿠라 은행을 보고 참 예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신주쿠는 오래 산 동네이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우체국, 편의점 등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한다. 꺼지지 않는 도시, 전자상가, 백화점, 토요쿠한즈 등 생활의 편리함이 모여있는 곳으로 항상 뭘 해야겠다,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충족이 안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건 신주쿠를 떠나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터(한국식품점)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며, 처음엔 너무 한국적인 게 많은 신오오쿠보는 일본에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아 재미가 없고, 마음껏 일본을 만끽하고 싶다는 마음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한국사람은 한국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아지더라는 깨달음을 말해주었다.

◇ 언어에 대한 학습열의가 한국어강사로 ◇

일본어가 너무 좋아서 일본에 왔지만, 대학진학 상담 중 어차피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일본어가 기본이므로, 다른 전공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는 충고를 듣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떠올려,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 오게 된 동기인 언어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에 논문을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

현재는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JO씨.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회화뿐만 아니라 한국문자의 특성 등 문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강의 중이다. 학습자는 초급에서 5년 경력자까지 다양하며,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으로 남성분이 1할 정도이고 대부분이 여성 학습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로 제 1위가 한국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을 반영해 준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JO씨는 언어에 대한 관념이 특별났다. 즉, 성경에서 언어는 원래 하나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바벨탑이 쌓이고, 여러 언어로 파생 된 것이므로, 원래 하나였던 언어

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언어를 흠어 놓으셨기에 일차적으로 갈라진 음성, 발음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원리하에 차이점들을 정리하면, 언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언어 교수법의 개발에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이지만, 습관과 문화 등을 알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현재 본인도 중국어를 학습 중인데, 강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 장래 계획 ◇

일본 유학 길에 올라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긴 시간 학교에서 연구자로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박사논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므로, 환경이 주어진다면 언어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끝을 맺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어 강의의 교수법, 즉, 좀더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말해주었다.

<인터뷰 33>

JOさん(40代・女性)「日本語が大好きでもっと本場の日本語を学びたい一心で留学、今は韓国語講師として言語への研究意欲を燃えつくしている」

2010年8月7日、ソウル出身
韓国語講師、滞日17年目
インタビュアー：李 坪鉉

◇ 来日のきっかけと初日本生活 ◇

JOさんはソウル生まれ。大学を卒業後、出版社に勤めていた。その時、編集と関連して翻訳を依頼するたびに日本語の必要性を感じて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当時、感心しながら読んでいた本の中で「多文化理解の第一歩は言語習得だ」という文から言語習得の目標をさらに固めていった。学生の時に学んでいた外国語とは違って試験という負担から開放され、勉強することができた日本語、勉強すればするほど楽しみがどんどん増した。JOさんは病気だったときも日本語の本を手から離さなかったという。そのような情熱のおかげだろうか。勉強してから1年で日本語能力試験1級

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日本という国で、もし日本人の友達ができただけに自分の日本語が通じるかどうかという疑問があったそうだ。また、より質のいい日本語を学びたい気持ちと実際に日本で日本語を話し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という。そして、周りの反対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希望と夢を抱いて留学することになった。

JOさんは始めて成田空港に着いて、案内所で「リムジンバスはどこですか」と聞いたが、それにやさしく答えてもらったことで自分の日本語が通じたという喜びのあまり拳を握りながら「やった」と叫んだそうだ。日本での第一歩はこの経験から得た自身感によりかかって始まったという。ところが、新宿からスタートした外国での生活はすぐにもホームシックにかかってしまう。生まれて初めて経験する他文化、そして実家から離れて外国に来ていること自体が怖かったという。日本の文化についてもあまり知らないのでたくさんの試行錯誤を経験したそうだ。そのなかで、いくつかのエピソードを聞かせてもらった。

韓国の教会で出会った日本人の友達に、初めて家に招待され、とつてもわくわくしながら訪ねた。しかし、持ち込みパーティだったことを知らず、自分は何も準備せず手ぶらで訪問してしまい、とても恥ずかしい思いをしたという。もちろん、その場の雰囲気も重くなってしまつてとまどつたという経験談を聞かせてくれた。

また、空港に着いて日本語が通じたという自信から、その後の生活上の手続きや電話での問い合わせなどすべてのことを自分1人でトライしたそうだ。しかし、電話の問い合わせの場合、相手の言うことを完全に聞き取れなかった時が多かつたにもかかわらず、「はい、わかりました」と自信溢れた声で答えてしまったことを、電話を切つてからどれだけ後悔したものか。そのときを思い出すたびに「聞くは一時の恥、聞かぬは一生の恥」という日本のことわざが頭に浮かぶという。

◇ 新宿という町の便利さ ◇

新宿はJOさんにとっては第2の故郷のようなところだという。最初に日本に着いてリムジンバスに乗って、降りたところが新宿のあるところであり、その時、目の前にあったさくら銀行が綺麗でとても印象的だったという。新宿には長く住んでいて、何より郵便局、コンビニなど24時間営業のお店が多いのが本人にとってはとても魅力的だ

という。光が消えない町、電子製品の商店街、百貨店、東急ハンズなど、生活するのにとても便利だった。いつも何かが必要な時、何かをしようと思った時に、その必要が充足されないときはなかつたという。それは新宿を離れてみて分かつたと言つた。ジャント(韓国食品売場)も大きい存在だつたそうだ。初めての新大久保は韓国的なものが多くてあまり面白くなく、日本的な風景や情緒を満喫したいという気持ちを満たすには物足りなかつたが、時間がたつと共にやはり韓国人は韓国的なものが身近にあるのが一番だということに気付いたと言つた。

◇ 言語への学習熱意から韓国語講師に ◇

日本語が大好きで日本に来たが、大学進学の際に先生から、どうせ日本で勉強を続けるということは日本語ができるというのが基本であるので、もう一つ専門的なことを学ぶのはどうかというアドバイスを聞いたそうだ。それで、先生になりたいという昔の夢をもう一度叶いたくて教育心理学を専攻と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日本に来るきっかけになつた言語に対する興味、関心はおさまらず、日本語学習者を対象にした論文を書き、研究を進めてきた。

JOさんは現在、韓国語講師として働いている。主に社会人を対象に会話だけではなく韓国の文字の特徴など、文法を含めて総合的な講義を行っているという。学習者は初級から5年間勉強してきた人まで多彩で、学生の割合は韓国語学習者の大半がそうであるように男性の方が1割くらいで他は女性の方であるようだ。韓国語学習のきっかけとして、第一位となるのが、韓国のドラマを字幕なしで見たいという調査結果からも女性の学習者が多いというのは想像しがたくない結果である。

熱心なクリスチャンであるJOさんにとって、言語に関する考え方は特別なものだつた。その根源として、聖書における言語は元々一つだつたが、神になろうとした人間がバベル塔を建てたという罪の結果、言語がそれぞれ分かれたと言われている。だから、JOさんは言語は本来一つだつたので究極的にはお互いに通じるはずだという考えをもっており、今もそれは変わっていないと強調した。もちろん、神様が人間の言語を異なるようにしたのでそれぞれの言語はその音声や発音が違う。しかし、言語間の共通点は必ずあるという前提のもとで相違点を整理すれば言語をもっとやさしく

教えることができる言語教授法の開発のヒントになるだろうと JO さんは言った。また、彼女は言葉を教える立場なので他の言語を知るということはその国に興味を持つことにつながると、そして、ある国の言葉を学ぶということはその国の習慣や文化を知る近道にもなると言った。本人も現在中国語を勉強しているが、韓国語の講義をする時に役立つという。

◇ 将来の計画 ◇

JO さんは日本に留学して教育心理学を専攻し、長い間研究者として学校に在籍していたが、まだ成し遂げていない博士論文に対する未練が残っているようだ。もし、環境を整えたら言語に関する研究を続けて結果を残したいようだ。最後に、現在は韓国語の教授法、つまり、学習者が韓国語をもっと簡単に習得できるような方法、画期的な教授法を開発したいという夢を語ってくれた。

<インタビュー 34>

李某さん (30 代・男性)「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の可能性に賭けて」

2010 年 8 月 12 日、プサン出身
貿易会社経営、滞日歴約 9 年
インタビュアー：堀内康史

◇ 来日の経緯 ◇

大学進学にあたり、希望の大学に入れず、受かった大学に行くか、浪人しようか迷っていたところ、日本に住んでいるおじが、希望しない大学にいくくらいなら、日本に来なさい、と言ってくれたので、日本に行くことにした。ただ、兵役を済ませていないと、外国に行くことは難しかったため、高校卒業後軍隊に入隊し、兵役をおえてから日本に来た。

◇ 日本での学業と仕事について ◇

日本に来て、新宿にある日本語学校に 2 年間通い、都内の私立大学に入学した。

大学では、経営学部で貿易のことを勉強した。勉強のかたわら、実務も経験したかったので、4 年間おじの貿易会社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

2 年前大学を卒業し、そのままおじの貿易会社に就職した。その会社は、日本の商品を韓国に輸出したり、逆に韓国の商品を日本に輸入販売した

り、そしてネット販売も行っていた。そこで 2 年間働いていたが、リーマン・ショックなどの影響で会社が危なくなり、社長から会社の見直しについて説明とアドバイスがあり、自分から会社を辞めた。その会社はやめた後数カ月後につぶれた。他の会社に就職することも考えたが、これまでの経験から自信があったので、1 年間の準備期間を経て、昨年会社を設立した。以前の会社のとときの取引先を引き継ぐこともでき、頑張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

◇ 現在の仕事 ◇

去年、自分の会社 (株式会社) を設立、貿易および貿易関連業務を行っている。現在、貿易そのものを自分自身でも行っているが、主に行っている仕事は、ニッケル、銅などの貿易業務において、日本の会社と、外国の会社 (韓国以外も) との間を取り持つことであり、その際手数料収入を得ている。不景気なので、思い通りにならない部分もあり苦労はしているが、なんとか持ちこたえて頑張っている。もう少し頑張れば軌道に乗ってうまくいけるのではと考えている。

◇ 日本について ◇

韓国にいれば、やはり過去の経緯から、日本については良くないイメージを持つ人もいると思うが、自分の場合は、おじが日本にいて、日本の情報やモノが身の回りにあったせいか、悪いイメージはなかった。音楽 CD や家電製品も日本のものだった。来日当初も、韓国と日本の違いにそれほど戸惑わなかった。

仕事をしている立場からは、日本ではサービス精神などが行き届いていて先進国だということを感じる。また、仕事上のチャンスも多くあると思っている。

以前日本人の女性と付き合っていたときに感じたことは、本音としてどう思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ただ、これは文化の違いから来るものなのか、個人差なのか判断はむずかしいところである。韓国にも表向きは良いが、裏で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人はやはりいる。

日本で良くない部分は、警察官による職務質問である。特に悪いこともしていないのに、道路を歩いているときに職務質問をされ、外国人とわかると外国人登録証の提示を求められる。防犯には

役立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それが何度もあるので、いやな気持ちになる。

◇ 大久保近辺について ◇

街をあるいていると、大久保はやはり韓国人、中国人が多く日本人は少ないと感じていたが、最近日本人の数が増えたのではと感じている。この調査で外国人の「顔」が見えないというが、大久保では、韓国人や中国人が多いが、韓国食堂では顧客は日本人である場合が多い。そこでは従業員の韓国人と客の日本人との間で交流もあると感じている。

◇ 将来について ◇

いま日本に在住 9 年で、これが 10 年を過ぎると(あと約 1 年で)、永住ビザをもらえるので、少なくとも永住ビザを取るまでは日本に居る予定である。ただ、自分の仕事のことからもあと 4, 5 年は日本にいたいと思っている。両親の面倒は、姉が韓国にいるものの、長男である自分がいずれ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自分が韓国に帰るか、あるいは両親を日本に呼び寄せる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は思っている。両親は日本語ができないが、新宿の周辺であれば、なんとかなるのではとも思う。しかし、今の両親の友人関係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難しい。

日本での事業が本当にうまくいかなければ、韓国に帰って就職することも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が、韓国では 30 歳を越えるとこれまでの実績がなければ仕事を得るのは難しい。アメリカンドリームじゃないけど、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みたいなものはあると思っている。日本のほうが成功の可能性のチャンスがあるので、やはりしばらくは日本で頑張りたい。

< 인터뷰 35 >

YJ씨 (20대·여성) 「집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2010년9월14일, 부산출신, 대학원 박사과정
일본체재 10년
인터뷰어: 오세연

◇ 약력, 가족 ◇

YJ씨가 일본에 오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어머니가 45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유학생활동은 너무도 힘들었지만, 자식이 생기면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시키신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너는 나중에 크면 일본으로 유학을 갈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나 더 어릴 때 유학시키려 했는데 당시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서...” YJ씨는 언젠가 한 번쯤은 일본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의 유학에 대한 규제, 그리고 IMF 등 여러 상황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오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2010년) YJ씨가 일본에 온 지 10년이지났고, ○○대학 박사과정에서 조직과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학부 입학 전부터 친언니와 같이 생활하다가, 도중에 친언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교토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친오빠도 언니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YJ씨는 학부 3학년 때부터 일 년 반 정도 혼자 살다 몇 년 전부터는 고등학교 동창이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함께 살고 있다. YJ씨의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은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주’에 관한 일화가 있다고 한다.

◇ 주거에 관한 에피소드 ◇

지금 사는 곳은 요요기 근처다. 여기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게 된 후 일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녀는 친언니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

YJ씨는 처음 유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봐 주셨고,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사람이 많아야 적응이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 유학생 기숙사로 갔어요. 그때 환율도 아주 비싸고 해서 학업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생활에 쫓겨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타지 생활하며 자신을 돌봐 줄 부모님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쉽게 친해지고 믿고 의지하기 보다는 경계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좀 있는 편이라 도난 사건도 많았고...”라고 말하

며 옛 일을 회상하는 YJ씨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당시 O지역에 있던 기숙사는 몹시 오래된 건물에 시설도 열악했다고 한다. 3조반 정도인 2인실이 1인당 4만 5천 엔에서 5만 엔 정도의 집값과 광열비는 따로 내야 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나이로 18살이었던 YJ씨는 기숙사에서 제일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숙사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유학생은 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랬는지 자신을 두고 20살(한국 나이)짜리가 도대체 뭘 알겠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열악한 주거 그리고 생활 환경, 제대로 대화도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롯해 도난 사건 등을 겪은 후, YJ씨는 일본 유학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 방을 구해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기숙사 자체가 사이타마 현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사이타마에서 학교(신주쿠)까지 통학을 시작했고, 사이타마에서 2,3년 동안 통학하는데 애로가 많았다고 한다. 기숙사 근처 역에서 학교 역까지는 전철로는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기숙사까지 역까지 자전거로 20분, 전철 편성 시간 때문에 한번 전철을 놓치면 수업에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앞에 붙여진 맨션, 빈방 등의 정보를 체크 하곤 했다고 한다. 때마침, 친언니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숙사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택센터를 찾았다. “그냥 별 기대 없이 가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집도 넓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격도 시세보다 많이 싸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날 밤 7시 정도에 바로 한국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집을 보러 갔어요. 직접 보고 나니 이 집에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빌려 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 아저씨가 의학부 입시 전문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국제 의료 공헌에 관심이 많으셔서 일부러 집을 지으실 때 1층 건물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유학생들에게 빌려 주려고 따로 지으신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으신 거였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3일 만에 바로 이사했어요. 여기에서 산 지 5년 쯤 됐어요.”라고 말하는 YJ씨를 보며 지금까지의 일본 생활에서 주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YJ씨의 어머니께서 집을 따로 빌려서 사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YJ씨가 일본에 온 지 8개월째 때, YJ씨의 친언니도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알아볼 때의 일이라고 한다. “집 구하다가 사기당할 뻔 한 적도 있어요. ... 부동산에서 분명히 언니랑 저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시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일본 온 지 저는 7,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언니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돈을 내라는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계속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만 하고, 인기 있는 물건이라 금방 다른 곳에서 계약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달 치 집세나 소개비를 내면 그 집 계약할 수 있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린다고 몇 번이나 재촉하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부터 나는 일본어도 잘 못하고 당신이 말해도 잘 모르니 3일 후에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가 일본어 잘하니까 그때 얘기하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숙사로까지 자꾸 전화가 와서 빨리 돈을 내라는 거예요. ... 그때는 일본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돈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여서 8만 엔 정도를 그쪽에서 청구하길래 이사하려면 내야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돈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동산 사람이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까지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학교부터 집 주소까지 부동산에서 알고 있으니 점점 무서워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보다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보증인을 부탁했던 일본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대신 처리를 해주셨는데...”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YJ씨가 일본 나이로 18살이라 계약이 무효가 되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때문에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년은 계속 이사를 포기했었다고 한다. 또 “물론 일본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학교를 통해서 찾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걱정 때문이죠. 지금은 좋은 집

도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 됐죠. 그때 이사 갔더라면 지금 집주인 아저씨는 못 만났을 테니까요”라고 말하면서 주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 친구들과의 교류 ◇

처음에 학부 때는 같은 과 일본인 친구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없었다고 한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클래스에서 자주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몇몇 일본, 중국, 대만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한다. 일본인 친구를 사귄 때 힘들거나 다른 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신입생활 영화처럼 한번 모임을 하고 술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정말 친해진 것 같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다음에 다시 만나려고 하면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만나기 위해서 연락도 많이 해야 하고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그냥 그렇게 없던 일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다음 약속을 정하거나 즉흥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때도 있어요. 일본인은 별로 그러지 않아서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느꼈어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한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처음 일본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의식주’ 특히 ‘주’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도요. 전에 살던 집(기숙사)이 안정적이기도 편하지도 않으니깐 그게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줬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때는 제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만족할만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그때는 제가 감당하기 벅찼던 거 같아요. 제 자신이 힘들니까 굳이 학교 친구들이랑 힘들게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다 귀찮아했던 거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이사하고 나서는 일본 온 지도 꽤 되어서 적응도 되었고, 혼자 사니까 기숙사에서처럼 다른 사람 시선을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 다른 면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어볼까하는 생각도 들고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하고부터 제 생활도 마음도 너무 편해졌다는 걸 느껴요. 결국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일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아 보일 수 있는거겠죠.”

YJ씨는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면 신주쿠나 신오오쿠보를 자주 간다고 한다. “집이 요요기고 학교도 신주쿠구에 있어서 그런지 거의 신주쿠 아니면 신오오쿠보에서 친구를 만나요. 성격이 좀 남성스러워서 그런지 주위에 남자 친구들이 많아서 보통 한국 음식을 많이 먹으러 가요. 여자 친구들 만나면 스파게티 같은 걸 먹으러 가도 되는데 남자 친구들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일본 생활이 오래 되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감자탕, 해물보쌈, 통닭 등 여기저기 많이 가요.” (웃음)

10년 전의 신오오쿠보와 지금의 신오오쿠보의 분위기는 많이 변했다고 한다. “한류 붐이 생기고 나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발전도 한 것 같아요. 주변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해서 한 번씩 같이 가는데 아직까진 일본사람들이 신오오쿠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은 거 같아요.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더 돕고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삼겹살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신오오쿠보의 거의 대부분이 삼겹살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같은 메뉴를 두고 경쟁하기 보다는 신오오쿠보를 디즈니랜드 같은 하나의 테마파크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기대라고나 할까요. 좀 더 다양한 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변한다면 단순한 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코리아 타운으로서의 입지를 더 좋은 이미지로 굳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학 전공이라 이런부분까지 생각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신오오쿠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한 것 같아요.” (웃음)

◇ 장래에 대하여 ◇

지금은 조직론, 경영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조직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본에서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YJ씨는 조직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키고 싶다고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연구자나 교육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지만, 취업 후 부모님을 일본에 모셔와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한다.

◇ 일본사회에 바라는 점 ◇

“특별히 일본 사회에 바란다고기보다 전공 쪽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시장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 기업이 그동안 우위를 지키던 일본 기업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제가 만난 일본의 학자들 그리고 보통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일본 기업이 다시 한국 기업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 점유율과 같은 숫자로 한국 기업이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는 아직 일본 기업이 뛰어나다고들 합니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넘어야지, 이겨야지가 아니라 공생관계, 이웃처럼, 아시아 연합(AU)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뿐만이 아닌 한국사람도 한국과 일본만이 아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탁상공론이라 한다면 그 뿐이겠지만요.” 이 아시아 연합이라는 시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에는 집주인 아저씨의 영향이 크다는 YJ씨.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긍정적인 마인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집주인 아저씨와의 만남은 YJ씨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 만남에서 더욱 더 의식주 중에서 <주>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인터뷰어 35>

YJさん(20代・女性)「大家さんの優しい心」

2010年9月14日 プサン出身
大学院博士課程、日本滞在 10年
インタビューア：呉世蓮

◇ 役歴、家族 ◇

YJさんが日本に来たきっかけはお母様の影響が大きかったそうだ。「お母さんが45年前に日本で留學生活をして、その時お母さんの留學生活はとても苦しかったが、子供が出来れば、日本で留學をさせて、勉強をさせようと決心をしたそうです。特に日本語の勉強をしないさいと言われた事は無いが、幼い頃から『貴女はやがて大きくなれば日本で勉強をするのよ。』といつも仰っていました。お母さんは高校の時やもっと小さい頃に留學をさせたかったが、当時は状況が良くなく...。」 YJさんはいつか一回は日本に行こうと思っていたが、当時の留學に関する規制、そしてIMF等の色々な事により、高校を卒業をして日本に留學に行くことになった。

現在(2010)YJさんが日本に来て10年が過ぎて、大学の博士課程で組織と経営に関して研究をしている。学部入学前からお姉さんと一緒に生活していたが、その後お姉さんは大学院を卒業して、現在、京都でお仕事をなさっている。そして、アメリカで留學を終えて来たお兄さんとお姉さんは同じ会社でお勤めされている。YJさんは学部3年から一年半ぐらい一人で暮らしていたが、何年前からは高校の友達が日本に留學に来て一緒に暮らしている。YJさんには日本留學生活の‘衣食住’の中でも、特に‘住’に関してのエピソードがある。

◇ 住居に関するエピソード ◇

今住んでいる所は代々木の近くだ。この大家さんに会ってから、日本と日本人に関するイメージが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今住んでいる所に引越する前はお姉さんと一緒に寮生活を送っていた。YJさんは最初、留學に関しては特に関心が無かったそうだ。「母に留學院を通して情報を集めてもらいましたし、留學に行っても、韓国の人が多い所に行けば、生活の慣れが早いと思い、韓国人留學生寮に行ったんですよ。当時は為替も低く勉強だけでは無く、アルバイトまでして、一生懸命に暮らしている人達が多かったです。私もそうでしたが、自分の生活に追われて心や経済的に余裕が無さそうな人達が多かったです。家を離れて生活をして、自分を支えてくれる親や家族もいない状況で、どうしても一人で頑張っていて、生き残らなきゃと思っていたのでしょう。それで、お互い簡単に仲良くなれなくて。信じあってお互い支え合うのでは無く、警戒する事が多くありました。

経済的に厳しい人も少し居たからか盗難事件が多かったです…」と言いながら、昔の事を振り返る YJ さんに詳しくその後の話を聞いた。当時某地域にあった寮はとても古い建物で施設も不便だったそうだ。3 畳半ぐらいの 2 人室で一人当たり 4 万 5 千円から 5 万円ぐらいの家賃で、光熱費は個人負担であったそうだ。当時 18 歳であった YJ さんは寮で一番年下であるという理由で寮の人々から注目の対象であった。日本に留学をする韓国人は主に、韓国の大学を卒業し、男の場合は軍役を終えた人達が多かったという。

不便な住まい、そして、生活環境、まだ一度も話した事もない人からの冷たい視線や盗難事件などを経験しながら、YJ さんは留学したことに後悔を感じたそうだ。しかし、一人で部屋を探し生活することによってお母さんに心配をかけたくないと思い、他の所に移らずに寮生活を続けた。そうするうちに学生寮自体が埼玉県に引っ越して、埼玉から学校（新宿）まで通学を始めた。2,3 年ほど埼玉から通学した時には色々辛い事が多かったそうだ。寮近くの最寄り駅から学校の最寄り駅まで電車では 25 分程度しかかからないが、寮から駅まで自転車で 20 分、電車の時刻により、一度電車を逃すと授業に 1 時間ほど遅れて到着する時もあった。それで、日頃の合間を見つけて、不動産屋の前で空室などの情報をチェックしたりしていた頃、姉が大学院を卒業し、学生寮の契約更新もそろそろだったので、学校が運営する住宅センターを訪ねた。「あまり期待せずに行ってみてください、とてもいい条件の所があったんですよ、家も広く、建てられたばかりで価格も相場よりも安かったんです。大家さんに連絡して、その日の夜 7 時ぐらいに友人と二人で見に行きました。直接見てみて、その家にぜひ住んでみたいと思いました。そして、何故このように良い条件の部屋を安く貸してくれるのか気になったんです。後から大家さんに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医学部入試の専門学校を運営する方で、国際医療貢献に感心があり、家を建てる時に、建物の 1 階の面積の 3 分の 1 程度を留学生に貸そうとわざわざ、分けて造ろうとしたそうです。金儲けのために部屋を貸すのではなく、他に理由があったのです。そのように契約をして、3 日後にすぐに引っ越しました。ここに住み始めて 5 年くらい経ちましたね」と言う YJ さんを見て、これまでの日本生活のなか、住まいの問題に関して色々苦勞したことが感じ取

れた。YJ さんのお母さんが部屋を借りるのに対して、反対する理由は別にあったそうだ。それは、YJ さんが来日して 8 ヶ月目の時、お姉さんも日本に留学に来て、一緒に暮らそうと思い、家を調べた時らしい。

「家を借りる時に詐欺にあいました。不動産屋には、お姉ちゃんと私には決定権がないので、母が来日するときに決めたいという意味を伝えたにもかかわらず、すぐに決めないといけなかつこく言われました。日本に来て、私は 7,8 ヶ月しか経っておらず、お姉ちゃんも来て間もないので言葉が通じなかったです。それでもお金を早く払いなさいという意味ぐらいは分かっていました。何回も早く契約しなければならい、なぜかという、人気のある物件だから直ぐに他の人が契約してしまうので早く 1 か月分の家賃や紹介料を払って欲しいと、連絡が何回も来ました。よく分からないので 3 日後に母が来日するし、あと母は日本語も上手なので、その時、この話をしてくださいと言って帰りました。ところが、寮にまで何度も電話がきてすぐにお金を払いなさいというんです。」「その時は、日本の事情もよくわかっていなかったし、その不動産屋の人たちが、私が住んでいた寮にまで来たと聞きました。学校から自宅の住所まで、不動産屋が知っているの、ますます怖くなりました。お金を払わないと何かさそれうな気がしたので、引っ越しするに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だと思い、8 万円程度を渡しました。しかし、保証人をお願いした日本の方が、何かおかしいと、日本ではこんなふうには部屋を借りないで教えてもらい、代わりに解決してくれました」という。

幸いな事は YJ さんが、日本の年齢で 18 歳なので契約が無効になり、お金は返って来た。しかし、このようなことがきっかけで、母を安心させるために、何年かはずっと引っ越しを我慢していたのである。

「もちろん、日本にある全ての不動産がそうだと思いますが、母に心配をかけるので、学校を通して借りるのが一番良いかと思いました。結果的には、今の部屋を探せたので良いですが、もし、その時に引っ越しをしていたら、今の大家さんには出会えなかったと思います」と、住まいに関するエピソードを聞いた。

◇ 友達との交流 ◇

学部時代は、日本人との価値観の違いがあり、親しい友人はいなかったという。

大学院生になってからは、規模が比較的小さく、クラスで良く会う日本、中国、台湾の友達がいるそうだ。日本人の友達と韓国人や中国人の友達との違いを語ってくれた「最も簡単に言えば、新入生歓迎会のように一度の集まりをして酒を飲んだり食事しながら楽しく会話すると、その場では、本当に仲良くなったようで、これから親しくなれると思いきや、その後、再び会おうとすると日本の友達は、次、会うために連絡も沢山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スケジュールを合わせることも大変で、結局は、会えなかったことがけっこうありました。一方、韓国や中国からの友達はそのように会う話が出ると、その場で直ぐ約束をして、即興的に会って食事をしたり、お茶を飲んだりする時が多いです。日本人はあまりそうならないので大変だと思いました。会いたいと思ったときに会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いのでしょうか」。

しかし、彼女は最初、日本の生活に慣れ難く、人との関係にも積極的ではなかった事を後悔している。

「衣食住のうち、特に『住』が本当に重要ですね。あと状況ということもです。前に住んでいた寮が安定的でもなく、楽でもなかったのも、他のところにまで影響を与えたようです。今考えても何もないですが、その時は私の状況は、経済的にも心理的にもあまりにも混乱して大変だったんですよ。経済的に豊かで満足いく生活と言うのではなく、ただ些細なことからストレスを受けたくありませんでした。学校に通ってただ勉強だけすれば良いのですが、それもその時は大変だったようです。私自身が大変だから、あえて学校の友達と親しく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ではなく、すべて面倒だと思っていたようです。一言で言えば心の余裕がなかったんです。引越してからは、一人で暮らしているから、寮のように他の人の視線が気にならず、他の面でも心の余裕が出来たので、私からもう少し積極的に友達や相手に先に話をかけてみようかという気持ちになり、否定的に見えたものが肯定的に見えてきたのです。もちろん、他の要素もありますが、今住んでいる家に引っ越してから私の生活も心もとても楽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感じます。結局、気持ちがどうなのかによって、良いことが悪く見えたり、悪いことも良く見えたりするのでしょうか」。

YJさんはいつもの友人たちに会えば新宿や新大久保に良く行くという。「家が代々木で、学校も新宿区にあるため、ほとんど新宿か新大久保で友達に会います。性格が少し男の子みたいなので周りには男友達が多く、韓国料理をたくさん食べに行きます。女友達に会えばパスタのようなものを食べに行ったりしますが、男友達は、そういうのは嫌いみたいです。日本での生活が長くなって、知り合いのお店も多く、カムジャタン、海鮮ポッサム、鶏の丸焼きなど食べに、よくあちこち行きます(笑)」。

10年前の新大久保は今の新大久保の雰囲気とはまったく違ったと言う。「韓流ブームが出来てからは雰囲気もよくなって、発展もしたようです。周辺の日本人の友人たちが韓国料理を食べたいと言って、一緒に行ったりしますが、日本人は新大久保に対して、一般的に良いイメージをもってはいないようです。認識が大きく変わりましたが、まだイメージの改善のためにもっと、努力が必要だ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同じ韓国人同士がより助け合い、相互に補完できるように、例えば、サムキョプサルが人気あるとあって新大久保のお店のほとんどが、サムキョプサルを売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か？お互いに同じメニューを置いて競争するのではなく新大久保をディズニーランドのような一つのテーマパークにするのが、個人的な期待といえるのでしょうか。より多様な韓国を味わえるようになれば、単なるブームで留まらなく、日本のコリアタウンとしての地位をより良いイメージに作り上げ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経営学専攻だからこんなところまで思いますが、聞こえる話では新大久保で商売する方々の認識も変わっていくと、期待してみる価値はあると思います(笑)」。

◇ 将来に関して ◇

現在は、組織論、経営学分野の中でも特に、組織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概念について研究を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この概念は日本ではほとんど研究がされていない未開拓の分野でもある。そこでYJさんは、組織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概念を学問的に定着させたいという。その一つの方法として、研究者や教育者の道を考えている。両親のためにいつかは韓国に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気持ちもあるが、就職後に両親を日本に迎えて一緒に暮らしていきたいという。

◇ 日本社会にお願いしたい事 ◇

「特別に日本社会に望むというよりも専門の方の話をしたいです。世界的に電子製品の市場を見たとき、今現在の状況は、韓国企業が、これまで優位を守っていた日本企業を超えた状況です。私が出会った日本の学者たちや日本の人々は、日本企業が再び韓国企業に勝つ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のみ関心があるようです。そして、常に市場シェアなどの数字では韓国企業が勝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技術的な面や、他の面では、まだ日本企業が優れているといわれています。もちろん日本としてはそのように考えるのが当然です。それが事実であることもあって。しかし、そのように越えよう、勝た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く、共生関係、近所の人のように、アジア連合(AU)という観点から世界を眺めると、別の答えが出てこないでしょうか。日本だけでなく韓国人も韓国と日本だけでなく、より広い視野で世界を眺め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単なる机上の空論だといわれれば、それまでですが」。

このアジア連合という視点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は、大家さんの影響が大きいという YJ さん。大家さんからは日本人に対するイメージの変化や、ポジティブマインド、物事の捉え方など、多くの影響を受けたという。

彼女にとって大家さんとの出会いは、かけがえない貴重な出会いだった。そしてこの出会いから、「衣食住」でも、特に「住」の大切さを実感したのだろう。

<インタビュー 36>

E さん(30代・女性)「お世話になった日本、でも遠慮しながら生活する」

2011年3月3日、ソウル出身

主婦、日本暦15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日本語を勉強するために来日 ◇

E さんは夫と娘二人の4人家族と一緒に都下に住んでいる主婦だ。夫は韓国関係の団体に勤めて8年になる。1996年日本語を勉強するため日本に来た。韓国で高校卒業後5年間会社勤めをしてからの来日である。はじめは英語圏も考えたが、「近かったのが日本にきた」。親戚の叔母さんが日本行

きを進めた。また親から離れたいというのもあった。日本に来る前に3ヶ月ほど日本語を勉強した。

◇ 結婚、出産、子育て ◇

日本語学校の学費はお母さんが出してくれた。日本語がある程度できた6ヶ月まではアルバイトもできなかった。焼肉屋、コンビニなどでアルバイトをした。日本語学校を経て美容関係の専門学校を卒業し、美容室で1年ほど仕事をした。だが、美容ではビザが出ないので、日本語学校で知り合った当時大学生だった彼と結婚した。結婚してからは出産などで休んだりもしたが、パートで仕事を続けている。

出産と保育には日本社会からいろいろ助けてもらった。夫が学生だったので、病院も無料で、産後はミルク代ももらい、大変お世話になった。夫は就職して8年目になる。去年長女が小学校に入るまで保育園に預け仕事をした。今後生活設計によってはまた仕事をするかもしれないが、現在は仕事を休んでいる。周りに韓国人はほとんどなく、結婚してからは保育園と小学校のお母さん方とのつきあいが多かった。

子どもは韓国語がほとんどできない。3歳の頃ひらがなを教えながら韓国語も教えようと試みたが、子どもの負担が大きいのでやめた。韓国学校に通わせることも考えたが、経済的に負担が大きいのでできない。家庭内で韓国的な事はあまりない。お正月にトック(韓国式お雑煮)を食べる程度だ。

◇ 今後も日本で ◇

去年、家族で永住権をもらった。夫が会社にクビになってもここで他の仕事ができるし、気分的に永住権があるなしでは大違い。しかし「日本が私の国だという気はしない」。子どもは違うと思う。むしろ子どもが成長したら大学に行かすなど韓国とつないであげたい。韓国の歴史も学ばせたい。長女は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るようだ。浅田真央と金ヨナが試合をやって金ヨナが勝つと喜ぶとか、サッカーでも韓国を応援するとか。娘にとくに韓国人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訳ではないが、親の姿をみて感じるかもしれない。だが、あまり目立つと友達とけんかになるかもしれないので「威張らない方がいいよ」と注意する。子どもは名前から他の子ともしっかりと大きく違いを感じるようだ。ある日「私も名前が四文字だった

らいいな」と言ったことがある。

韓国人とのつきあいは長女が年中の時に同じピアノ塾のお母さんから同じ幼稚園の韓国人お母さんを紹介してもらって始まった。それからは近所の韓国人友達を互いに紹介しあって韓国人のお母さん方とのつきあいが広がった。そのほかには美容学校の友達数人、それが全部。日本人とのつきあいは韓国人と違ってこちらから遠慮する部分が多い。韓国人だったら笑って流すことも日本人とは難しい。

現在は自分の人生を生きるというより子どものために生きているといえる。少ししつこいかもかもしれないが、「子育てにオールインしている」。「韓国人だから他の子に比べて勉強もなにもかも優秀であってほしい」。子どもにこんな事をいうときもある。「あなたがだめだと韓国人がバカにされ、頭が良くて良い子になれば韓国人は頭が良くて良い子だと、みんながみている」と。周りからは小学校2年生にやり過ぎだと言われるけど、自分の国ではない外国で生活しているなら何でもできないよりできるにこしたことはないはずだ。

日本社会に自分から何かをやってあげたよりももらったものが多いと思う。日本社会に対する不満もない。だが、子どもが小学校に入ったときは緊張した。ある日突然イジメを受けたらどうしようかみたいな。自分の失敗が子どもにまで及んだらいけないので人間関係にとても気をつけている。それを恐れてあまり深い人間関係もしないし遠慮もする。

新大久保は子どもが遊べる場所がないのであまり行かない。年に数回行く程度。郊外に住んでいると新大久保は賑やか過ぎで頭がいたくなる。でも韓国を象徴するまちなので、イメージがもっと良くなってほしい。どんな形でも日本で韓国に関するイメージがよくなって、良いイメージの韓国を知らせるのであればと願っている。アメリカでチャイナタウンといえばみんなが知っていると同じように、日本でいえば、新大久保が 코리아タウンとして良いイメージを伝えるまちとして発展してほしい。

<インタビュー 37>

Fさん(30代・女性)「便利な日本生活、でも…」

2011年3月4日、江原道出身

主婦、日本暦5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夫の仕事関係で来日 ◇

FさんはIT関連会社で働く夫と小学校2年の息子と都下に住んでいる。夫が韓国で勤めていたIT関連会社が日本の会社と合弁会社を作ったことを契機に5年前に来日した。夫は90年代半ばに日本で5年ほど留学した経験がある。夫はその時結構苦勞したようで、日本でまた生活することにあまり前向きではなかったが仕事なので仕方がなかったようだ。

江原道生まれのFさんは5人兄弟の末っ子で、両親と他の兄弟はみんな韓国に住んでいる。韓国では2000年に専門大学(日本の短大にあたる)を卒業し2006年来日するまで仕事をしていた。夫の家族は日本と結構関わりがあるようだ。姑は済州島出身で日本に親戚が多い。夫の両親は日本生活の経験があるし、夫も先に留学していた兄に誘われて日本に来た。

日本に行くとき家族に伝えると両親が結構心配した。両親は「韓国が一番と思っている井戸の中の蛙」みたいな人なので当然かもしれない。他の家族、とくに義理のお姉さんたちは、法事などもなくて「いいね!」とうらやましがられた。新しく作った夫の会社が「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ので」、はじめは5年も住むとは思わなかったし、もしダメだったらすぐ韓国に戻るつもりだった。なので、日本語も全然勉強しなかった。

◇ 幼稚園探し苦勞 ◇

日本に来てまず息子の幼稚園探しが大変だった。来日時期が9月だったのもあって、聞くところ全部入園を断られた。結局となりまちではあるが電車を乗らないといけないインターナショナル幼稚園に入ることになった。そこはすべて英語で通しているところだったので、息子が「適応できず苦勞した」。それまでは韓国語だったのが、幼稚園では英語、外は日本語、という3つの言語が混在するのでとてもつらかったと思う。

翌年3月幼稚園を移ろうと聞いてみたら、みんな入園手続きが終わっていた。韓国だったら入園の前日にも入れるのに、日本は前年の12月に全部手続きが終わることを知って、韓国と違う日本を初めて経験した。中には電話ではできないと言って、訪ねて直接お願いするとできると言って、

後になってまたできないという具合に二転三転し、結局入れなかった。幼稚園探しが続くなか、5月初めにとなりまちで電柱に張られている〇〇幼稚園の文字を見て、インターネットで電話番号を検索して電話したら、1人が引っ越して空きがあると聞いて、その日に訪ねて入園が決まった。その幼稚園は当時住んでいたマンションからいつも息子と一緒に見ていたキリン模様が描いてあるバスで園児を送迎していた幼稚園だったので、息子も喜んで楽しく通った。

◇ よく分からない日本 ◇

住んでいたマンションの下の皆の奥さんがとても神経質で、おもちゃを落とす音も料理する際の包丁の音も聞こえるといつも文句を言いつけていた。一度マンションの管理者も呼んで話し合いをしたが、マスクをかけてきて、出したお茶も飲まないで最後までマスクをはずさないのを見て「怖かった」。日本には「変な人が多い」と聞いたが、もうマンションには住めないと、一軒家に引っ越した。

幼稚園でも小学校でも息子の誕生日が3月であることでいろいろあった。3月に新学年が始まる韓国と違って日本は4月に始まるので、息子は日本式にすると一学年早くなる。韓国に帰ることを考慮して日本基準でいえば1学年遅らせて入学させた。幼稚園に入園するときも年中か年長かであるいろいろあったが、小学校入学時も同じだった。市役所から就学通知書が来て事情を説明したら理解してもらい、翌年再度就学通知書もらった。ところが小学校に入ってから、何かあるたびにお母さん方は「一学年上ね！」というし、友達は「ちびっ子、ちびっ子」と言われたりもした。そのたびに説明するのも疲れるし、誕生日が数日違うだけでそんなに気にするのか理解できない。

まわりの日本人の子供をみると、早くから塾などを通っている子もいるのに、みんな秘密にしている。近所の子はお母さんに塾に行っていることを他の子に言わないで、とお母さんに言われたみたい。後日そのお母さんに会う機会があって聞いてみたが、「何もやってない」と言われ、これ以上聞いてはいけないと思った。韓国ならいろいろ情報交換したりするのに、なぜみんな秘密にするのか分からない。

◇ 子供の韓国語でいろいろ ◇

日本に来る前に韓国語は絵本を読める程度までできたが、来日当初は家でとくに意識して教えなかったこともあって、韓国語をすっかり忘れていた。来日間もない頃、外で韓国語で話しかけると「ママ、ここは日本だから韓国語喋らないで、恥ずかしいよ！」とあって、「こんなこと思うんだ」と驚いたことがある。家では韓国語を使うが外では使わないのは今も変わらず、発音などの間違いを気にしているようだ。ところが、去年の夏休みに韓国に行った時、それなりに韓国語を使っているのを見て、「教えなきゃ」と思い、日本に帰ってから以前読んでいた絵本などをとり出して勉強している。もう一つのきっかけはある日テレビ番組で、アフリカに住んでいる日本人家族が外では現地語を自由に駆使しながら家では日本語を完璧に使いこなすのを観た。子供が韓国語ができないのは親の責任だと思い、「やらなきゃ」と考え直した。でも韓国語を強要すると子供に負担になるので一日10分程度しかできない。その代わりにできるだけ韓国語で話しかけている。返事が日本語になったり日本語の単語が混じったりしても別に韓国語を強制はしない。「韓国に帰ることになって韓国語が全然できないとそれもそうだし、この子は日本に住んでいても韓国人なので自分の国の言葉は認識させたいと思っている」。

小学校に行く時に、はじめは韓国学校に入れようとした。だが、予定になかった引っ越しをすることになった。それでも再度引っ越しをしてでも韓国学校に行こうと思ったが、引っ越したところから近く小学校があって、図書館もあって、また引っ越しに半端ないお金もかかるので、日本の学校にいくようになった。もしイジメがあったら韓国学校に移ろうと思っている。日本も見えないところで教育熱が高いので、このままでいいのか、受験をしたほうが良いのかまだ分からない。

◇ 友だちは韓国人数人 ◇

来日当初は近所に知り合いの韓国人もいなかったが、幼稚園の園長先生から韓国人のお母さんを紹介してもらった。だが、その人は日本生活が長く日本人のお母さんと一緒にいるときは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目立たないように気を遣うようだった。結局その人とは形式的な挨拶だけをお互い程度で終わった。別の機会に幼稚園の他のお母さんから韓国人お母さんを紹介してもらってから韓国人の付き合いが広がった。それでも数人程度

である。

日本に来てすぐ、市でやっている外国人に日本語を教えるプログラムに週2回通った。そこで韓国のことがとても好きな60、70代のボランティアの方と出会い、とても楽しく勉強ができた。その教室に2年間通い幼稚園や学校から送られるプリントを読むなど生活に不便がない程度になった。ボランティアのうち一人とは今も付き合いがある。

◇ 新大久保について ◇

日本人のお母さんたちとたまに行く。自分より韓国の芸能界や新大久保の店のことも詳しい。韓流ブームもあって新大久保に観光バスでくるといふ話を聞くと「誇らしい」気持ちだ。夫は韓国人を見る日本人の目が自分の留学生時代とは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日本のお母さんに聞いてみたら、「冬のソナタ」が観る前は韓国語と言えたまにニュースで流れる北朝鮮の放送だけだったらいい。それが「冬のソナタ」で聞く韓国語は全然違うものだったようで、それから韓国のこと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いう。新大久保は交通費もかかるし食事なども高いので、たまに車で買い出し行くことはあっても、なかなか行けない。新大久保の印象は人が多く汚くて子育てしながらの生活はできないと思った。

◇ 韓国に帰りたい ◇

日本生活に不便はない。だが、時間が立つにつれていろいろ分かってくると、「自分は日本体質じゃない、私はやはり韓国に帰らない」と思う。でも日本に住む時間が長くなるともっと日本にいるのではと思ったりもする。ある程度日本生活に慣れたといえども、やはり気になることはある。またまわりに親戚や友だちもなく何でも気楽に話せる会話が足りない。韓国ならお正月やお盆には戚が大勢集まってわいわいと料理を作って食べたりするのに、ここでは家族だけでさびしい。息子も個人主義になるようで心配だ。

<インタビュー 38>

キョウさん(20代・女性)「濃密すぎる29年」

2011年4月19日、ソウル出身
会社経営、日本在住5年
インタビュアー：渡辺幸倫

「演劇」「父親」「病院」「夜間大学」「歌舞伎」「日本語学校」「雑誌編集」「給料遅配」「起業」「オンラインビジネス」「韓流ショップ」「ウエディングドレス」「地震」。キーワードだけでもこれだけのものが上がってしまう。どれもキョウさんのこれまで29年間を語る上で欠かせない。今回はそんなキョウさんの濃密な29年間を紹介したい。

◇ 演劇との出会い ◇

キョウさんは、ソウルで3姉妹の末っ子として生まれた。

母親は勉強の良くできる末娘に期待して、いろいろな勉強をさせた。弁護士になってほしかったようだ。キョウさんもそれにこたえるように、どんどん成績を上げていった。高校も評判の良い学区外の学校に進学した。しかし、そこで出会ってしまったのが「演劇」だった。高校の先輩の演じる舞台に感動し、すぐに演劇の魅力の虜になった。ほどなく役ももらえるようになり、練習の甲斐あって高校生の演劇コンクールでいくつも受賞。大学も自然と舞台芸術に定評のある専門大学を希望することになる。

しかし、母親からは大反対を受けた。学費も払ってもらえないということで、初めてのアルバイトを経験した。可愛がってくれた姉たちの援助もありなんとか入学したが、母に「あなたのやりたいことのために、姉さんたちが苦勞しているんだよ」と言われてハッとする。それほどまでに迷惑をかけているという自覚はなかったからだ。

それから一週間部屋にこもって悩みぬいた。最後のひと押しとなったのは大好きな父が「今までは自慢の娘だったけど、ちょっと今は言えない部分があるね」という悲しい一言。あれだけ打ち込んでいた演劇に別れを告げ、大学を中退してしまう。

◇ 韓国での仕事と日本への道 ◇

まずは仕事をしよう。『自慢の娘』に戻るために、みんながあこがれるような会社で働こうと思った。大卒以上を求めているような仕事にもひるまず履歴書を送ったところ、ほどなく面接の連絡があった。

キョウさんは緊張した面接の状況を今でもよく覚えている。まずは服装からして面食らった。自分はそれなりのつもりだったが、カジュアルな格

好をしているのは自分だけ、他の人たちはみんなスーツだった。5人の集団面接も番号が一番だったため、質問もいつも最初。他の人の様子をうかがうこともできなかった。志望動機を聞かれた時も正直に「自慢の娘に戻るために、大企業に勤めようと思いました」と言い切った。それがよかったのだろうか。見事に採用される。財閥系の大病院での事務職だった。

初めは広報、その後婦人ガンの専門科の部署で、合計4年ほど働いた。とにかく忙しい職場だったが充実した日々だった。経験を積んで自分が向上していくのが感じられた。率直な物言いで衝突することもあったが、熱心な仕事ぶりで徐々に周りの信頼を得ていった。キョウさんのその後の仕事への取り組み方はここでの経験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ようだ。

忙しい仕事に慣れてきたころ、以前見た日本の演劇や歌舞伎のことを思い出した。「なぜだ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発音とかがすごく気になって、教えてもらいたく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仕事後の語学学校だけでは物足りなくなり、夜間大学に入りなおして卒業までしてしまう。しかし、それでも足りない。次は日本への留学を父に相談した。仕事もこなし、大学も卒業した今度は快諾してくれた。

3人娘の一家で、父は時々さみしそうに見えることがあった。だから、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いのだろうが、キョウさんは父と山登りや釣りなど「普通のお父さんたちが息子とすること」によく出かけた。その父が日本行き直前に倒れ、わずか二日のうちに亡くなってしまった。もちろん動揺した。しかし、予定よりも遅らせたものの、心を落ち着かせて日本へと渡った。

◇ 日本語学校から日本での就職 ◇

日本語学校とアルバイトの両立は大変ではあったが、日本語が上達していくのが楽しかった。そんなある日、学校で近くの大学の学生と合同で富士山に登る企画のお知らせがあった。日本に来たからには、「富士山に一回登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バイトもあるし諦めていたら、店長が『日本に来て仕事ばかりしてるから行ってきなさい』と言ってくれたんです」。そこで出会った日本のスタッフの一人が現在の婚約者だったとはにかむ。

日本語学校を卒業してからの進路には迷いもあ

った。『学校では、すぐ就職できないよ、学生を延長するか、帰るかどっちかだ』と言われていて。『じゃあやってみる』って言ったら、会社に就職できたんですよ。韓国の一流どころでの仕事の経験があるキョウさんにとって、仕事を見つけること自体はそれほど難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ようだ。しかし、「あんまり日本の会社に入っていない思い出がないんですよ」という。

2つの会社で働いたが、2週間の連続勤務や、給料の遅配も経験した。「最初に入ったところがたまたま駄目だと思っていたので」、二つ目の会社で「私以外皆遅刻」してきたときにはがっかりした。

「今の旦那（婚約者）さんに相談してんですけど、『もうちょっと我慢すれば』と言われてたり…。韓国系の会社だったので、自分の国の悪口を言ってるみたいになるのが嫌あまり詳しく話さなかったんです」。キョウさん個人の生き方と働いている会社だけでなく、日本の中の韓国社会、日本と韓国など、様々な要素が複雑に絡んだ悩みだった。

◇ 起業 ◇

「3つ目の所も考えたんですよ、最初はこの会社だけ酷いんだって思ってたから、2番目のところはもっと最悪だったから、他の会社に行っても一緒じゃないのって感じで」。日本にはもっといたいという気持ちもあったので、道は限られてきたという。「仕事頑張りたいのに頑張れる場所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んだったら、自分で仕事しようって感じになって」。自分で事業を始めることを決めた。

起業に当たっては、それまですべての経験を踏まえて、悩み、準備した。

「とりあえず生活を何とかしようとして、私ができる仕事は何か考えたんですよ。お金がないからネット販売をしようと考えて、会社に通いながら色々準備をしてたんですよ。いつもそうなんですけど、だから休めないんですよ、私。今思うに、失敗することが怖くて同時にやることが多いんじゃないかと。やっぱり1回自分が勝手なことやって皆に迷惑をかけてしまったので、今度からはそういうことをやらないようにしてると思うんですね。日本へきて、心を開いて話せる人もなかなかいなかったし、韓国人と友達になっても皆帰っちゃうから凄くさびしくて…。で、同じ時間に仕事するなら、自分のやりたいことしようと思って、そこから手数料のかからないネット販売を始めた

んです」。

韓国の家族などに借金もして始めた事業だが、早くも2か月ほどで軌道に乗った。注文から発送までのスピードときめ細かい翻訳サービスが良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振り返る。

しかし、若い、女性、外国人ということで軽く見られてしまう場面には当惑する。会社組織にしようかと相談に行った先でも、「あなた若いからもうちょっと経験を積みなさい」といわれて、売上げが月に100万から300万くらいになってから来るようにと諭されたことがある。見くびられたと感じたことだろう。もちろん、この目標はすぐに達成した。この方は驚きすぐに会社組織の設立を手伝ってくれた。

売上が増加し、在庫も抱えるようになったため、事務所兼倉庫も新宿に借りた。初めは、家賃の心配もしたが、社員も一人増え、二人増え、今では4人になった。

「今店舗の準備をしてるんですね。職安通りの方でCDショップを作る予定なんです。先週から動き始めたので、それも大変だったんですよ」という。「外国人の女の子だからやっぱり甘くみるんですよ。年よりも若く見られるので、代表者とは思われなくて。態度も良くなって、あまり認めようとしていない人もいます。ネット企業のノウハウを教えると言ってくる人もいますし、若いのにどうやってここまでできたの？と言ってくれる人もいますし...。今は今でつらいこともあるけど、やっぱり前と比べたら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やっているから。」

悩みの種類は変わってきたが、悩み自体は尽きないようだ。

◇ 地震の影響 ◇

CDショップの場所は3月の初めにはほぼ決まっていた。そして契約は3月の15日の予定だった。ただ、11日の震災の影響で、「大家さんが台湾の方だったので、こっちに来なくて。原発や地震が怖いからこっちに来ないですよ」ということで、しばらく中断してしまう。

キョウさんの会社の社員も怖がってしまい、「1週間会社をお休みにして、様子を見よう」ということにした。その間韓国に一時帰国していたものも多かった。

1週間後に全員がそろ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五月雨式にもどってきた。しかし、士気は低く「会

社が落ち着くまでは働くけど怖いから帰りたい」といわれた。店舗を出すという大事な時期だ。不安定な社員の気持ちに焦りを感じた。そこで、経営者の手腕といえるだろう。社員とよく話し合うことで、「地震は怖いけど、やることはやろう」というところまで、引き出した。

しかし、これがいつまで続くのかという心配は残る。ただ、「まだうちは皆帰ってきたから良い方」だそうなのだ。周りには20人の社員のうち2人しか返ってこなかったり、比較的大きなところでは50人も帰ってこないというところもあるという。もちろんそれでは会社は動かない。震災の影響は甚大のようだ。

◇ これから ◇

「みんな周りの社長とかは、今、店舗出さない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の？と言うんですけど、私はピンチは逆に機会だと思うんですね。失敗か成功かわからないけど、私はやってみると言ったんです」。仕事面ではここでひるまず前に進むことが既定の路線だ。今は生活の80%が仕事だというが、仕事以外の面でもキョウさんの人生は重大な転機も迎えている。

地震のせいでウェディングドレスの試着が伸びてしまったが、キョウさんは5月に挙式を控えている。個人的には希望のあふれる時期だ。もちろん仕事は大事だ。経営の勉強もしたい。しかし、「自分の個人的な時間、山登りを旦那としたり、仕事が終わればそういうこともしたいんですよ。時間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と、笑顔で話してくれた。

<インタビュー 39>

イサオさん (30代・男性)「映画ばかりの三十年」

2011年4月20日、テグ郊外出身
大学院生、日本在住3年
インタビュアー：渡辺幸倫

『冷温』という映画をご存じだろうか。日韓中の合同製作映画として2011年に公開されたばかりの映画だ。おそらく相当の映画通でも聞いたことがないかもしれない。確かに、大手の配給会社が付いていたわけでもなく、多くのスクリーンを占拠した話題作というわけでもない。荒削りな映

像に特殊な設定、未熟な点多々あるが、何かを作ろうとする情熱だけは感じられる。それもそのはず。実は、新宿にある映画大学院の学生による自主製作作品なのだ。

日韓中の合作映画とはいうが、実際に携わったほとんど日本の学生だった。だが、何人か留学生もいた。中国からの留学生が2人。そして韓国代表として監督を務めたのがイサオ（日本に来てから使うようになった韓国名を訓読みしたあだ名だ）さんだ。確かに日韓中の合同作品に違いはない。10年ほど前にあった新大久保駅での事故を下敷きにしたという製作秘話が関心を引いたのか、多少の脚色(?)とともに新聞にも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

今回のインタビューでは、イサオさんの日本生活の集大成ともいえるこの作品まで、どのようにたどり着いたのか聞いてみた。

◇ 映画との出会い ◇

イサオさんは子どもの頃のある日、父に手をひかれて40分もバスに乗った。

「田舎でほんとに何にもなかったから。お父さんも、たまには何かやってあげたいと思ったんでしょうね」。着いた先は映画館。そして、その時に見たのがあのスティーブン・スピルバーグ監督の名作SF『E.T.』とキムジョンギ監督の『ウレメ』（韓国版仮面ライダーのような作品）。1986年のことだった。「もう、真っ暗なところに連れられて、何なんだろう。。とか思いましたけど。でも、そこはほんとに天国だったんですよ。おおげさじゃなくて。」イサオさんはすぐにスクリーンに映る天国のとりこになった。

高校まではどこにでもいるテグ郊外で過ごす映画や芝居が好きな少年だったが、大学進学の際には本格的に演劇学科を志望した。しかし、軍隊に行って体が固くなり、弱点であった方言が乗り越えられず映画の勉強をすることになった。両親は、芸術学科への進学、そして映画を勉強することに反対していた。「きっかけを作ったのはお父さんだったんですけどね」とイサオさんは笑う。

大学生活は楽しく充実していた。映画製作の手法を学んだり、映画製作のアルバイトをして現場を経験したりもした。日本との出会いはそんな時だった。

「それまでの日本のイメージは、マンガ、アニメ、やくざ。歴史のこともあるし、ほんとやくざ

とか侍のような乱暴な国というイメージでしたね」。そんな日本の印象が日本映画に詳しい友達の影響で見た映画で一変する。黒沢明や小津安二郎だった。「ほんとにイメージと違って、繊細な表現なんですよ。1950年ころですよ。日本も戦争のあとで何にもない時だし、韓国は戦争してるで大変だったし、そんな時にこんな映画が作られてたなんて…。ほん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東京物語』。『晩春』。『お茶付けの味』。日本人にこんな感性があ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この出会いがイサオさんを日本に向かわせた。

◇ 来日と映画大学院への進学 ◇

2007年に来日し、日本語学校に2年間通った。授業、アルバイト、映画、忙しい日々だった。

皿洗いのアルバイトをした時に、とても印象に残っていることがある。

「お皿を洗ってたら、先輩が『@O&X\$%\$#』って言うんですね。良く分からなかったんで、『は〜い』ってニコニコしてたんです。そしたらその先輩が突然『馬鹿ヤロー!!』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よ。後でよく聞いたら『割れちゃうよ、注意して』って言ってたみたいなんです。私の皿の洗い方が危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まあ、怒りますよね。普通」と笑って話してくれた。しかし、これをきっかけに「もう、ものすごく日本語勉強したくなりましたよね」というのだ。実際3か月ほどで日本語能力試験2級程度の実力はついたという。「どんどん聞こえるようになって、もう楽しかったですね」と振り返る。

2年ほど日本語を勉強したころには、日本語力も申し分なくなり、念願の映画関係の大学院進学を決めた。日本語学校時代は忙しく、映画も見るだけで、実際に日本の現場で撮影などを学ぶ機会はなかった。それが大学院に進学することで、高度な技術を学ぶ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たわけだ。

◇ 大学院での経験 ◇

しかし、入学後にすぐに大学院での勉強に違和感を覚えてしまう。同級生が黒沢明や小津安二郎をあまりにも知らないことに驚いただけではない。「実は大学院で学んでいたことが思ったのと違ってたんです」という。もともと映画撮影の現場の仕事に関心のあったイサオさんは韓国での大学生時代も現場での経験を重視していた。日本に映画の大学院があると知ったときには、さらに自分の技

術を伸ばせる、自分のためにあるような大学院とまで感じたことだろう。

しかし、この大学院は、撮影の技術というよりも「ビジネスとしての映画」全体を扱うところだった。「映画産業論とか、経済とか経営とか。プロデューサーになるためなんですね。僕は監督になりたいのに」。入学してすぐに気がついたが時すでに遅し。気持ちを入れ替えて勉強に励もうとはしたが、なかなか身が入らない。そんな時に学校の仲間と映画を撮影する企画が持ち上がった。それが冒頭に挙げた『冷温』だ。「もう映画撮影してる時はほとんど勉強しませんでしたね。正直言って」。とにかく撮影に没頭した。「脚本を書いたり、役所とか警察で撮影許可取ったり、機材を調達したり、いろいろ大変でしたよ」。その成果はぜひDVDで見してほしい。

◇ これから ◇

イサオさんはこの映画の完成を区切りに大学院を中退し、帰国することにした。やはり映画の現場で働きたいし、韓国の方がチャンスがあると感じたのだろう。大学院を途中でやめることに心残りも多少はあるが、それよりも帰国してからの可能性に魅力を感じている。「韓国で働いていた時の友達もまだいるし、いろいろ紹介してもらって、現場に戻りたいですね」。気持ちはすでに韓国の撮影現場にある。

ただ、大学院をやめること以上に気になることがある。

「私には『日本の母』がいるんです」とイサオさんはいう。日本には3年間住んでいたが、初めの1年半は韓国人寮、残りの1年半はホームステイをした。もともとは、韓国語を教えるアルバイト先の生徒さんだったそうだが、あるきっかけでお世話になることになった。帰国を決めた今、この「日本の母」のことだけは心配だ。「韓国に帰っても電話したりしますよ。あと、一年に一回くらいは1泊2日でも、2泊3日でも日本に来て、顔を見たいです」という。

日本留学と映画の製作を通して、イサオさんはいろいろなことを学んだ。

撮影現場の文化もその一つだ「結局人は皆同じ。国とかよりも、個性の方が違う。韓国でも現場で遠回しに言う監督もいれば、将軍みたいな監督もいる。日本でもほんとに同じでした」。

3年間の日本の経験を経て、人脈も日韓の現場

からプロデューサーレベルまで広がっている。広い視野と確かな力が付いている。

「政治とかいろいろあって難しいですけど、それを乗り越えられるのは芸術だと思うんですよ。人はみんな一緒。笑うし、泣くし、怒るし、お腹すくし。だからいい映画を作って韓国と日本の架け橋になりたいです。不思議ですが、同じ事件や似てる事故が歴史をみると繰り返してるんですよ。日韓の若い人達が不幸な歴史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明るい未来のために！芸術で一緒になっ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あと、最後に僕を応援して下さい。日本の方、在日の方に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伝えたいです。まるで映画のワンシーンか、何かの受賞スピーチのように、実に力強く語ってくれた。

『冷温』公式ページ

<http://reion.jp/>

<インタビュー 40>

CH씨 (30대 후반・여성) 「외국인 전업주부로서 큰 힘이 되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기에, 이번에는 내가 도움을 줄 차례」

2011년6월1일, 경기도 출신
전업주부, 일본체재 16년째
인터뷰: 이호현

◇ 일본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육아와 교육에 분투하는 엄마의 일상 ◇

유학오는 남편을 따라 일본에 온지 16년이 된 주부의 라이프히스토리, 부모님 도움없이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학업이 길어지고 세자녀의 출산과 교육등으로 일본에서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다고 쓴 웃음을 지으며 서두를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주부라는 이름으로 생활해보지 않았기에, 한국 주부들의 현재 생활상이 비교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가끔씩 드라마나 친구들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운동 다니고,맛난집 찾다니고, 무언가를 배우러 다닌다는 한국주부들의 삶이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 한인교회라는 작은 사회안에서 그 나름의 활동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 더욱이 외국이라는 걸 잊고 살때도 많다. 하지만, 자녀

들이 학교에서 다른 문화로 인해 부딪칠때면 이곳이 외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며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 세명의 자녀양육을 둘러싼 에피소드 ◇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제각각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끌어안아야 하는 고민들도 다양하다. 첫째는 딸아이라 그런지 일본유치원과 소학교를 잘 적응해줘서 별 어려움 없이 보냈다. 단 한가지, 자기는 왜 다른아이들과 이름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과, 한일간의 축구경기나 운동경기가 있을때마다 같은반 아이들로부터 듣게되는 “넌 한국애잖아”라는 한마디에 힘들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둘째 남자아이는 또 많이 달랐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점은 일본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순종적인 어린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에피소드를 하나 들자면,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후, 방과후 학동클럽에서 놀고올수 있도록 사인을 해줬는데, 아이는 그 시간까지는 자유롭게 놀다가 집에 귀가하면 된다는 허락으로 생각하고, 일본친구 집에 란도세투를 멘채로 놀러가서, 다음날 선생님께서 주의를 전화를 받았다. 만약에 한국이라면, 그 친구엄마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애가 집에 안들리고 가방을 멘채로 놀러왔는데 괜찮은지 확인했을텐데, 일본엄마는 연락장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놀러왔는데 학생들 지도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식의 연락을 적어보냈고, 그것을 읽은 선생님이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적인 차이를 실감할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성이 다른 외국인이라 어쩔수 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벽인지, 단지 문화적인 스타일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을 느껴야 하는 이질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가 다녔던 신주쿠의 보육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역특성상 한국어린이 많다보니 보육원이 한국화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좋은 추억과 친근감을 느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다. 한국엄마들이 보육원을 보내면서 교육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보육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 같이 일주일에 한번씩 체조선생님이 오셔서 지도하고, 일박이일 숙박시설에 가서 카레도 만들어 먹고, 입학전에 숫자도 백까지 학습시키고, 무엇보다 히라가나 카타가나를 전부 가르쳐 주

셔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외국인 엄마로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기록을 해줬다가 일년에 한번 생일때 정리해서 주시는데, 「이건 정말 감동 그 자체야」라고 하신다. 한국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그 기록들은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신다. 원장선생님이 아침마다 아이들이랑 함께 축구도 해 주시면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등, 다정다감한 선생님들의 모습에 물론 주변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다고 덧붙이며, 그곳은 작은 한국같은 느낌이라며 밝은 미소로 추억을 더듬으셨다.

◇ 신앙과 교육방침 ◇

일본에 오기전 작은 트러블로 인한 절박함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고는, 일본에서는 부부가 함께 교회를 찾아서 지금껏 좋은 신앙 생활을 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했다고 한다. 삶의 기준으로서 신앙이 자리잡혀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자녀를 일본 공교육으로 키우면서, 아이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질 즈음인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식교육을 해주고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시작하게 되어, 첫아이를 중간에 전학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신앙을 기준으로 세워준다는 점이 좋았는데, 막상 학교를 보내고 보니, 여지껏 보여주지 않았던 자녀의 밝은 자아상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어린이로서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학교로 전학한것에 너무나 만족하신다고 덧붙이신다. 소풍이나 찰리티같은 모든 행사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연습하게 해서, 리더쉽을 길러주고, 과중한 학습량에 불안하면서도 한번씩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수 있게 기회를 줌으로써 관리해 가는 점등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며, 아이가 소풍갔다와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또 가고 싶다고 환하게 짓는 웃음에 엄마의 마음은 행복백점이다.

물론, 큰아이의 성공적 교육사례는 나머지 두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방향잡이가 되리라 보인다.

◇ 일본대지진 재해 이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사랑 ◇

3·11, 누구나가 그러하듯 그날의 체험은 16년간 동경에서 생활하면서 한번도 느껴보지못한

두려움이었다. 가까이 교회라는 소속공동체가 있어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대처할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새삼 순교라는 말을 떠올리며,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 좀더 열심히 일본선교를 해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는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 일본선교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하는 삶이었다면, 급박한 상황이 되어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본에 대한 본인의 잠재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지진후에도 일본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 감사한다고 덧붙이신다.

3월 21일부터 시작된 교회의 불란티어 활동(청년들과 남선교분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복구 활동, 여선교분들의 따뜻한 식사봉사와 이야기 상대, 맞사지등) 에도 여러모로 기도하며 돕고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물자와 각 교회연합에서 보내오는 물적, 인적 지원을 신주쿠의 교회에서 매일 샌다이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효율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 피난처 생활에 지친 노인분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등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고 오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찬양사역자 분들이 오셔서 피난처를 돌면서 찬양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주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다.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들 한사람 한사람 한테 가서 직접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에 열심이라고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하신다.

일본에 살면서 지금껏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작으나마 본인도 돌려줄수 있는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세 아이의 엄마 얼굴에는 크리스찬의 사랑이 빛나 보인다.

◇ 신주쿠라는 동네의 매력과 미래에 대한 준비 ◇

일단 일본이 복지면에서 참 잘 되어있고, 특히 신주쿠라는 곳은 일단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어찌됐건 외국인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운 것 같다고 느낀다. 본인이 대충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비과세의 가정에 출산보조금이나, 영주권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없이 갚는것이나, 야짱 보조비와 다른구에서 신주쿠로 이사올때의 이사비용 보조 등이다. 본래 일본인을 위한 제도 였겠지만, 구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균등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인것 같다고 덧붙인다.

CH씨의 일본생활 적응술에 있어서 특이한 일면이 하나 있다. 보통의 외국인과는 달리, CH씨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쿠탁소에 들린다고 한다. 시간이 날때마다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여러 정보를 얻어 온다고 한다. 예를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유원지 프리패스 할인권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면, 평소때 입장료가 비싸서 쉽게 나가지 못했던 유원지에, 교회의 다른 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가서 신나게 놀고 온다며,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며 뿌듯해 하신다.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쿠탁소에 가게 되는데는 한 계기가 있었다. 처음 일본생활이 너무 힘들었을때, 교회에서 다른 주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자 처음 쿠탁소를 들렀을때, 본인의 어색한 일본어지만, 열심히 듣고, 상담에 적합한 다른 여러 부서의 분들을 소개해주시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던 공무원 분들의 따뜻함에, 외국이라는 낯선 생활에 소극적으로 얼어있던 주부의 마음은 눈녹듯이 활짝 열린다.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곳 신주쿠는 떠날수 없는 제 2의 고향이 되고 있다. 다만, 비싼 야짱과 국민보험 등은 계속되는 불경기 가운데 남편 혼자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가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면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이전과는 달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점점 연로해 가시고,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비도 점점 증가해 가고있다. 이제는 본인도 전업주부가 아닌 무언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정경제를 도와야 할 시점이라고 고민을 내어 놓으셨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곳이라며 작은 푸념을 내어 놓으신다.

<インタビュー 40>

CHさん(30代後半・女性)「外国人専業主婦だけど、日本社会で家族幸せに暮らせたので、今度は自分ができるボランティアを」

2011年6月1日、京畿道出身
専業主婦、日本滞在16年目
インタビュー担当：李 埈鉉

◇ 来日して三人の子どもを出産、育児と教育に奮闘するママの日常 ◇

留学する旦那の後について来日し、16年になる主婦のライフヒストリーです。親の援助なしで、自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のもと、旦那の学業が長引く中、三人の子どもを出産して育てる日本での生活は、やさ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と苦笑いで話を始める。

韓国では、主婦として生活した経験がないので、韓国の主婦たちの生活の状況は比較の対象にならないが、ドラマや友だちとのおしゃべりのなかででてくる、スポーツやグルメ、習いこと等で忙しくしている韓国の主婦たちの日常は、それほど現実的な話として感じ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

現在、日本で韓人教会という小さな社会に属して、それなりの活動をしながらか、忙しく動いているので、普段はここが外国であることを忘れて生きている時が多いという。しかし、子どもたちが学校生活のなかで異なる文化の狭間で衝突する時があると、「ここが外国である事実を再び切実に感じながら異質感を覚えることもある」と語った。

◇ 三人の子育てをめぐるエピソード ◇

三人の子どもを育てるとそれぞれ子どもの個性によって抱える悩みも多様である。最初の子は、女の子であるためか、日本の幼稚園と小学校によく慣れてくれて、それほど苦勞なく過ごせた。ただ、自分はなぜ他の友だちとは名前が違うのかについて聞かれたり、日韓のサッカー試合や運動競技がある度に、同じクラスの子たちから聞かれる「お前、韓国人だろう」という一言で悩んだりすることがあったという。

しかし、二番目の男の子は、ずいぶんと違った。自己主張が強いせいか、自分が思った通りに行動する点は、日本社会の規則をよく守る従順な子どもの姿とは程遠い。ひとつつ例をあげると、小学校に入って間もない頃、放課後に学童クラブで遊んでくるようにサインをしてあげたが、「うちの子は、その時間まで自由に遊んで帰宅すれば良いものだ」と勘違いして、日本の友だちの家にランドセルのまま遊びに行き、次の日、先生から注意の電話が

きた。もしも、韓国の場合なら、その友だちのお母さんから直接、「お子さんが家に寄らずにカバンのまま遊びに来ていますが、心配しないで」という電話がくるはず。しかし、日本のお母さんは、連絡帳に「だれだれがこうやって家にも寄らず遊びに来ました。学校の先生の指導として、少し問題があるようです」と書いて、それを読んだ先生が私に電話して、「子どもに注意させてほしい」という、遠回りの伝え方に関して、「本当に文化的な差を感じざるを得ない」と話した。「私たちがなまえが違う外国人であるため、どうする事もなく遠く感じてしまう壁のせいか、ただ文化的なスタイルの違いであるかは分からないが、葛藤を感じてしまう異質感であることには間違いはない」と付け加えた。

これとは反対に、子どもが通っていた新宿の保育園の話をしながらか、地域の特性上韓国人のお子さんが多く、「韓国にある保育園に通っているような感じになってしまった」と言うほど、良い思い出と親近感を感じたエピソードも聞かせてくれた。韓国人の母親は子どもを保育園に送りながらも教育的な面で悩む部分がある。しかし、その保育園では、保育だけではなく幼稚園教育のように、週に一回体育の先生が来て指導したり、一泊二日の宿泊施設に行ってカレーを作って食べたり、入学前に数字も一から百まで学習させたり、何よりひらがな、カタカナを全部教えてくれて、発音が正確ではない外国人のママにとってはとっても感謝する部分だったという。そして、何よりも成長の記録をしておいて、年に一回の誕生日の際に整理したものをくれるが、「これは本当に感動そのものだ」という。「韓国では有り得ないことだ」といい、今もその記録は大事な宝物であるという。園長先生が毎朝、子どもたちと一緒にサッカーをしながらか思い出を作ってくれることなど、心温かい先生たちの姿には周囲からの評判もとても良いと付け加えながらか、そこは「小さな韓国社会みたい」だと明るい笑顔で保育園での居心地良い満足した思い出を振り返った。

◇ 信仰と教育方針 ◇

日本に来る前に小さなトラブルがあつて、その切迫感から教会に通い始め、その際に祈りが叶う体験をし、日本に来てからは夫婦で一緒に教会を探し、今まで良い信仰生活ができてきているという。さらに日本で神様との人格的な付き合いができた

いう。しっかりと信仰が生き方の基準になっていることを感じさせてくれた。

子どもを日本の公教育機関に行かせながらも、子どもの価値観が確立されていく頃である中・高校は韓国式の教育をしてあげたい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た。その頃ちょうど教会で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を始めたので、途中、上の子を転校させた。

何より信仰を基準として身につけてくれる点が良いが、いざ学校に送ってみると、今まで見せてくれなかった我が子の明るい姿を目にして、韓国人の子どもらしい個性をよく活かしてくれる学校に転校したことについてとても満足しているという。遠足やチャリティなど全ての行事を子どもたちが自ら企画して、作って、練習するようにして、リーダーシップを育ててくれる。過重な学習量に不安を感じながらも、たまにはストレスを思い切り解消できる機会を与えることで管理していくこと等、直接経験したことを話してくれた。子どもが遠足から帰ってきて、「とても楽しかった。また行きたい」という我が子の満面の笑顔にママの心は幸せいっぱいである。

もちろん、上の子の教育成功事例は下の子二人の進路を決める上で、重要な方向付けになる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

◇ 東日本大震災後、改めて自覚する日本に対する潜在的な愛 ◇

3・11、誰もがそうだろうが、その日の体験は16年間東京で生活しながら一度も感じたことのない怖さだった。近くに教会という共同体があって、何より賢く対処できたという。今回の地震をきっかけに、改めて殉教という言葉の思い浮かべながら、自分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た時、「このままでは恥ずかしくて、恥ずかしくないクリスチヤンの生き方をするため、より頑張る日本を宣教しなければ」と心を決め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つまり、今までは教会のビジョンに従って日本で宣教のために自分なりに頑張る生き方だったが、切迫した状況になって切実に祈るなか、改めて日本に対する自分の潜在的な愛を確認する事ができたという。地震の後にも日本に残って自分にできる、自分がやるべきことがあることに感謝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

3月21日から始まった教会のボランティア活動（青年たちと男子宣教部の方たちは体を張った

仕事、復旧活動、女子宣教の方たちによる温かい給食提供と話し相手、マッサージなど）を祈りながら手伝っているという。韓国から贈られる多くの物資と各教会連合からの物的、人的な支援を新宿の教会で毎日仙台まで運行するシャトルバスを使って効率的に配っている。避難所での生活で疲れている高齢者たちの肩をもんであげながら、話し相手になってあげる等、どのように手助けして心を分かち合ってくるかについて話してくれた。また、韓国から賛美で人の心を癒す活動をしている方たちが来て、避難所を回りながら賛美と共に傷ついた心を癒しているという話も紹介してくれた。

クリスチヤンとして福音を伝えることが優先されていた以前とは異なり、心に傷を負った彼ら一人一人に出向いて、何が必要であるか直接聞いて、まずその必要を満たしてあげることに頑張っているという奉仕活動の内容について話してくれた。

日本で生活しながら、今まではもらうばかりであったが、今度は小さいながらも「自分が返してあげることがあることに何より感謝している」という三人の子どもを持つお母さんの顔にはクリスチヤンの愛が溢れていた。

◇ 新宿という街の魅力と未来についての準備◇

ひとまず、日本は福祉の面がちゃんと整えられており、特に新宿というところは、外国人が多いせいか、ともかく外国人に対して結構寛容であるように思える。自分が知っていることだけでも、非課税の家庭に出産の補助金や、永住者に利子なしのお金を貸してくれること、家賃の補助と他の区から新宿区へと引越してくる際の引っ越し費用の補助等がある。

本来、日本人のための制度だったはずだろうが、区民として生活している外国人にも均等に恩恵を与えるということはたやすいことではないと思うという。

CHさんの日本生活において良く適応するコツとして、特異な一面がある。普通の外国人と違って、CHさんは特別な用がなくても頻繁に区役所に寄るといふ。時間がある度に直接出向いて、積極的に新しい情報を得てくるという。例えば、区役所で子どもたちのための遊園地のフリーパスの割引券に関する情報を得ると、普段、入場料が高くてなかなか行けなかった遊園地に、教会の友だ

ちと一緒に子どもたちを連れて遊びに行くという。経済的にとっても助かると誇らしく話す。

自分がそのように積極的に区役所に行くようになったのは、一つのきっかけがある。最初、日本での生活があまりにも苦しくて、教会の主婦たちから聞いた話を頼りに、何か助けてもらえる方法がないかと思い、区役所に出向いた。当時、自分の下手な日本語を一生懸命に聞いて、その相談にふさわしい他の部署の方たちを紹介してくれて、どうにか助けてくれようとした公務員の方々の心温かさに、外国という見慣れない生活で消極的になっていた主婦の心は雪が溶けるように開かれた。

子どもたちの教育の問題と信仰生活において、ここ新宿は離れられない第二の故郷になっている。ただ、高い家賃と国民保険など、続く不景気の中、主人一人の収入に頼って生活する家庭では、金銭的な面の不安を感じざるを得ないという。

以前とは異なり、韓国にいる両親もだんだん歳をとっていき、面倒をみなければいけないし、成長していく子どもたちの教育費もだんだん増えていく。これからは自分も専業主婦ではなく、何かアルバイトでもみつめて、家庭の経済を助けなければいけない時期にあると悩みを話してくれた。経済的な問題さえ解決できれば、これ以上ないくらい良いところであると愚痴をこぼしていた。

<인터뷰 41>

NY씨 (20대·여성)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학생 생활」

2011년 7월 2일, 대구 출신
대학교 4학년, 일본 체재 4년
인터뷰어: 오세연

◇ 약력 ◇

신주쿠구에 있는 대학교 4학년인 NY씨는 현재 법학부에 재학중이며,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자라다가 2008년 3월에 일본 도쿄에 와서 지금 4년째 일본에서 살고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과에 재학 중이었던 NY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자마자 일본의 대학으로 바로 입학했다고 한다.

일본의 대학으로 올려고 결정 하게 된 계기는, 국내로 대학교를 간 선배들이 스승의 날이나 중종 고등학교에 놀러 와서 국내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혀 국내

대학교에는 흥미를 못 느끼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대학교를 간 선배들이 놀러 와서 대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엄청 재밌어 보였고 유익하게 보였다고 한다.

“원래는 미국으로 더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일 때 미국에 혼자 보내는 것을 반대하셨고, 일본은 한국이랑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까워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NY씨는 말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별 다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에 오고 나니, 여러 차이점에서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가까워서 문화등이 별로 다른 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생각 외로 많은 게 당황스러웠고 일본어도 한국어랑 비슷해서 외우기 쉬었는데 쓰면 쓸수록 한국어랑 다른 점이 많아서 어려웠어요”

구체적으로 당황스러웠던 점이, “혼자서 밥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랑 선배에 대해서 한국 보다는 좀 더 친근한 점, 반말을 서스름없이 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한국 보다는 미국이랑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예를 들었다.

◇ 친구들과의 교류 ◇

학교 생활은 즐겁다고 한다. NY씨의 대학교는 외국인이 많고 유학 가는 프로그램이나,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 많아서 외국에 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안 좋게 보는 친구 보다는 유학생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다가온 친구들이 많아서 적응하기 편했다고 한다. 친구는 일본인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한다.

“학부가 법학부인데 저희 학년에는 800명 중에서 외국인이 3, 4명밖에 없어요. 밑에 학년을 보니 매년 느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학년에 10명 안이라고 들었죠. 외국인만 교류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한 NY씨는 도쿄 출신 친구들 보다 시골 출신 친구들이 더 친숙하다고 한다. “시골에서 올라 온 친구들이 더 많고, 도쿄 친구들은 친해지기 뭔가 어렵고.... 뭔가 거리를 두고 친구나 인간관계를 사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 혼자만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 온 일본 친구들한테도 물어 봤을 때 자기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해서 외국인으로서 저만의 문제

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NY씨는 일본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의 다른 점도 이야기 해줬다.

“한국인 친구들은 바로 그날 전화해서 뭐하나, 만나자 밥먹자고 말하기가 가능한데 일본인 친구들은 2주전, 3주전에 이날 비었나, 이날 약속 잡자 해서 만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서로 간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나서, 서로 만나게 아닌가...싶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 이상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일 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NY씨도 지금은 2,3주전에 약속을 잡는게 편해졌다고 한다.

일본인 친구들의 거의 80,90퍼센트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편견이라는게 없지만 나머지 10,20퍼센트 친구들, 특히 남자 아이들은 “ 왜 일본에 왔냐” 라든지 같이 그룹을 짜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한자는 읽을수 있냐”, “나한테 방해 안되게 준비 잘해라” 라고 말한 친구들도 몇명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 마다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고 한다.

요즘은 일본인 친구들하고 한국 관련된 문화,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가끔씩 일본인 친구들하고 신오오쿠보에 가서 식사도 한다고 한다. “요즘 한류 붐이 일어 나서 제 주변 친구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등을 직접 먹어 보고 싶다는 점이 든 것 같아요. 1학년때는 그렇게까지 한류가 많지 않고 아줌마들이 좋아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 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한다는 친구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가고 싶다, 음식 먹고 싶다, 이 연예인이 좋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일본인 친구들하고 함께 한국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한다.

◇ 장래에 대하여 ◇

지금은 일본 대학원의 원서를 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 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혹시 대학원에 진학을 못하게 되면,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취직 활동도 병행 하고 있다. “취직 활동 중 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못하지만 원서만 넣었어요. 일본 회사요.” 하지만 역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대학원에 진학 하는 거 라고 한다.

“제가 법학부에서 전공 하고 있는게 국제법인데요, 국제법 안에서도 인권법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주법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우주법이 아직까지 구축이 잘 안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주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에는 일본도 한국도 아닌 유럽에서 살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생활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우주법에 관련해서 공부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우주법을 구축하는데 참여 하고 싶어요. 참여 하는 곳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본토에서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법을 구축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NY씨는 원래 고2때까지 이과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장래 희망이 물리 학자였고 어릴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저희 가정의 다 문과 계통이에요. 저 혼자 이과였지만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어서 여자가기 때문에 이과 말고 문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과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법학 공부를 하면서 원래 제가 관심이 있던 우주와 관련해서 제 전공이랑 매치가 되는 우주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하면 벌써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가 직업이지만, 저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잘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라고 NY씨는 우주법을 공부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우주법을 전공하시는 연구자는 두 분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중에 한 분은 내 후년부터 대학원의 연구실을 가지시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 있는 대학원은 딱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 우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법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우주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우주법을 공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한다.

◇ 일본사회에 바라는 점 ◇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면이나, 이번 3.11대지진 이후 도쿄 전력이나 여러 단체에서의 움직임에서 좀 더 그런 면을 많이 느낀것 같아요.”

한국이랑 많이 다른점은, 무엇 하나를 결정할 때 일본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천천히 정말

둘 다리를 수십번 두드리고 한발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한다. 좀더 빠른 발걸음, 빠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일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4년동안의 유학 생활을 돌아 보며 느낀 점◇

3.11 대지진 이후 NY씨의 부모님은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NY씨가 일본의 대학원에 입학 하는 것과 취직 하는 것에 별로 찬성을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

“취직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 하지만 대학원은 죽기전에 한번은 일본에서 한 분 밖에 안 계시는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지도 한번 받아 보는데 제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모님에게 말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대학원에 가는 것에 반대는 없으세요.”

그리고 일본 유학 4년동안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그냥 한국의 국내 대학교를 갔더라면 잘 하지 못했을 부분, 예를 들어 혼자서 집을 구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서 저의 성장된 그런 면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같고 그래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1,2학년 방학 때는 써클 활동 때문에 거의 한국도 못가고 계속 일본에만 있었는데 일본 여러 지역에 간것도 아니고 도쿄에만 있었던게 아쉽고 일본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NY씨는 모의 재판 대회에 나가는 써클에 들어 갔었다 한다. 대회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건인지 대해서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를 나눠서 각자의 편에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각 학교마다 모여서 변론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을 가리는 대회라고 한다. NY씨는 써클을 통해서 이 대회에 두번 나간 적이 있다 한다.

“한번은 일본어로 한번은 영어로 했는데 둘다 저에게는 외국어라서 힘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냥 만족할 정도의 성적이었어요(웃음).”

4년간의 유학생 생활은 써클 활동과 전공 수업에 충실했으며 전공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공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게 된 NY씨는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한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역시 NY씨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길을 선택 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터뷰 하는 동안 계속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어 41>

NYさん(20代・女性)「夢に向かって進めるように、勇気を与えてくれた留学生活」

2011年7月2日、大邱(テグ)出身
大学4年生、日本滞在4年
インタビューア: 呉世蓮

◇ 略歴 ◇

新宿区にある大学4年生のNYさんは現在法学部に在学中で、大邱で生まれ、大邱に住んでいたが、2008年3月に来日した。外国語高校で日本語科に在学していたNYさんは高校を卒業するとすぐ、日本の大学への入学をしたという。

日本の大学に留学を決めたきっかけは、国内の大学に行った先輩たちが師匠の日(5月15日)やよく高校に遊びに来て、国内の大学の話を聞かせてくれたと言う。しかし、全く国内の大学には興味を感じる事なく、日本やアメリカの大学に行った先輩たちの大学生活の話を聞いて、ものすごく海外の大学に行きたいと思ったという。「もともとは、アメリカの大学に行きたかったが、両親が未成年の時にアメリカに一人で過ごすことに反対したし、日本は韓国と地理的にも文化的にも近いので、許してくれたのです。そのため、日本に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とNYさんは語った。

そして、日本と韓国は、あまり変わらないと思ったが、いざ日本に来て、いくつかの違いで戸惑いを感じたという。「近い国なので、文化などはあまり変わらないと思ったが、文化的な違いがあまりにも多くてびっくりしました。日本語も韓国語も最初は、似ていて覚えやすかったのですが、勉強をすればするほど、違いが多くて難しかったです」

具体的に驚いたことは、「一人で食事をするのが平気であり、先輩に対して韓国よりも親しみやすい点、そしてタメ口で話したり、先生に対する礼儀が韓国よりアメリカの方に近い感じがしました。」と例を挙げた。

◇ 友達との交流 ◇

学校生活は楽しいという。NYさんの大学は、外国人が多く、留学へのプログラムや、子どものころ、外国で暮らしてきた人が多いため、外国人

に対する偏見をもっている友達より、留学生に対してオープンマインドをもって、先に近づいてきた友人多かったので、学校生活に慣れるのに大きな問題はなかったという。友達は日本人の友達が多いと言う。

「学部が法学部ですが、私達の学年は800人の中で外国人が3、4名しかいません。下の学年をみると、毎年増えるようですが、それでも一学年に10人内だと聞きましたよ。外国人の留学生だけ交流を行うことはないですので、日本人の友達の方が多いいと思います」また、NYさんは東京出身の友達よりも田舎出身の友達の方が、より身近に感じるらしい。

「田舎出身の友達が多くて、東京の友達は、親しくなるのに、何か難しくて...向こうから距離を置いて友達や人間関係を作ろうと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それは私一人だけ感じていると考えていましたが、田舎から上がってきた日本の友達にも聞いてみた時、自分たちもそんな感じがすると言いましたので、外国人として、私だけの問題ではないんだなと思いました」また、NYさんは、日本人の友達と韓国人の友達の違うところを話してくれた。

「韓国人の友達は、その日、電話して何してるの・すぐ、会おう・ご飯食べようと話すことが出来ませんが、日本人の友達は2週間、3週間前に、この日空いてる・この日に会おうなど、予定を前もって決めないといけない点です。おそらく互いのスケジュールがあり、それを尊重してから、お互いに会うのではないかと...と思います。韓国人の友達は、それ以上の壁を崩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か、お互いがお互いの仕事ではなく、お互いの関係をより重視するようなマインド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しかし、NYさんも今では2,3週間前に約束を決めた方が楽になったという。

日本人の友達のほとんど80,90%は、外国人、留学生に対して、または韓国に対して偏見をもっていないが、残りの10,20%の友達、特に男の子たちは「なぜ日本にきたのか」とか、一緒にグループを組んで発表をしなければならぬのに、「漢字は読めるのか」、「私に邪魔にならないように準備をやれ」と言った友人も数人いたという。そのたびに笑顔で、笑いながら、頑張るしかない。これこそ、解決策だという。

最近では日本人の友達と韓国に関連する文化、ドラマの芸能人の話をたくさんするようになったと

いう。たまに日本人の友達と新大久保に行って食事をするという。「最近、韓流ブームが起きてから私の周囲の友人たちがドラマを見ながら、ドラマに出てくる食べ物などを直接食べてみたいということが多くなっています。1年生の時は、これまでの韓流のブームは少なく、おばさんたちが好きなので、韓国の芸能人とかを紹介すると、私の母が好きだけど、自分自身が好きだという友達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のです。今は、韓国に行きたい、食べ物が食べたい、この芸能人が良いと言う人が多くなりました。」今度、日本人の友達と一緒に韓国旅行に行く予定であるという。

◇ 将来について ◇

現在は、日本の大学院に願書を出して準備をしており、大学院に進学するのが最大の目標だという。しかし、もし大学院に進学できなくなれば、日本で就職をしたいという気持ちで、就職活動も並行している。「就職活動中だと自信もって話できないほど、大したことはやっていませんが、一応、エントリーシートは出しました。日本の会社です。」でも、やっぱり一番したいのは、大学院に進学することだという。

「私は法学部で、国際法について勉強をしています。国際法の中でも、人権法などいろいろありますが、私は宇宙法ということに興味関心があります。その宇宙法についていまだにうまく構築がなされていない状況ですので、将来、宇宙法の作り上げるプロセスに参加できる職に就きたいです。」そのためには、将来的には日本も韓国でもない、ヨーロッパに住む予定だという。「日本で生活をして、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宇宙法に関連して勉強をした後、これに基づき、宇宙法を築き上げ、確立することに参加したいです。参加するためには、スイスのジュネーブにある国連に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で、ヨーロッパに行って、本土でのより多くの研究や勉強をして、その法を構築しているところで仕事をしたいです。」

NYさんはもともと、高2まで理系だったという。そして、その当時の将来の夢が物理学者だったし、子供の頃から宇宙に関心が多かったという。「私達の家がみな文科系です。私一人だけ理系だったのです。両親がちょっと保守的で、私が女性であるので、理系ではなく文系にいつて欲しいと言われたのです。そのため、理系から文系に移ったのです。そうでしたが、法学の勉強をしながら、

昔から興味があった宇宙と関連して、私の専攻とマッチとなる宇宙法がある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弁護士や検事になると、すでに作られた法律をどう活用するかが仕事ですが、私はそれ以前に、人々が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法を作ることができる職業に就きたいと思いました。」と、NYさんは、宇宙法を勉強したいという強い意志をみせた。しかし、日本で宇宙法を専攻される研究者は、二人しかいないという。その中に、一人は再来年から大学院の研究室を持つので、現在、日本の大学院は、たった一ヶ所しかないという。宇宙法を勉強するには、宇宙と法だけでなく、政治的な面も勉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今の新しい宇宙法を作ることは難しいが、宇宙法を勉強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ので、一生懸命に頑張っているという。

◇ 日本社会に望む点 ◇

「例えば、政治的な面や、今回の3.11大震災後、東京電力や、多くの組織での動きでは、よりそのような面をたくさん感じたいと思います。」

韓国と多く違うところは、何かを決定する際に、日本ではあまりにも考え過ぎて、ゆっくりと、本当に石の橋を何十回もたたいて一步を渡るようにみえるそうだ。もっと、迅速な行動に移すことができる日本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

◇ 4年間の留学生生活を振り返って感じた点 ◇

3.11大震災以来、NYさんの両親は、大変心配をしているという。そのため、NYさんが、日本の大学院に入学すると就職することにあまり賛成をしていないらしい。

「就職に関しては、これからまた両親と話をしますが、大学院は、死ぬ前に一度は日本で一人しかおられないこの指導教授のもとで一度、指導を受けてみるのが私の夢ということを正確に両親に伝えましたので、正直に今は、大学院に行くことに反対はないです。」

そして、日本留学の4年の間、全体的に感じた点は、「ただの韓国の国内の大学に入ったら、よく出来ないところ、例えば、一人で部屋を探したり、ビザを取りに行くことなど、このような行動をしながら、私の成長できたような面が本当に良い経験だったと思います。」だが、まだ心残りが残っているという。「1,2年生の夏休みや春休みのときは、サークル活動のために、ほとんど韓国にも帰れず、

ずっと日本にいましたが、日本の各地域に行くこともなく、東京でのみ時間を過ごしたのが、残念でした。日本国内の旅行をもっとすればよかったです。」

NYさんは、模擬裁判大会に出るサークルに入っていたそうだ。大会で、事件の全体的な背景や、どんな事件かについて出てくると、それをもとに、原告と被告に分けてそれぞれの側で書面を作成して提出し、各学校ごとに集まって論争をして、点数をつけて1等2等を決める大会だという。NYさんはサークルを通してこの大会に二回ほど、出たことがあるそうだ。

「一回目は日本語で、二回目は英語で行いましたが、両方とも私には外国語なので大変でした。結果的にはただそれだけで満足するほどの成績でした(笑)。」

4年間の留学生生活は、サークル活動や専攻の勉強などに充実出来たという。専攻の授業を通して、自分自身がもっと勉強したい分野を見付けることができたNYさんは、2011年3月11日の大震災以後の日本の状況があまりにもよくなかったので、再び進路について悩んでいたという。ご両親の反対もあったが、やはりNY氏は、自分自身が本当に願っている道を選択するという熱い情熱を持っており、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る間にも彼女の気持ちは伝わってきた。

<インタビュー 42>

Cさん(40代、男性)「日本で迎えた人生の転機」

2011年7月23日、慶尚南道出身
会社員、日本暦17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留学生として来日 ◇

Cさんは1965年の46才、妻と息子の3人家族で新宿に住んでいる。両親は他界し、5人兄弟のうち自分を除いて4人は韓国に住んでいる。日本には1994年留学生としてはじめて来た。韓国ではソウルにある国立大学で国際政治を専攻し学部と修士を終え、博士課程1年目の時に日本政府の国費留学生として来日した。でもはじめから日本留学を目指し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韓国では社会主義について研究していて、ロシア留学を考えていた。ところが、1980年代末、90年代初に

旧ソ連で開放改革政策が進展するにつれ社会状況が大きく変わり、自分が持っていた問題意識が無意味になってしまった。ロシア語も勉強しモスクワに行く前提でやってきた留学準備をはなからやり直すことになった。

それでアメリカ留学を考えたが、当時アメリカは経済的に厳しく奨学金をもらうのが難しかった。そんななか留学先を模索中に、日本もあることに気付いた。東京に留学中の先輩が3、4人いることを知り、奨学金などの情報を得て、1年くらい準備してみて日本や韓国の政府奨学金をもらえなかったら諦めようと準備をしたが、日本の国費留学生試験に合格し日本に来るようになった。日本に来ることになり、日本語を早く習得して論文も書いて卒業できるか心配もしたが、やってみようと思った。

家族の中に留学や海外生活の経験がある人はいない。日本留学について、特段反対もなく「行ってらっしゃい」程度の反応だった。来日後は1991年結婚した妻と一才の息子とともに、学生として勉強中心の生活を送った。

◇ 学生から会社員に ◇

ところが、2000年、在学中の大学院の博士課程をやめて会社に就職し社会人生活を始めた。1983年大学入学後、徴兵で軍隊に行ってきた3年を除いて、一途に学生として研究者を目指してきたのを考えれば大きな決心であった。

妻をはじめ韓国にいる家族みんなが反対した。それまで投資した時間と情熱がもったいないというのが理由だった。だが、もし博士論文を書いて学位を取得しても、将来が保障されるわけでもなく、韓国に帰国した後も「博士失業者」として不安定な状況に陥る例をたくさん見ていて、自分がそうならない保証はないと思った。自信を持ってさらに数年を投資できるかという疑問が生じたのだ。また2000年に一人息子が小学校に入学したが、「お父さん何している?」「お父さんは学生です」といった状況になるのが嫌だった。今まで仕事をし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2-3年だけ会社員をやってみて自分に合わなかったら研究者に戻ると、妻に約束して就職した。年齢もすでに35才になり、日本に来て6年もたっていたので韓国での就職は無理だと思い、日本にいる知り合いの紹介で小さい会社に就職することができた。なにより一度日本に来た以上、「勉強であれ仕事であれ、

日本で自分が納得できる結果を出したかった」。

それから始まった会社員生活が11年になる。仕事をしてみて自分に合うと思えたし、だから今もやっているだろう。現在勤めている会社は4つ目で、通信関係の従業員200人程度の日本資本の会社である。会社には在日コリアン1人を含め韓国籍の社員が4人、中国朝鮮族が3-4人いる。会社の顧客に外国人が多く、英語、韓国語、中国語のいずれを話せる社員が必要で、ネイティブの外国人が複数在籍している。現在この会社でそれなりの地位についているし経済的にも安定しているので大きな不満はない。

息子は小学校4年生まで日本の公立学校に行き、韓国語を勉強させるために5、6年生の2年間新宿にある韓国学校に行かせた。妻も日本に来て日本語学校に通って勉強したので、家庭でもほとんど日本語を使っていた。家庭で韓国語を教えたりもしたが限界があり、息子に韓国語を習得させるためには環境を変えざるを得なかった。「韓国語をとてもし上手に駆使する必要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だとして彼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百パーセント日本人にはなれないし、ルーツはごまかせないので、十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る程度に韓国語を教えたかった。」息子が韓国学校に移る時に来日してから住んでいた川崎から新宿に引っ越したが、彼は韓国学校に行くことよりそれまで過ごしていた地元を離れることを嫌がった。今もその時の友達とたまに会うようだ。中高は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に通った。彼は日本語がネイティブで韓国についてもあまり知らない。正直韓国の大学の教育をあまり信用していないので韓国の大学に行ってほしいとも思わない。能力があればもっと良い大学に行ってほしい。本人はアメリカの大学に行きたがる。お金はかかるけど応援したい。韓国は社会人になっても行く機会はあるだろう。

妻は日本に来て日本語学校に行って日本語を学び、小さな事業をやったことがある。ビジネス的には問題なかったが、体力的にまた育児など家庭生活との両立が大変でやめた。現在は専業主婦である。

◇ これからも日本で ◇

日本生活には概ね満足しているし、これからも日本で住み続けたいと思う。物価が高いのが難点ではあるが、仕方ない。現在賃貸住宅に住んでいるため高い家賃を払っている。家を買うことは子

供の教育もあるのでまだ考えていない。韓国にいる家族はそろそろ帰ればという「無責任」なことを言ったりもしたが、今は言わない。

日本では韓国のような複雑な人間関係に神経を使わないので楽だ。韓国にいる友だちは結婚式・葬式などの冠婚葬祭に顔を出したり、あれこれ酒席も多く大変らしい。今は日本の生活に慣れて韓国には帰れない。友だちは韓国人より日本人が多い。留学生時代の友だちはほぼ全員帰国し、たまに会う友だちはほとんど仕事をしてから知り合った人だ。その韓国人と韓国料理が食べたい時に、平均すると各月一回程度大久保に行く。また韓国食材を求めて月2回程度、車で買い出しに行く。

大久保が韓国と関係があると認知したのは2000年頃と覚えている。当時はそれほど店が多くなかったが今はいろいろ変わってきたようだ。大久保については、東京の他のところと比較すると少し汚いけどソウルに比べるときれい。「一部は韓国のように一部は日本のような、そんな感じ」。大久保を横浜の中華街のように公式的にコリアタウンとして互いに認識してそれに合う文化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はと思ったりもするが、それにしてはアイデンティティがあいまいなところでもある。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で韓国人が自然に集まったように、名前は別にするとしても、日本で初めてコリアタウンを作るとしたら大久保だろう。10年前には比較的韓国の店が多い程度の街だったのが、今は日本語を一言もしゃべらなくても生活ができる街になった。産婦人科から葬儀屋まであるくらいなので、近所の韓国人駐在員の奥さんたちは、良いこととは言えないが、最近日本語を学ぼうとしない。

<인터뷰 42>

C씨 (40대·남성) 「일본에서 맞이한 인생의 전기」

2011년 7월23일, 경상남도 출신
회사원, 일본 체류 17년째
인터뷰: 선원석

◇ 유학생으로 온 일본 ◇

C씨는 1965년생의 46세, 부인과 아들 하나의 3인 가족으로 신주쿠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타계하시고 5형제 중 자신을 제외한 네 명은 한국에 살고 있다. 일본에는 1994년 유학생으

로 왔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해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 1학년 때 일본정부의 국비장학생으로 왔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 유학을 생각했던 건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에 구소련에서 개방개혁정책이 진전되면서 사회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무의미해져 버렸다.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모스크바를 가는 것을 전제로 해 왔던 유학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생각했었는데, 당시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유학갈 곳을 찾고 있던 중에 일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도쿄에 유학중인 선배가 3,4명 있다는 걸 알고, 장학금 등 정보를 얻어, 1년간 준비해서 일본이나 한국의 정부 장학금을 못 받으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일본 국비장학생 시험에 합격해 일본에 오게 됐다. 일본에 오게 되어 일본어를 빨리 습득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해 보기로 했다.

가족 중에 유학이나 해외생활에 경험을 해 본 사람은 없다. 일본 유학에 대해 특별히 반대도 없었고 “잘 다녀와라” 정도의 반응이었다. 일본에 온 뒤로는 1991년에 결혼한 아내와 한 살짜리 아들과 함께 학생으로서 공부 중심의 생활을 보냈다.

◇ 학생에서 회사원으로 ◇

그런데, 2000년에 재학중이던 대학원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 대학에 입학한 뒤, 징집해서 군대에 다녀온 3년을 제외하고 계속 학생으로서 연구자를 목표로 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큰 결심이었다.

아내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반대했다. 그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정열이 아깝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설사 박사논문을 쓰고 학위를 취득해도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귀국해서 ‘박사 실업자’로 불안한 상황에 빠지는 예를 많이 봐 와서, 자신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투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학생이세요”와 같은 상황이 싫었다. 그때까지 일을 해 본적이 없었기에 2-3년 회사를 해 보고 자신한테 잘 안 맞으면 연구자로 돌아오기로 아내한테 약속하고 취직했다. 나이가 벌써 35세였고, 일본에 온지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직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일본에 계시는 아는 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단 일본에 온 이상, “공부든 일이든 일본에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었다”

이렇게 시작한 회사원 생활이 11년이 됐다. 일을 해 보니 자신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4번째로, 통신관계의 중업원 200인 정도의 일본자본 회사다. 회사에는 재일교포 1명을 포함해 한국인 사원이 4명, 중국 조선족이 3-4명 있다. 회사의 고객 중에 외국인이 많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를 할 수 있는 사원이 필요해서 원어민 외국인이 여러명 재직하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큰 불만은 없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본의 공립학교를 다녔고, 한국어를 공부시키기 위해 5,6학년은 신주쿠에 있는 한국학교에 보냈다. 아내도 일본에 와서 일본어학교를 다니며 공부해서 가정에서는 거의 일본어를 썼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을 지 모르나, 그래도 그 아이의 정체성이 백 퍼센트 일본인이 될 수 없고, 뿌리는 속일 수 없으니,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한국어는 가르치고 싶었다”. 아들이 한국학교로 옮길 때 일본에 와서 죽 살았던 가와사키에서 신주쿠로 이사했다. 아들은 한국학교에 가는 것 보다 그 때까지 지냈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 했다.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는 것 같다. 중·고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다. 아들은 일본어가 네이티브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솔직히 한국의 대학 교육이 별로 신용이 안 가서 한국에 보내고 싶지 않다.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한다. 본인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 돈은 들지만 응원해 주고 싶다. 한국은 사회인이 되고 난 뒤에서 갈 기회가 있

을 것이다.

아내는 일본에 와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작은 사업을 한 적도 있다. 사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체력적으로나 애 키우기 같은 가정생활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 그만뒀다. 현재는 전업주부다.

◇ 앞으로도 일본에서 ◇

일본 생활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계속 살 것 같다. 물가가 비싼 게 흠이지만 어쩔 수 있겠다. 현재 집을 빌려 살고 있기 때문에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 집을 사는 것은 아이 교육도 있고 하니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무책임”한 얘기도 했지만, 요즘은 안 한다.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편하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관혼상제에 얼굴을 비춰야 하고, 이래저래 술자리도 많아 힘든 것 같다. 지금은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서 한국에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친구는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많다. 유학생 시절 친구들은 거의 다 귀국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한국 사람들과 한국 요리를 먹고 싶을 때, 평균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오쿠보에 간다. 또 한국 식료를 사러 한 달에 두 번 정도 차 타고 장보러 간다.

오오쿠보가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안 게 2000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이 정도로 가게가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오오쿠보에 대해서는 도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좀 더럽지만 서울보다는 깨끗하다. “일부는 한국 같고 일부는 일본 같은, 그런 느낌”. 오오쿠보를 요코하마의 주카가이 같이 공식적으로 코리아 타운으로 서로가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기에는 정체성이 애매한 곳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것처럼, 이름은 다를 지 모르나 일본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타운이 생긴다면 오오쿠보 아니겠나. 10년 전에는 비교적 한국 가게가 많다 정도의 동네였는데, 지금은 일본어를 하나도 안 하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동네가 됐다. 산부인과에서 장의사까지 있는 곳이니, 이걸 꼭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근처의 한국인 주재원 부인들이 최근에는 일본어를 안 배울려고 한다.

<インタビュー 43>

Cさん(20代・男性)「放射能は怖いけどチャンス逃したくなかった」

2011年7月24日、ソウル近郊出身
学生、日本在住4カ月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略歴と家族 ◇

Cさんはソウル近郊の出身で、高校教師の父と塾で国語(韓国語)を教えている母の3人家族。両親は大学時代の同級生で40代半ばになる。父はもともとはプサンの出身だが、今は親戚も含めて皆ソウル近郊に住んでいる。日本に初めて来たのは9歳の頃だ。友だちの結婚式に出席する母に連れられて来たのだが、その時のことはよく覚えていない。結婚式があったのは千葉だったと思う。神奈川には母の友だちで日本人と結婚して住んでいる人がいて、最近大学まで会いに来てくれた。

Cさんは、中学2年生から中学3年まで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の勉強をした。おかげで来日してまだ4カ月しかたっていないが、日本語会話で困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入学した学科は英語で学べるプログラムなので学位をとるのに日本語は必要ないが、この機会にもっと日本語を完璧にしたいので、日本語の授業も受けている。

両親は二人とも仕事が忙しく、Cさんは学校から帰ると一人で家で過ごすことが多かったので、「自然に自立心がついたように思う」という。両親も過保護というよりは、Cさんのやりたいことを尊重して、見守ってくれるタイプだ。親子間には基本的な信頼感があると思う。

◇ タイに高校留学 ◇

高校はひょんなことからタイにある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に進学することになった。タイを旅行した母親の友人が、タイに進出している企業に勤める人の子弟が多く学んでいる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の情報を持ってきたのだ。その学校は全寮制で、授業は英語で行なわれる。卒業後は、欧米の大学に進学する生徒が多いという。両親は英語が身に着けば将来有利になると考えたようだが、それ以上に一人っ子のCさんには

寮生活を通じて社交性や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力がつくことを期待したようだ。この留学に熱心だったのは母親だった。Cさんも国際的な視野を広げたいと思っていたので、最後は自分の意思で留学することを決めた。奨学金をもらえることになったのも、その決意を後押しすることになった。

高校は1クラス50人で、生徒のほとんどは駐在員の子弟だったが、国籍はさまざまだった。その中に日本人もいた。Cさんは3年間学生寮で暮らし、最後の半年間は友人の家にもよく泊めてもらった。このタイ留学は、Cさんにとって英語の力がついたことや異文化適応の自信がついたことなど多くの収穫があったが、今から考えると、残念なこともあった。せっかくタイに3年間も暮らしたのに、英語で授業を受け、寮で生活していたので、ほとんどタイ語ができないまま終わってしまったことだ。タイ語ができなかったので、普通のタイ人と付き合う機会はほとんどなかった。この経験があるので、日本ではもっと日本語の力をつけたいし、日本人の友人もたくさんつくりたいと思う。

実は、Cさんの第一志望は、イギリスの大学に留学することだったが叶わなかった。進路について悩んでいる時に、それならと日本留学を勧めてくれたのが日本人のクラスメイトだった。それから日本の大学についていろいろ調べて、英語で学位がとれるY大学を受験することに決めた。両親はいつものようにCさんの気持ちを尊重して、日本留学に賛成してくれた。今から思えば、日本語の勉強をしていたことや、タイで日本人の友人に出会ったことなどを考えると、日本に留学するのは自然な流れだったようにも思う。

◇ 日本留学 ◇

Y大学から合格通知が届き、来日準備をしている最中に東日本大震災が起きた。とても驚いたが、Cさんは地震についてはあまり心配していなかった。翌日起きた原子力発電所の爆発とその後の放射能の影響については、正直に言えば不安を覚えた。でも「僕には選択肢がなかったんです」という。選択肢がないというのは、Cさんは昨年(2010年)6月にタイ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を卒業した後、いったん韓国に戻り、塾や家庭教師で英語を教える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留学の準備を進めていた。それはCさんにとって「1年間

のブランク」だった。放射能はこわいけれど、この留学チャンスを逃したくない。これ以上空白の時間を長くしたくないという思いが強かった。考えればいろいろ不安なこともあるが、タイ留学をやりきったことがCさんの自信になっていた。「タイでもいろいろあったけど大丈夫だったから」。

今Cさんは大学の寮に住んでいる。寮生は日本人と韓国人と中国人がほとんどだ。不満は寮の部屋が狭いこと。5.5畳位のスペースにベッドが入っているの、くつろげるスペースはベッドの上しかない。食事は共同のキッチンで取ることが多い。高校も留学していたので、ホームシックになることはないが、自宅の自分の部屋でのんびりしたい気分になることはある。来日して4カ月過ぎたが、寮と大学の往復であつという間に過ぎてしまった。出かけたのは渋谷の近辺だけで、東京もまだほとんど知らない。これからいろいろなところに出かけたいと思う。

2週間後には韓国へ帰る予定だ。本当はもっと早く帰るつもりだったが、友だちが軍隊に入ったので急ぐ理由がなくなった。韓国の男性は大学に入ってから休学して兵役に行く人が多い。だから一緒に入学した同期の女性たちの方が先に卒業してしまう。

◇ 日本の印象 ◇

日本で暮らしはじめて、いくつか韓国との比較で気づいたことがある。まず、韓国では移動手段は車を使うことが多いが、日本では電車やバスを使うことが多い。一つの駅に電車と地下鉄が何本も入り組んでいて、同じ駅なのにJRと地下鉄の出口が違っていたり、乗り換えも難しい。乗り換えに別料金がかかるのは不便だ。韓国では一つの駅に乗り入れているのはせいぜい2本位だし、バスに持っても地下鉄に乗っても同じ方向に行くなら料金は同じだ。日本では交通費の負担が大きい。その一方で、電車が時間通りに運行されているのはすごいと思う。それからどこへ行っても人がちゃんと並んで待つところや、電車の中で携帯を使う人がいないこと、みんながルールを守ることにも驚いた。韓国ではそういうルールがあっても、守らない人の方が多い。

違和感を覚えたのは、日本では一人で食事をする人が多いことだ。韓国では食事はみんなで一緒にとるのが当たり前なので、食堂にもテーブル席しかない。ところが日本の食堂にはカウンター席

のあるところが結構ある。つまり、一人でご飯を食べる客を前提に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が、それは「韓国ではありえない」って思う。

日本の韓流ブームについては、タイにいる時に日本人の友だちから聞いていたし、タイでもK-popが結構人気があつたのである程度は分かっているつもりだったが、実際に日本に来てみると確かにすごいと思った。自分の知らないアイドルを日本人が知っていたりする。文化についていえば、韓国と日本の壁はほとんど感じない。

◇ 将来について ◇

まだ漠然としているが、卒業後は、国際的な企業で働きたいと思っている。日本の企業でも韓国の企業でもどこの企業でもかまわないが、できれば営業分野で働いてみたい。学生の間にもいろいろな経験を積みたいので、NGOのインターンシップにも応募したところだ。両親には週に1回位のペースで電話をかける。タイに留学していた時は2週間に1回位だったから、今の方が頻繁に話している。一人っ子だが、韓国へ帰らなければならぬとか、両親と一緒に暮らさなければ、とは考えない。両親にもそうしたこだわりはなく、Cさんの意思を尊重して「やりたいことをやりなさい」と言ってくれる。秋学期からはアルバイトを始めるつもりだ。韓国人の家庭の子供の家庭教師とか、塾の仕事を見つけないかと思う。

<インタビュー 44>

Pさん(19歳・女性)「友だち母子」

2011年7月24日、ソウル近郊出身
学生、日本在住4カ月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略歴と家族 ◇

Pさんは父と母、2つ年下の弟の4人家族で、ソウル近郊にある新都市の出身。Pさんが小学校に上がる年、韓国の大手メーカーに勤務する父がアメリカに赴任することになり、家族全員で渡米した。Pさんは3年間シカゴの公立小学校に通ったので、自然に英語が身についた。帰国後も母親に帰国子女向けの英語塾などに通わされた。母親の「英語が一番になれ」という言葉をプレッシャーに感じることもあつたが、「英語が武器になる」という母親の見通しは正しかった。高校は全寮制

の外国語高校に進学した。入学試験が英語だったのでそれほど難しくはなかった。その時点で留学は既定路線になっていた。

そんなPさんとは対照的に弟は留学にはまったく興味が無い。理由は、大学受験の厳しさから逃れるために「逃避留学」をして、失敗した知人を身近に見ているためだ。弟は国内進学を目指している。

Pさんは熱心なクリスチャンで、高校生の時には宣教のため沖縄に行ったこともある。1週間ほどの日程で、布教活動のチラシを配ったり、韓国の伝統的な踊りの公演をしたり、観光もした。強烈な太陽ときれいな海、そして月に虹がかかった光景を今も思い出す。

◇ 友だち母子 ◇

Pさんは母親と毎日30分近く電話で話す。反抗期には母とぶつかったが、今は何でも話せる関係で、親子というより友だちのような感覚だ。つい最近も生活が落ち着いたので「太りそうだ」というと、母から「恋愛したら？」という思いがけない言葉が返ってきた。「韓国人同士はみんな知り合いだから恋愛なんてできない」と答えると、「それじゃあ日本人とすれば？」と言われてしまった。ときどき、娘ながら母親の感覚にはついていけないことがある。

Pさんの両親が出会ったのは友人の結婚式だ。「父の一目ぼれ」だったという。結婚までにデートしたのは2回だけ。母親は1回目のデートで観た映画のタイトルから内容まで今でもよく覚えている。母親の両親は早くに亡くなっていて、結婚したのは28歳の時だった。韓国の適齢規範からすると少し遅かったし、両親がいないことも本来なら結婚の障害になる。ところが父はまったく気にしなかった。祖母（父親の母）も母を気に入ってくれた。Pさんから見ても母親は家事や片付けの手際が良くて素敵な女性だと思う。

Pさんの母親は7人きょうだいの末っ子。4歳の時に母が亡くなったので、きょうだいの家を転々とし、何度も転校したので、辛い思い出もある。例えば、小学校の下校時に雨が降っていると、他の子どもたちの母親は傘をもって迎えに来てくれる。でもPさんの母には傘を持ってきてくれる人がいなかったのだから、一人で濡れながら家に帰ったことなどだ。このため母には自分の子どもには寂しい思いをさせたくないとか、自分が母親にし

てほしかったことは何でも子供たちにしてあげたいという思いが強いようだ。

◇ 日本留学 ◇

Pさんの高校は国内クラスと国際クラスに分かれていて、Pさんは留学を目指す国際クラスを選んだので、他のクラスメイトと同じように最初は漠然とアメリカに留学するつもりだった。実際に進学先をどうするか考え始めると、費用のことやアメリカより日本への関心が強いことに気づいて迷った。そんな時、両親から「お前は日本に行きたいんだろう」と言いだしてくれた。Pさんが日本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は、中学生の時に出会った転校生が日本のアニメファンで、その影響でアニメの世界にはまったのがきっかけだった。その後Pさんの関心は、J-popからドラマへと広がり、日本の文化や伝統にも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高校では、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選択した。両親はそういうPさんをずっと見ていたので「日本に留学する予感があった」という。

Y大学に合格し、日本に出発する準備をしているさなかに東日本大震災が起きた。原発事故とそれに伴う放射能汚染のニュースが連日報道されるなかで、どうすべきか迷った。Y大学からは、通常は入学前の休学は認めていないが今年は例外的に休学を認めるという連絡もきたので、家族も親戚もPさんは留学を取りやめると思ったようだ。でも、Pさんは予定を変更しなかった。理由は、休学したら父親に他の大学を受験するように説得されてしまいそうに感じたからだった。それにもう一度、受験勉強をするのはいやだった。

◇ 日本について ◇

新大久保にある学生寮に着いて部屋の狭さに驚いた。6畳ほどのところに冷蔵庫と電子レンジ、机にベッドが入っているので、身動きするスペースがほとんどなかった。保証金が戻ってくるまでの3カ月間は我慢するしかない。3カ月過ぎて「引っ越ししたい」と言うと、寮の部屋を一緒に見た母親はすぐに賛成してくれた。引っ越し先は自分で不動産を一軒一軒回って探した。外国人には貸せないと言われていたり、引っ越しに伴う手続を一人で進めるのは大変だったが、自分の希望をほぼ満たす物件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て満足している。引っ越したアパートは大学に歩いて通える距離にあり、システムキッチンがついていて大好きな料

理やお菓子作りもできる。最初の寮に比べると快適で、部屋に帰るのが楽しくなった。

来日して驚かされたのは、何といても韓流ブームのすごさだった。日本の人たちに **K-pop** が人気があることは知っていたが、これほどとは思わなかった。最初に住んだ新大久保では、近くの 100 円ショップに行くにも人が多すぎてなかなかたどり着けなかった。P さんが韓国人だと分かると話しかけてくれる人がいたり、韓国語で話しかけられて、韓国語で答えると「通じた」と喜んでもらった。「こんなに韓国が好かれていると思うと気持ちが良い」。韓国の友人からは、「いい時に留学したね」と言われた。

その他にも日本に来ていくつか新しい発見があった。例えば、車の座席が韓国とは反対だったこと、日本のコンビニは韓国のコンビニに比べて飲み物の種類が多いことなど。P さんはストリートダンスのクラブに入っている。練習の時にメンバーが韓国ではみたこともないような大きなペットボトルを買ってきて、それをコンビニのビニールバックを外さずに飲むのにも驚かされた。韓国では見ない光景だ。それから店員がお釣りを渡す時に、大きいお札からお客さんに見えるように丁寧に渡してくれる接客マナーも印象的だった。ゴミの分別は良いことだと思う。でも、ときどき分別に自信がないことがあり、迷った時には「燃えないゴミ」に入れてしまう。

もう 1 つ付け加えると、アニメの世界だけだと思っていた学ランとセーラー服を着ている生徒が実際にいたこと。初めて制服の生徒を見かけたときは、P さんは母親と一緒に「あっほんとに着ている。リボンもつけてる」と声をあげた。学ランとセーラー服は母にとって「私たちの時代の制服」、つまり 60 年代のもので、それを現代の日本の中学生や高校生が実際に着ているので本当に驚いた。

◇ バイトでの挫折 ◇

P さんは「恥ずかしいんですが…」と 1 週間で辞めてしまったバイトの経験も話してくれた。原因ははじめだった。その韓国焼肉店のオーナーは韓国人で 27~28 歳だった。新大久保で 3 店舗も営業しているというからかなりの人気店だ。しかし P さんは、味とかブランドとかではなく、韓流ブームで新大久保に人がたくさん集まっているから、「空いている店にお客さんが流れて埋まっていく」のだという。オーナーの態度は、日本人のバ

イトと P さんに対するときとでは違った。バイト初日にまず 100 種類のメニューを覚えるように言われた。いっぺんには覚えられず、質問すると無視され、少しでももたつくと叱られた。

P さんはいじめの原因を次のように分析した。一つは、韓国人が日本で店をもつのは大変なので、人間がラフになり、そのストレスは、日本人より同じ韓国人に向けられてしまうこと。もう一つは、P さんが若すぎて恋愛対象にならないから良くしてやる必要がないと考えた可能性だ。新大久保は韓国系の店が多く、日本語ができなくて他では働けない韓国人にとっては仕事を見つけやすい利点がある。その一方で、韓国人であるがゆえに、より厳しい状況におかれる場合もあるというのが P さんの意見だ。

◇ 将来について ◇

P さんの将来の夢は、国連などの国際機関で働くことだ。韓国では模擬 UN の活動に参加していたので、大学でもそういったプログラムを立ち上げたいと思っている。「私の強みは語学力なので、できるだけ多くの言語を勉強したい」と言う。今学期は中国語クラスをとっているが、来学期からはフランス語も受講する。

P さんのアドレス帳は、韓国人と日本人に分かれているが、最近、日本人の方が多くなったことに気づいた。留学中にできるだけ多くの友人を得ることと、できるだけ日本国内も旅行したい。そうしたネットワークや多様な経験が自分の将来の宝になると思うからだ。

<インタビュー 45>

LH さん (30 代後半・女性)「ニューカマーとオールドカマーの狭間で」

2011 年 7 月 26 日、慶尚南道出身
大学非常勤講師、日本滞在 16 年目
インタビューアー：川村千鶴子

◇ 男の子が欲しかった家族の気持ちと名前 ◇

LH さんは韓国の慶尚南道晋州 (ジンジュ) で生まれた。丁度 1972 年、韓国のベビーブームの時だった。父は警察官、母は専業主婦で、4 人兄弟の二女だった。父親は LH さんが生まれて大喜びだったのだが、実は男の孫がほしい祖母は二番目も女の子だどがっかりして、次には男の子が生まれるよう

に、ニックネームをつけられて、以来祖母からはその名前と呼ばれた。これは韓国の迷信として信じられている方法である。

逆に、父は作名家に頼んで、良い名前を付けてもらったお陰で、LH さんの名前は誰が聞いても男の人の名前で、男と勘違いされ、来日してから気にしなくすむようになった。名前からも分るように、父は娘、つまり女性であっても能力や才能を伸ばし、立派にさせるのだという信念があり、勉学に励み日本に留学するということを支援してくれた。

◇ 日本を留学先に選んだ理由 ◇

アメリカではなく、日本への留学を決めたのは、いろいろな理由が重なったことによる。祖父が1920年代に早稲田大学に留学していたことや、伯母が姫路に住んでおり、大学の指導教官も日本に研究に来たことがあり、良いイメージを話されていた。LH さんは、大学2年の夏休みに日本を旅行し、良い印象を受け、とても安全だと感じたことが決め手になった。

父は、日本への留学をサポートしてくれたが、冗談交じりに、「後々結婚の相手として日本人を連れてこないでね」と言ったのは覚えている。反日教育を受けた父親世代からは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しかしながら、LH さんの家系は1950年韓国戦争の際に、高い学識を持っていた祖父が共産主義者によって拷問を受けて、亡くなっている。日本も植民地化の思い出によって嫌いになったが、韓国戦争の時の辛さが反日感情を少しまぎらわせてくれたと思う。

◇ 大学の指導教官の指導と日本の植民地化の研究 ◇

大学を卒業して、すぐに日本に来たので、就職経験等は全くない。早稲田大学の日本語教育センターで日本語を勉強した。大学での最初の友人は、早稲田で同じ日本語の授業を聞いている留学生たちであった。それから、半年後、日本語もある程度話せるようになり、同じゼミの日本の学生とも友だちになった。

指導教員の論文指導は、議論したり、行き詰った時に相談をして、方向性を助言してくれた。それは赤ペンで文章を修正するよう細かい指導方法ではなかった。

本人の基本的な考えを自由に書けるという感

じだが、留学生のLHさんにとっては、日本語で表現するので、どうしても文章で表現しきれない部分も多かった。そのおかげで、同じ研究室の先輩や同級生の日本人に論文を見てもらい、表現をチェックしてもらったり、修正や議論を重ねることで、友情や絆を結んでいくことができた。今も、同期や後輩との共同研究や、お互いの論文のチェックをし、議論は盛り上がり、対話が弾む。

◇ 修士論文と博士論文 ◇

修士論文のテーマは「外国人労働者の教育権」で、博士論文は、その教育権を含めての文化変容に関する研究だった。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含む文化変容の部分を書くうちに、植民地時代の同化教育に焦点を当てて、インタビューをした。その当時(2002年)80代の韓国内の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の所に行って、1920年30年、40年代に受けた教育の話や、思い出として残ることを聞いて、参考にしたのである。

ちょうど、80歳の方々は植民地時代、小学生の年ごろで、その人たちからそういう話を聞けるというのは今しかないと思った。もう記憶はあやふやだけれども、日本に対する思いをインタビューすることで、当時受けた教育によって人々はどのような考えの変化をみせるかが明らかになった。

◇ 「一等国民日本人」と言われた ◇

日本語も上手で、先生の名前とかも覚えており、小学校に通えなくても、夜学等で勉強したりで、日本語ができれば、何とか仕事が見つかる、出世できる、格が上がるという、「一等国民日本人」というのを言われた教育環境だった。

国民学校の時も先生に褒められるのが好きで、自ら朝早く起きて、神社に行ってお参りする。学校で覚える皇国臣民の誓詞とかは自ら覚えたとか、反対に、厳しい家はそういうのをやっちゃだめとおじいさんから言われたりして、心の中での葛藤が起こった。強要される部分についての嫌な思いと、「まあいいじゃないの」といった寛容な親もあり、教育に関与しない家庭であれば、むしろ子どもは楽々、無意識的に吸収して日本の意図どおり、立派に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

◇ 新宿のニューカマーの様相と地域コミュニティ ◇

新宿は、韓国人同士が集まって住んでいるから、韓国に関する教育をどうするか、韓国学校がどう

なんだ、という情報交換をしたりして、むしろ韓国との距離が短く感じる。

新宿を離れて住む人は、そこの地域の日本の生活つまり、日本のコミュニティに溶け込んでいるという印象がある。だから、あんまり韓国人が顕著に集まって住むより、逆の方が、日本に住みながらの文化適応が速いと思うという。

新宿は、韓国語で困らない、よけい韓国語で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な、民族意識をもっとだせるような、韓国人コミュニティの中に、近くにいるという意識がある。「韓人会」が中心となって大久保の町を一生懸命清掃していること等は、地域の皆と、つまり日本人と交流したいという気持ちと何か役に立ちたいとか、コミュニティの担い手に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るわけだが、これに対して、日本の町会とか、地域社会が最初はあまり心を開いてくれない。もう少し、相互に交流があるといいと思う。

新聞記事にも、相互に「心に残る溝」と書いてあったが、その何かやっぱり何となく日本人住民に乗っ取られ感があるみたいなの、そういうところを長年ずっと引きずっている。だから「日本人のメンタリティがまだ多文化社会を受け入れる準備がまだできてないじゃないか」という言説も多いのだ。

3・11の震災後、大久保公園で東日本大震災復興支援のための日韓チャリティ広場を開催し、その準備の際には土壇場でキャンセルになったイベントの教訓もあって、前もって町内会の人たちに了解を得るとか、区役所にも広報活動をする等で、今回はむしろ多くの協力を得て、チャリティを成功に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た。

まさに、町内会、町の中の日本のグループとの交流を、まず信頼関係を培っていくことの大事さを教えてくれたものだ。今までの大久保でのクリーン活動とかの積み重ねもあって、やっぱり地域の人々、日本のマジョリティの人たちと一緒にやるのが一番いい。

◇ オールドカマーの特徴 ◇

新宿と少し異なって、日暮里、三河島となると、在日が焼き肉屋や、革製品、総連の荒川支部もそこにあって、在日コリアンが多い。在日がいて、その家族を呼び寄せて、ニューカマーとして来る人は、その繋がりの方、親戚などがきて、また新しく日暮里で商売をし始めるというパターンが多

い。

◇ オールドカマーの人々の心境 ◇

オールドカマーの在日は目立たない。普段会っている金子さんとか、林さんとか、在日であることが顕著である。その程度で、それ以上は言わないで、皆でお祭りの話とかをしたりしていても、オールドカマーは目立たないから、韓国人なのか、どっちなのか、わからない。むしろ、韓国人として目立つのはニューカマーの方で、日本語もちょっと下手で、なまりのある日本語だし、今の韓国の情報もよく知っている。さらにハキハキし、「私は韓国人だ」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前面にはっきりと明示する人はニューカマーの人である。

おそらく、オールドカマーの在日が表に出せないで生活をするというのは、日本の昔からの、親世代が表に出して何も得する事なんかなかったというのを小さい時からみて育ったからだと思う。今は2世、3世も、別に日本人で良いよ、と無意識の中で思ったりして、受けた教育によって。今の韓国についても知っていることがほとんどない。実際に前橋に住む伯母が、韓流ブームでドラマを見始めているのですが、よく私に電話をしてくれて、ドラマでの表現、つまり、昔の時代劇と、今の時代の若い人の表現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を聞いたりする。

◇ 世代交代：一世から二世に、そして三世に ◇

在日二世は、一世の人が法事とか、正月などを韓国式にする際に、食べ物の作り方とかを真似したりして、そのしきたりは分かるのだが、その文化的背景と意思と伝統的意味はよく分からない。実際一世が亡くなると二世の嫁さんは、韓国式はやらないで、日本式に変わっている。

在日二世は日本の教育を受け、家庭で一世が生きていた時は親の指示どおりやったけど、亡くなった後には、確かに自分は在日韓国人だけど、その意味も良く分からない韓国方式はもうやらない。すでに考え方自体も日本式になっていて、どちらかという日本の食べ物がおいしいし、日本語で表現した方が楽だという。

◇ 日本の文化は、自文化になっている ◇

親がいるときは一世代と「オモニ、なんとかしますか」のように、ちゃんと表現もオモニ、アボジ（父さん、母さん）というふうに呼ぶ。それ二

っだけは韓国語で話すが、後は日本語で話す。一世代が韓国語でしゃべると聞き取れるが、返事は日本語です。在日三世の方はもう言葉も全部、聞き取りも日本語で、全く日本人。名前だけは、帰化しないで持っていて、世代ごとにドンドン薄れて行く。そのライフサイクルに沿って、色々と気持ちも変わってくる。例えば、歳をとると、昔が懐かしくなったり、凄惨望郷の念というか、韓国が恋しくなったり、食べ物も恋しくなったり、言葉も日本語と韓国語がごちゃごちゃ混ざっておかしくなったり、文化が恋しくなる。やはり、もう国籍は関係ない、もうどこの国だか分からなくなっている。

◇ 国籍はどこだろう ◇

在日一世は、自分は韓国人だと思うが、在日二世となると、家庭環境にも寄るが、自分が韓国人だという気持ちが薄れている。自分の中には在日というか、韓国人の血が流れているし、文化もある部分恋しい部分もあるけど、自分が何人というのは、もはや関係なくなっているみたい。むしろ、「日本」で十分楽しいし、友だちと言えば日本の人が多い。特に自分が在日だと言わなくても、普通に日本の友だちと同じ学校に通っていた同級生であり、慣れしんでいる。だから、もう国籍は関係ないみたい気持ちになる。

◇ 教会という共同体が果たす役割 ◇

人によって異なるが、ニューカマーの人も、特に子育てをする人としらない人によって考え方が違う。子育てをし始めて、自分の中には入っている韓国性を、次世代の子どもに韓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どのように伝えるかということに悩むのだ。

そこで、外国において、教会という宗教施設は、同じ悩みや思いをもつ同胞同志、同じ悩みを抱えながら子育てをするという機能があって、共有できる部分がたくさんあり、そこで支えあっている。

子どもたち同士も、どこか安心して教会の同じ韓国人で、同じ思いを共有している友だちと親しくなる。つまり、同じ想いをし、日本に住みながら、日本語が第一言語で、でも韓国語も使う。書けなくて、読めなくても、韓国語を覚える。不思議にも。そういうことも教育の力だと思う。教会の中にいながら韓国語に、韓国の文化に慣れていくのだ。

そういうニューカマーの子どもたちが大きくなって、もっと深く勉強したくなったら、私たちが留学して日本語を習い、日本の文化になじんできたのと同じように、できると思う。だから思いだけしっかり持たせれば、大丈夫だ。

◇ スポーツを見るとき気持ち ◇

例えば、子どもは、日韓戦の際に、韓国の旗と日本の旗、両方を作って応援する。ゴルフとかを見る時も、石川選手を応援する旗と韓国の金ギョnte選手を応援する旗を作って、どっちか上手いプレーをしたら、それを応援する時に使う。この人が好き、その人のスキルが好き、という感じで。韓国人だから必ずしも韓国を応援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金選手を、石川選手を応援するという形になる。つまり、こんな感じで成長していった良いと思う。自分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分らないわけでもないし、しかも日本でたくさんの友人がいて、日本の文化も食べ物も、親より多く知っていて、日本の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に関して別に悪いことでもないし。今の時代って何人というよりは、友だちの金さん、友だちの張さん、友だちのステイーブさんみたいな一人ひとりの差異を強調した表現になると思う。このような環境のなかで、子どもたちはすくすくと成長しているのだ。

◇ 信仰をもつこと ◇

以上のように LH さんの家庭はクリスチャンで、教会での時間は、一家の生き方の基準となっている。異文化の狭間でどう生きるかという、国や文化などに関係なく一家の生きる指針はむしろ「信仰」にある。

海外に住み暮らしながら、この「信仰心」をずっと守るという意味から、二番目に考えるのは、同胞のことだ。自分が何人なのかという根拠をたどることである。子どもにとっても自然にそういう人に触れ合って、文化的な儀礼を身につけていく。自然に大人にはどういうお辞儀をするのか、正月とかも韓国のおもちを食べたりすると、家でやらなくても、伝統文化などに教会で自然に接している。皆と一緒にやりながら、無理なく無意識の中で教育が行われている。

三番目には、教育を支え、情報交換の場として教会が孤独感から解放している。今は、外国で心細い思いをしながら住んでいる者が、教会に行くのと在日の先輩格の歳をとった世代がいる。韓国に

居る親の代わりとしてそういう人とかかわりの中で礼儀作法を学ぶ。子どもたちも同じ安心感を体験する。ここで育つ韓国の子どもたちとのかかわりの中で、日本語でしゃべりつつも、親の話をしたり、祖国の話や共有する部分がある。親が教えなくても身につく部分があり、人とかかわりの中で様々なことを学習していくという教育的な面もとても良い。

◇ 新宿に生まれている無意識なマルチカルチュラルな生き方 ◇

同化されるという意識ではなく、多文化な自分に成長しているのだと思う。

子どもは、自然に、その場に合う、その土地に合う言語を選択する。子どもの時から、脳のなかでは、コードスイッチがちゃんとできる。「この場面では日本語が良いみたいだ」というように、この人は日本人だから日本語をしゃべらなくては、といった国籍を意識する固い表情ではなくて、もう人に会って自然に場を読み、そういう風に言語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バイカルチャーというものはそんな新しい生き方ではないだろうか。場を察知できるのだ。多分その子たちも、大きくなって、近所で会う韓国の友達も、中国の友達も、国籍に関係なく、「私の友達のなに君、なににさん」とか、そんな風にハイブリッドになっていると思う。

◇ おわりに ◇

LHさんのお話を聞いていると、子育ての指針が、「信仰」にあることがよく分かる。新宿には、さまざまな宗教施設が密集していて、平和的に共存している。同じ宗教を共有していることが大事で、国籍の違いは最大の違いではないという意識がよく分かる。そんな雰囲気の中なかでは、「国籍」はごく便宜的なもので、子どもたちも心の中では意識していない。バイリンガル、バイカルチュラルに育っている。「信仰心」「自分が育てている文化的な環境」「自分の生き方」を大切にしている。洗練されたコスモポリタンの生き方に触れながら、ハイブリディティが多文化都市・新宿に育っていると感じた。

<インタビュー 45>

LH씨 (30대 후반・여성) 「뉴커머와 올드

커머의 사이에서」

2011년7월26일, 경상남도 출신
대학교 강사, 일본체제 16년차
인터뷰담당 : 카와무라 치즈코

◇ 아들을 갖고 싶었던 가족의 마음과 붙여진 이름 ◇

LH씨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베이비붐이 한참인 1972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관,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4남매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둘째딸이 태어나서 대단히 기뻐하셨지만 아들을 원하던 할머니는 둘째도 딸이어서 실망이 크셨고, 셋째는 꼭 아들이 태어나도록 LH씨에게 별명을 지어주셨고 이후 할머니로부터는 항상 별명으로 불리웠다. 이것은 한국의 미신으로 믿어졌던 방법이다.

할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작명가에게 부탁하여 좋은 이름을 지어 받았지만 LH씨의 이름은 한국에서는 남자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는 바람에 남자로 오해 받기 일쑤 였다. 하지만 일본에 온 이후로는 이러한 오해가 없어져 도리어 기분이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이름의 유래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딸이라도 능력과 재능을 키워 훌륭하게 키우려는 신념이 있었고, 공부를 격려해 주시고 일본에 유학하는 것을 지원해 주셨다.

◇ 일본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 ◇

미국이 아닌 일본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겹쳐져서였다. 할아버지가 1920년대에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하였고, 고모가 히메지에 살고 계셨으며,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의 지도교수님이 일본으로 연구차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도 일본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셨다. LH씨 또한 대학 2년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본을 여행하였는데 그때에 일본에 대해서 좋고 안전한 곳이라고 느낀것이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일본유학을 지원해 주셨고, 농담 반으로 (나중에 결혼 상대자로 일본남자는 데려오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일교육을 받았던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수있는 농담이었을지도 모른다. LH씨의 집안은 1950년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높은 학식을 지니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공

산주의자에게 심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 일본 역시 싫어 할 수 있었지만 한국전쟁 때에 할아버지가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은 반감하였다고 한다.

◇ 대학 지도교수의 지도와 일본 식민지화의 연구 ◇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다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사회 생활 및 취직경험은 전혀 없다. 와세다 대학의 일본어교육센터에서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대학에서 처음 만난 친구는, 일본어교육센터에서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던 유학생들이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는 일본어로 구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세미나에서 공부하던 일본인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방법은 서로 토론하고 결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담을 통해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다. 단순히 문장만을 수정해 주시는 지도방법이 아니었다.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셨지만 유학생 신분인 LH씨에게 있어서는 일본어로 표현해야 했기에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같은 연구실의 일본인 선배 및 동기들에게 논문을 체크 받아 수정과 토론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으며 지금도 동기/후배들과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논문을 체크해주면서 격렬한 토론을 벌리면서 이야기 꽃을 피운다고 한다.

◇ 석사논문과 박사논문 ◇

석사논문의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권」, 박사논문은 그러한 교육권을 포함한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문화변용의 부분을 기술하면서, 식민지시대의 동화교육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2002년)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1920년에서 40년대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들을 인터뷰하고, 참고했다.

그때, 80살 전후이었던 분들은 식민지시대 소학교 연령이었고, 그분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기억은 흐릿하게 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기억을 인터뷰함으로써 당시에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

인간은 어떠한 생각의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 「일등국민 일본인」이라고 말하게 하다 ◇

일본어도 잘하고, 선생님의 이름도 외우고, 소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야학등을 통해 일본어만 구사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출세와 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일등국민 일본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교육환경이었다.

소학교 때에 선생님에게 칭찬 듣는 것이 좋아서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황국신민의 서사도 스스로 외웠다고 한다. 반대로 엄격한 집안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받았기에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다.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다는 심정과, 「뭘 꿔꿔아」라고 하는 관대한 부모도 있었으며, 교육에 대해 별로 관여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을 즐겁게, 무의식적으로 흡수해서 일본의 의도대로 훌륭하게 되고싶다 라는 마음이었다.

◇ 신주쿠 뉴커머의 양상과 지역 커뮤니티 ◇

신주쿠는 어쩌면 한국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한국인 학교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기에 한국과의 거리감도 어쩌면 적을 수도 있다.

신주쿠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일본커뮤니티에 잘 융화되어 적응하고 일본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사람이 현저히 많이 모여 사는 곳 보다는, 반대의 상황이 일본에 살면서의 문화적응이 빠르다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신주쿠에서는 한국어로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쩌면 한국어를 더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듯한, 민족의식을 더욱더 내세워야만 하는 듯한,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 가깝게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오오쿠보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것등은 지역에 사는 모두와, 즉 일본인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과, 커뮤니티에서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싶다는 마음에서 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초카이(반상회)라던지, 지역사회가 처음에는 별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만 더 상호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신문기사중에도 서로에게 「마음에 남은 골」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 무언가 모르지만 역시 어쩐지 일본인 주민에게 있어서는 빼앗겼다는 감이 있는 듯한, 그러한 점들이 오랫동안 계속 끌려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일본인의 멘탈 리티(심리상태)가 아직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언설도 많다.

3. 11의 대재난후, 오오쿠보 공원에서 「동일본대재난 부흥 지원을 위한 한·일 자선광장」을 개최하였다. 이전에 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던 막바지에 이벤트가 취소된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사전에 쇼카이 사람들의 양해를 얻고, 신쥬쿠 구청 쪽에도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이번의 동일본대재난 부흥 지원 이벤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자선 이벤트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정말로, 반상회(쇼나이카이), 지역안의 일본의 그룹과의 교류를, 우선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금까지의 오오쿠보의 크린 활동등과 같은 것들이 쌓여서, 역시 지역 주민, 일본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 올드 커머의 특징 ◇

신쥬쿠와는 달리 닛뿌리, 미카와시마는 재일 동포의 야키니쿠 가게, 가족제품, 조총련의 아라카와 지부도 그곳에 있어서, 재일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재일한국인이 살면서 가족들을 본국에서 불러 들이고, 뉴커머로서 온 사람은, 그와 연결된 사람들, 친인척들이 오고해서, 또 새롭게 닛뿌리에서 장사를 시작한다 라는 패턴이 많다.

◇ 올드 커머들의 심경 ◇

올드커머로서의 재일한국인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위에 살고있는 카네코상, 하야시상등 이름에서 보듯이 재일한국인임이 현저하다. 하지만 그 정도 선으로 더이상 말하지 않으며, 모두와 마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올드커머로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에, 한국인인지 아닌지 잘모른다. 어쩌면 한국인으로 눈에 잘 띄는 쪽은 뉴커머로 일본어도 부족하고 발음도 어색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도 잘 알고 있다. 더욱

이 자신만만하고,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뉴커머이다.

추측하건데 올드커머들인 재일한국인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옛날 부터, 부모님 세대들이 재일한국인으로 밝히고 살아도 아무런 득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어릴 적 부터 보고 자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2세,3세 들은, 별로 일본인 인체로도 괜찮다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들이 받아온 교육에 따라,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실제로 마에바시에 살고 있는 숙모님께서 한류 붐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드라마의 표현 중에 특히 시대극과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화로 자주 물어오곤 한다.

◇ 세대교체 : 1세에서 2세로, 그리고 3세로 ◇

재일한국인 2세는, 1세가 제사를 지낸다는지, 설날등의 명절을 한국식으로 지낼 때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흉내 낸다는지 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배경과 생각, 전통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실제로 1세가 돌아가시면 2세의 며느리는 한국방식으로 명절을 지내지 않고 일본식으로 바꿔 지내게 된다. 재일한국인 2세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교포 1세가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데로 따르기는 했지만, 1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당연히 자신은 재일한국인이긴 하지만 그 뜻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한국방식은 그만두게 된다. 벌써 사고 자체는 일본식으로 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일본음식이 더 입에 맞고 일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

◇ 일본의 문화는 자문화가 되어져 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オモニ、どうしますか」처럼, 표현도 정확하게 オモニ、アボジ(어머니, 아버지)로 부른다. 이 두 단어 만큼은 한국어로 말하지만 호칭 다음에 오는 내용은 일본어로 말한다. 1세대가 한국어로 말하면 2세대는 듣고 이해는 하지만 답변은 일본어로 말한다. 재일한국인 3세들은 말하기 듣기 모두 일본어로 소통한다. 완전한 일본사람이다. 이름만은 귀화하지 않고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으나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도 많이 줄어든

다. 라이프 싸이클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이 그렇고 방향의 서러움이랄까 한국이 그리워지고 한국음식도 그리워지게 된다. 언어구사도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도리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한국문화가 그렇게 된다. 역시, 이제는 국적은 관계없다, 이제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게 되어 버린다.

◇ 국적은 어디일까 ◇

재일한국인 1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일한국인 2세가 되면 가정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열린다. 자기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리운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어 보인다. 어쨌든, 「일본」에서 충분히 즐겁고 친구들도 일본인이 더 많다. 굳이 자신이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본인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창임과 동시에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국적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 교회라는 하는 공동체가 가지는 역할 ◇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뉴커머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방식은 서로 다르다.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민족성을 다음세대인 자녀에게 한국인의 민족성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에서의 교회라는 종교시설은 같은 고민이나 생각을 가진 동포이며 동지, 같은 고민을 안고 자녀양육을 한다는 기능이 있어서,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런 면에서 서로 의지하기도 한다.

아이들끼리도 교회에서는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친구들과 친하게 된다. 즉, 일본에서 살면서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하고, 일본어가 제1언어 이지만, 한국말도 사용한다. 쓸수 없고, 읽을 수는 없지만, 한국말을 익힌다. 불가사의하게도. 이러한 것들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뉴커머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들이 일본에 유학와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적응해 왔었

던 것처럼, 잘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고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괜찮을 것이다.

◇ 스포츠를 볼때의 마음 ◇

예를 들어, 한일전을 벌일때 아이들은 태극기와 일장기를 양손에 쥐고 응원한다. 골프를 관전 할때도 이시카와 선수를 응원하는 깃발과 김경태 선수를 응원하는 깃발을 만들어서는 어느 쪽이든 좋은 플레이를 펼쳤을 경우에 만든 깃발을 흔들며 응원에 사용한다. “이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의 기술이 좋아”, 라고 하면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을 응원 하는 것이 아니라 김 선수, 이시카와 선수를 응원하는 형식이 된다. 나는 이와같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자신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일본에는 많은 일본인 친구가 있고, 일본문화, 일본음식도 부모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이런 것처럼 일본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는 어느나라 사람이라는 것 보다는, 내 친구인 김씨, 내 친구 장씨, 내 친구 스티브 씨 같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녀들은 쑥쑥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신앙을 가지는것 ◇

이상과 같이 LH씨의 가정은 크리스찬이며, 교회에서의 시간은 이 가정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문화의 틈에서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 하는, 국가나 문화등에 관계없이 일가족의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는 신앙에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이러한 「신앙심」을 계속 지킨다는 의미에서, 두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동포에 관련된 것이다.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뿌리를 찾아 가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며, 문화적인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는 어떠한 인사를 해야하는지, 설날에는 한국의 떡을 먹기도 하면서, 집에서 애쓰지 않아도 전통문화를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어려움 없이 무의식중에 자녀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세번째로는, 교육을 지지해 주면서, 정보교환의 장소로서 고독감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외국에서 의지할곳 없이 외로워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 가면 제일교포 선배 격인 나이의 분들이 계신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대신에 이런 분들과의 만남속에서 예법을 배운다.

자녀들도 비슷한 안정감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 자란 한국 어린이들과 접촉하면서, 일본어로 이야기 하면서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국의 이야기등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익히는 부분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 신주쿠에 생겨나는 무의식적인 다문화적 삶의 방식 ◇

동화된다는 의식이 아닌, 다문화적인 자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적합한, 그 토지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한다. 어릴때 부터 머리 속에서는 코드 스위치를 정확하게 할수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어가 좋겠구나」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해야겠다고 판단 하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을 만나고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바이컬츄얼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상황 파악을 할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해서 집 주위에서 만나는 한국인 친구도, 중국인 친구도, 국적과는 상관 없이 「내 친구 누구누구」라는, 그러한 식의 하이브리드로 되어지리라 본다.

◇ 끝으로 ◇

LH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녀양육의 지침이, 「신앙」에 두고 있는 것을 잘 알수있다. 신주쿠에는 여러 종교시설이 밀집해 있으면서 서로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국적이 다른 것은 최대의 차이점은 아니라는 의식을 잘 알수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국적」은 단순히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자녀들도 마음속에서는 의식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언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신앙심」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 「삶의 방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세련된 코스모폴리탄의 삶의 방식에 접하면서, 하이브리디티(Hybridity)가 다문화도시인 신주쿠에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다.

<インタビュー 46>

Bさん(20代・男性)「10年後の新大久保の変化」

2011年8月1日、釜山出身、大学生
日本滞在歴4カ月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来日するきっかけ ◇

ソウルの大学で経営学を専攻しているBさんは、卒業まであと1学期を残し、2011年4月に大学の交換留学制度を利用して都内の大学に1年間の予定で留学している。日本語を学び始めたのは高校1年生の時だ。高校のクラス担任だった先生の、「新聞配達か何かバイトして1年ぐらいお金を貯めて、2年の夏休みぐらいにヨーロッパに一人で旅に行ってみたらどうだ」という言葉に心を動かされ、新聞配達を始めた。朝3時半から1時間ほど、朝の新聞配達の仕事をしたが、ヨーロッパに旅に行けるほどお金が貯まらないことがわかり、行き先を日本に変更した。バイトの後、高校の授業が始まるまでには時間があつたため、その時間を利用して日本語の語学学校に通い始めた。そして貯めたお金で2001年、釜山からフェリーで福岡に渡り、あとはJRパスを使って東京まで約2週間の日本旅行をした。

Bさんは大学時代に多様な経験をしてきた。2004年に大学に入学し、1年後の2005年から2007年の2年間、大学を休学して軍隊での兵役に従事した。そして2007年から2008年まで大学に復学した後、再度休学し、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を利用してオーストラリアに1年間滞在した。2009年から2010年まで復学した後、さらに今回、交換留学制度を利用しての来日である。兵役の後、オーストラリア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に行ったのは、「軍隊ですごく外にも出られずに束縛された感覚がすごく嫌だったので、これが終わったら自分がほかのところにも行ってみよう」と思ったことが理由だそう。オーストラリアではレストランなどでバイトをしながら生活した。現

地では、韓国人経営のレストランに日本人が働いていたり、日本人経営のレストランに韓国人が働いていたりということもよくあったという。

高校生のころ学び始めた日本語は、ドラマをみたり、日本から韓国に来る留学生と友だちになったり、オーストラリアで知り合った日本人の女性と付き合ったりする機会があったことで、日本語力を伸ばした。偶然、大学のウェブサイトで日本への交換留学生募集のお知らせを見たことがきっかけで応募した。日本語での面接試験に合格し、3月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で両親や友人からも心配されたが、「すごく経験の機会が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て」、来日を決めた。

◇ 大学での生活 ◇

現在は、各国の留学生と日本人学生と一緒に生活する国際寮で生活している。一番多いのは中国からの留学生で、次が韓国から、そしてインドやロシアなどさまざまな地域からの留学生がいる。留学先の大学に経営学科はないため、多様な分野の授業に興味の向くままに履修している。大学では、テコンドーとアカペラのサークルの他、韓国のポップカルチャーに興味がある人たちが集まるサークルにも参加している。このサークルは韓国にたまたま旅行に行き、韓国語や韓国文化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男子学生がつくったものだが、メンバーはほとんど女子学生だという。定期的集まり、飲みに行ったり、カラオケで K-POP を歌ったりするが、大体行く場所は新大久保だ。

◇ 新大久保 ◇

2001年に旅行で初めて日本を訪れた時にも新大久保に来たが、10年ぶりに新大久保を定期的に訪れるようになり、その違いに驚いている。10年前に来たときには、男性が多く、韓国語のような言葉が聞こえてきても、韓国語ではなく中国の朝鮮族や北朝鮮の朝鮮語のように聞こえ、さらに「疲れた労働者が集ま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雰囲気だったらしい。しかし現在では、男女の比率は逆転し、街には女性のほうが目立つようになっているほか、かなりきれいになった印象だという。新大久保は、「韓国の10年、15年、20年ぐらい前の雰囲気って感じ、まだそこまで発展されてない」そう。Bさんにとっては、「あんまり興味というか、関心がない」が、それでも「韓国に興味がある日本人の友達に少なくとも、ほんの少しでも韓

国はこういう雰囲気だよっていうところが見せられる場所って感じですかね」と言う。

◇ 友達関係 ◇

日本人の友人は、寮やサークル活動を通して出会うことが多い。しかし、やはり留学生同士のほうが親しくなりやすく、本当に親しい日本人の友人は今のところ一人だけという。韓国では人の家の冷蔵庫を自由に開けるのはよくあることだそうだが、日本ではあまりない。Bさんは、その友人について、「割と日本人なのに、そういうのを全然気にしない人なんで、だから親しくなれたんですけど、酒とか飲みながら教えてくれたんですよ。『そういうのは日本じゃだめ』とか、僕のやり方の問題点とか教えてくれて。いきなり電話して『今からご飯食べに行く？』か、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日本人の人にはないらしいんですよ」と話す。しかし、同じ寮に住む留学生同士であれば、勝手に部屋に入って「ご飯食べにいきましょうよ」と誘い合うことはよくあることだという。

日本社会に対しては、プライバシーを大切にするといい面でも悪い面でもあるという。悪い面については、「自分には日本の学校で一人でご飯食べられることもいいですよ。(中略)そういうところも好きなんです」という。韓国の大学では一人で食べていると変だと思われる。兵役を終え、大学に復学したばかりなので、友人がおらず一人で食事をしていると、一度会ったことのある後輩から、「なんで先輩、ひとりでご飯食べているんですか」と言われて恥ずかしい思いを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悪い面としては、プライバシーを尊重しすぎること、なかなか親しくなれないことがある。「自分のことをもうちょっと見せてもいい。(中略)もっと相手の領域に入れてもらって、相手にも自分のことを見せ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けど、それがなかなかできないらしくて」とBさんは話す。

友人とは歴史問題についてはあまり語ることはない。歴史問題を語ることを避け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個人的にそれを語り合っても「けんかにしかな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実は、Bさんの祖母は札幌で生まれた。それについて、「国籍は韓国なんですけど、でもどうやって札幌で生まれて、どうやって韓国出身のおじいさんと出会って、どうやってここ(韓国)にやっ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祖母は口を閉ざして語らな

いそうだ。それについて、付き合っていた日本人の彼女に、歴史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よ」と言ったら、「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自分はわかんない」という反応で、けんかになってしまった。このようなギャップは越えられない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Bさんは「いや、越えられると思いますよ。でも、教えてく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原爆投下については詳しく教えられても、植民地で日本がどのようなことをしてきたのかについて、あまり日本の若者が教えられていないことを指摘した。

◇ 現在の生活と将来 ◇

就職先は旅行会社と考えていたが、調べてみると、韓国では旅行会社で長年勤める人が少ないことを知った。平均勤続年数は10年にも満たないという。90年代後半のアジア通貨危機の影響で、安定した雇用形態が韓国ではかなり崩れてしまったこともあり、旅行会社に就職しても、退職して別の仕事に移ったり、自分の会社をつくる人も多いという。旅行会社は厳しいとは知っても、「まだ未練とか残っていますけど…。興味もあるし、悩んでいます」という。韓国では、正社員の仕事を見つけるのは簡単ではないという。Bさんのように大学在学中に、多様な経験をする韓国の大学生は多いが、「自分の経験というよりは、最近、経済が悪すぎるし…」という。よって、休学して語学研修にいたり、資格取得に励んだりするのだそうだ。

<인터뷰 47>

D씨 (40대 중반・남성) 「한일간의 기술 교류로 더 강한 IT 국가로의 성장」

2011년 8월 1일, 서울 출신
회사 경영, 일본체재 14년
인터뷰: 이혜미

D씨는 현재, 두 아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사 이타마현에 거주 중이며, 89년 일본에서 유학생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지금은 일본에서 IT관련 기술 개발과 한류스타 매니지먼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D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 IT기술을 배우기 위한 일본 유학 ◇

D씨는 1967년, 3남 1녀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의 사립대 치의예과에 합격했지만,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 1989년 당시, 한국보다 발전된 일본의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전부터 부모님이 일본으로 왕래가 많으셨고, 여동생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D씨의 일본 유학 길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89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연수생으로 처음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6개월 동안의 연수생 생활을 마친 뒤, 89년 9월에 일본어 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90년 4월, 일본어는 많이 부족했었지만 운 좋게 동경의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한다. 91년, 대학 2학년 때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오오츠키역 부근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92년, 대학 3학년 때에는 지금의 큰 아들이 태어났다.

◇ 귀국,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

D씨는 대학 졸업 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한국에서는 건설회사의 전산실에서 기술 담당직으로 5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27살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배운 IT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IT 기술 관련 일들을 해오며, 선두에서 초기에 IT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메일 서버 개발과,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참여했었다.

2002년까지 IT 기술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이 너무 각박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개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대부분의 업체가 망하고, IT 기술의 개발 스피드와 변화가 빠르다 보니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었어요. 한국은 변화가 빠르니까 제가 선두에 서서 IT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쳤던거죠.」 한국의 각박함에 지쳐가는 반면, 일본의 안정감은 당시 D씨가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된 이유로 작용했다.

2003년,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첫번째 왔을 때

는 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왔었지만, 두번째 왔을 때는 제가 만든 인터넷 방송 기술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하러 온 거죠.」

D씨는 일본에서는 인터넷 방송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인터넷 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D씨의 예상은 빗나갔고, 그로 인해 일본에서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사업 실패로 인해 D씨는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그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후에는 한국계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기술 담당으로 4년 가까이 일했다. 지금은 IT기술 개발과 한류 스타 매니지먼트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 일본의 IT 기술 ◇

2003년 인터넷 방송 기술로 일본의 IT 시장을 공략하고자 일본을 다시 찾은 D씨는, 일본의 N사가 광케이블 저가 보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로 사업을 시작 했지만, 결국 일본은 그 당시 광케이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은 힘들어졌다.

인터넷 방송 기술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인터넷 방송권도 함께 일본에 가져 왔던 D씨, 「그 당시 가져온 인터넷 방송권은 사실상 빛을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다운로드받으면서 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일본은 그때까지도 모델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렸었거든요.」라며 당시의 아쉬움을 표현한다.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광케이블 설비도 먼저 시작했고, 진행 상황도 훨씬 좋았다. 하지만, 일본은 코스트 삭감과 대중화라는 과제에 실패했고, 그것은 결국 앞서 있던 일본의 IT 기술을 한국이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IT 기술과 방송 기술마저도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D씨는 지적한다.

D씨는 한 가지 예로 한국의 건설회사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건축 설계 프로그래밍을 하는 캐드 소프트웨어. 일본에서 배운 캐드는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전세계는 미국의 오토캐드라고 하는 공통된 건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국에서 이미 일본에 맞는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설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세계의 흐름보다 본인들이 빠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호환

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데이터는 전세계에서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라며, 여러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사실상, 일본이 IT 업계에서 늦은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일본은,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을 믿고 너무 침체적으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일본인들은 하나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수만가지의 테스트를 한다. 하지만, 그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회사에서 먼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이 적었지만, 지금은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비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정신이 많이 떨어졌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기술을 훔내내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한일간의 기술적 교류가 늘어나고, 한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도전 정신과 일본의 세밀함이 적당히 어우러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더 강한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녀 교육 ◇

2003년에 같이 와서, 2004년에 비자를 처음 받고, 아들 둘은 일반 일본인 학교에 진학을 시작했다. 어렸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가고, 큰 아들은 올해 동경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했다. 작은 아들은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어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든 가끔씩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다. 지금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지금은 부모 보다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집에서의 모든 대화는 한국어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아닌, 또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계속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생활을 해 갔으면 한다. 예전 일본 유학 시절에는,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 만약 혼자였다면, 당연히 또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갔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

요하지만,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 신오오쿠보 ◇

D씨는 처음, 大久保의 百人町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자 했고, 그 시장이 제일 공략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D씨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웹 사이트는 D씨의 유학생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일본 생활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비자문제 등... 한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고,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았다.

예전의 신오오쿠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 D씨의 대학생 시절, 신오오쿠보는 한인들은 살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타운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고, 한국 가게나 식당들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인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D씨는 신오오쿠보가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활성화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류가 배용준씨를 통해서 시작되어, 일본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음악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 그 자체로 통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K-POP의 인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 처음, 배용준씨로 인해 한류의 레벨이 많이 높아졌지만, 지금의 K-POP은 배용준씨 때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5년 이상은 이 분위기가 계속 더 발전하지 않겠나 싶어요.」라는 의견도 들려주었다.

일본인들에게 더 가깝고 발전적인 신오오쿠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오오쿠보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인들과 동일하게, 아니면 더 질 좋은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이 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많이 없어졌지만,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 신오오쿠보의 한국인들이 먼저 조금 스스로를 고급화하는 쪽으로 의식구조를 바꾼다면, 반드시 더 좋은 발전된 신오오쿠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국과 일본 ◇

일본에서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한 것은 외국인으로서 이사를 한다거나, 렌트를 하는 것이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제약이 남아있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반면, 이제는 한국보다는 일본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 차가운 면이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것이 다시 일본에 오게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일단, 사업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인터뷰 48>

G씨 (30대 중반·남성)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된 일본, 이제는 이 곳이 고향같은 곳」

2011년 8월 1일, 서울 출신
회사원, 일본체재 14년
인터뷰: 이혜미

◇ 일본에 오게 된 계기와 전문학교 입학까지◇

G씨는 1975년 생으로 36세이다. 서울 출신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에 바로 군대에 갔다. G씨가 군대 시절, 어머니와 남동생은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기 위해 먼저 일본에 왔다. 군 제대 후, 1997년 1월, 어머니와 동생을 따라 일본에 오게 되었다.

1997년 1월, G씨는 어머니의 초청 비자로 일본에 왔다. 당시에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해 4월부터 일본어 학교에 입학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일본어 학교 입학 전까지, 거의 2개월 정도 매일 집 안에서 일본어 공부에만 전념했었다.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때는 일본어 공부부터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G씨는 새로운 것을 접하고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던 일본에서의 생활은 힘든 시간들이었다.

97년 4월, 2개월 가량의 일본어 공부 덕택에 중급반으로 어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중급반의 다른 친구들보다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은 고민도 있었고, 힘들었다. 그때, 먼저 일본에 온 동생과 동생의 일본인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동생의 친구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귀가 트이면서, 일본어 공부도 재미있게 느껴졌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보다 응용이 자유롭고, 자신의 일본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느꼈다. 어학교 입학 1년 후, 일본어 능력시험 1급에 합격했다. 98년에는 Y전문학교 관광과에 입학했다.

◇ 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의 사회생활 ◇

G씨는 전문학교 관광과를 졸업 후, 전문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격증을 살려 일본의 여행사에 취직했다. 여행사에서 2년 이상 근무 하면서, 당시 전문학교의 1년 선배였지만, 동갑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행사의 일은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았고, 직장 안에서의 작은 트러블들로 인해 여행을 그만두게 된다. 여행을 그만두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주위의 조언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었다. 결혼을 빨리 한 편이기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전문학교 선배의 소개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다.

2003년에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에 입사했다. G씨가 입사할 당시에는 한국의 대기업 통신회사의 자회사였지만,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 변화에 의해서 현재는 완전한 일본의 독립법인이 되었다.

◇ 가족 ◇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쪽의 외가 친척분들도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락을 주고 받는 친척은 거의 없는 편이다. 현재, 어머니는 일본분과 재혼을 하셨고, 동생도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

고 있다.

G씨는 부인 그리고 딸 둘과 함께 江東区の亀戸에 있는 3년 전에 구입한 맨션에서 거주 중이다. 부인도 전문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일본의 N사에서 일하고 있다.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동경한국학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여섯살로 집 근처 보육원에 보내고 있다. 사실, 큰 아이가 3학년 초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보냈었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의 한국어 교육과 조금의 공부 욕심 때문에 3학년 때부터는 동경한국학교에 보내고 있다.

「처음에 큰 아이가 일본인 학교를 다니다가 동경한국학교로 옮겼을 때는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요.」라며, 동경한국학교는 일본 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과 과정의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영어 수업도 많고, 진도도 빠르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 가려다 보니 과외 수업도 필요하게 되고 완전히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있는 곳과 아이가 다니는 동경한국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이가 매일 자전거와 전철로 통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정 내에서는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가 항상 한국어로 시작해서 일본어로 끝난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동경한국학교까지 보내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아쉬운 표현을 하기도 했다.

◇ 신오오쿠보 ◇

신오오쿠보에는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거래처의 접대 때문에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가고 있다. 거래처의 접대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일본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신오오쿠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유동인구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 때문에 주변에 가게들도 많아져서, 식당들도 다양해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해져 버린 느낌을 받는다면, 하지만 일본인들이 스스로 신오오쿠보로 발길을 돌린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전혀 없다. 일본 생활 14년, 아직 인생에서의 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철이 들고 부터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더 길기 때문에, 일본 생활이 한국 보다는 더 편하다고 느낀다.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회사 일로 한국으로의 출장이 잦은 편이지만, 출장을 갈 때도 욕심을 내서 4박 5일 정도 시간을 만들어도 보통 2박 3일만 지나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진다. 그저 한국은 가끔 가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며 놀고 오는, 그냥 놀고 즐기다 오는 곳이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의 국가로 가고 싶다.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으로 이끌고 가려고 추진중이다.

<인터뷰어 49>

김さん (20代・女性) 「就職する前に日本語を身につけたい」

2011年8月3日、盆唐(ブンダン)出身
大学生、日本滞在歴1年1カ月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日本に來日するきっかけ ◇

キムさんは、ソウル近郊の大学で観光経営学を専攻している4年生である。あと1学期を残し、2010年7月、大学を休学して来日した。日本語は中学校で学び始めた。キムさんの通っていた中学では、全員が学ぶ英語のほか、第二外国語のクラスで中国語と日本語の授業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た。あまり勉強が得意ではなかったそうだが、日本語の授業では、テストで100点や95点などの高得点をあげることができ、それがうれしくて日本語が好きになった。「とりあえず私、得意なことなかったんですけど、(中略)100点取った時、(中略)これだったらたぶん自信になるかなと思った」という。

中学、高校そして大学での日本語の授業を履修したが、授業内容のレベルには不満だった。中学で初級レベルの授業を取り、高校では中級レベルの日本語を勉強したいと思っていても、高校で初めて日本語を学ぶ人がいたり、受験勉強がどうしても中心になるため、授業のレベルもあまり高く

はなかった。大学に入り、専門の勉強のほか、日本語の勉強も続けた。韓国では、就職先を見つける前に大学を卒業してしまうと、就職をするのがかなり難しいため、休学して語学力など就職の際に有利になる力をつけようとする学生が多いそうだ。キムさんも、日本語力をつける目的で、最初はワーキング・ホリデイビザを使って来日した。それについて、「今すぐ卒業するのも怖いし、もっと日本語習いたいし、だから、ちょっと逃げてこっちにき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

◇ 新宿・新大久保 ◇

住居は韓国の代理店を通して探し、最初の6カ月は新大久保に住んだ。しかし、せっかく日本に来たのだからと、韓国人の多い新大久保から新宿区内の別のところに引っ越しをした。新宿区にこだわったのは、他のところよりも韓国人がバイトを見つけやすいところであること、日本語学校や大学などが集まっていること、公共交通の面で便利なこと、などが理由である。そして、新宿のイメージを聞いてみると、「最初に来たとき、本当に韓国にいるのか、日本にいるのかわからないぐらい」だったという。しかし、新大久保に住んでいた時は、嫌な経験もした。真夜中に、酔っ払った日本人の上司らしき人が、韓国人の部下らしき人と大声でけんかをし、さらに、「朝鮮人、消えろ、消えろ」と叫んでいるのを聞いたときには、非常に驚くと同時に、怒りもこみあげてきた。

◇ アルバイト ◇

最初の1カ月間は、バイトが見つからなかった。せっかく日本に来たのだからと、韓国料理屋ではなく、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や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どの求人を見て電話した。しかし、日本に来て間もないことを伝えると、「謙譲語も全部使えますか」などと言われて断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なんとかバイトを見つけなくてはと、新宿区内の韓国料理屋に電話したところ、あっさりと雇ってくれた。ここでは6カ月働き、その後、日本人の経営する新宿区内の焼き肉店で仕事を見つけ、そこで働きはじめた。この焼き肉店では、接客担当で、注文を受け、料理を運ぶ仕事をしている。

接客をしていて難しいのは、客の話すことばに知らない単語が出てきた時だ。客によっては別の単語を使って説明してくれる人もいるが、中にはその単語を繰り返すだけの客もいるという。その

ようなときに、客の表情などから「やっぱり外国人は…」というような感じが見てとれ、嫌な思いをすることもあつた。しかし、最近では K-POP や韓国ドラマの人気もあつて、男性、女性問わず韓国に興味を示す客が多く、「本当に住みやすいというか、楽ですね」という。

◇ 日本語 ◇

日本語で難しいと思っているのは、電話の会話のなかで尊敬語が使われる時である。来日して 3 カ月たったころ、美容室に予約の電話をした。美容室の従業員に「何をなさいますか」と言われ、意味がわからずに困ったことがある。「なさる」が「する」という意味の尊敬語であることをその時は知らなかった。それを聞き返すと、その従業員は「お客様、何をなさるご予定ですか」とさらに尊敬語で対応してきた。このような時には、尊敬語をあえて使わず、通常の単語を使ってはなしてもらったほうがわかりやすいという。

日本語に慣れてくると話せるようにはなるが、「文法とかこれが本当にめっちゃくちゃ。(中略) 留学生の中で勉強してるから、私が間違えても、ちゃんと直してくれる人もいないし。(中略) そのまま帰っても、1 年間で何をしたらいいのか疑問」だということで、日本語力をもう少し高めるために、もう 1 年日本滞在を延長しようと決めた。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は 1 年間しか有効でないため、もう一年日本で滞在しようと思うと、翌年は学生ビザに変更しなくてはならない。日本語学校の学費は安くはないため、それを稼ぐために、来日して 6 カ月は日本語学校に通ったが、あとの 6 カ月はバイトに専念し、昼のランチ時間と夜の営業時間の両方でバイトをしてお金を貯めた。

◇ 東日本大震災 ◇

翌年の計画を立て、そのためにバイトに励んでいたところ、3 月 11 日の東日本大震災が起こった。両親は、早く韓国に帰ってきてほしいと毎日のように電話をかけてきてきたが、帰らなかった。知り合いの韓国人で帰国した人も多く、「一人になるのかな」と思い、かなり心細い思いをした。しかし、「日本っていう国がそんなにすぐ壊れてしまうわけではないし、東京は安全だったし…(中略)。放射能は怖いんですけど、日本と韓国は近いから、こっちが問題だったら、韓国も問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で逃げるのはちょっと嫌だと思って。

中途半端だし、今帰ったら、また戻ってくるのも大変だし」とキムさんは言う。帰国した人のなかにも、再度、日本に戻ってきた人がかなりいるという。

◇ 友人関係 ◇

働いているため、なかなか同年代の日本人の友だちをつくるのは難しい。現在のバイト先の焼き肉店では、韓国人と中国人のバイトはいるが日本人のバイトはいない。中国人のバイトの人たちとは店では親しいが、店の外で会うまでにはいかないという。来日する前に、ペンパルサイトで日本人の友だちを探し、その友だちとは今でも親しいという。さらに、韓国料理屋で働いていたときの常連客で韓国に興味をもっていたお客さんとも仲良くなった。

日本と韓国での友人関係の違いについて、日本人の友人は会う日にちを前もって決めようとするが、韓国人の友人は会いたいと思えばすぐに連絡をし、だめならそれであきらめるため、誘いやすいという。さらに断るときの、「ちょっと無理っぽい」というような間接的な言い回しにも違いを感じてしまうそうだ。日本人の親しい友人と歴史問題について話すことがあるが、それは難しいと感じている。「なぜ昔のことで私たちが嫌な思いをしないといけないの」ということを、その友人とはよく話すという。日本語学校の先生やバイト先の店長が歴史問題に触れることがあるが、やはり日本を中心に語るため、「聞くと、やっぱり違うって言いたい」とキムさんは言う。

◇ 現在の生活と将来 ◇

現在は、学生ビザに変更したため、朝 9 時 20 分から 4 コマの授業に出て、昼すぎには学校を終え、週 4 日、夕方から深夜までバイトをする生活をしている。バイトで稼ぐお金は、1 か月 10 万以上にはなるが、その約半分を家賃として払うと、それほど残るわけではないため、お金についてはストレスを感じている。北海道にも旅行に行ってみたいが、お金のことを考えると、帰国直前までは行けないと思っている。

将来は、専攻の観光経営学を活かし、観光関係で就職したいと思っている。最初は日本で日系の航空会社に就職したいと思ったが、いろいろと調べてみたところ、外国人であること、そして日本の大学に留学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め、応募す

るのも無理だと言われたそうだ。もし航空関係で仕事が見つからなければ、ホテル業界なども考えている。現在は日本語を学ぶのに精一杯だが、韓国に帰国したら、英語も集中的にやるつもりだ。英語は「好きじゃない。面白くない」そうだが、就職のためには「必要だからしょうがない」とのことだ。

<인터뷰 49>

김 모씨 (20대・여성) 「취직하기에 앞서 일본어를 익히고 싶다」

2011년8월3일, 경기도 분당출신, 대학생
일본체제 1년1개월째
인터뷰 담당자 : 카와이 유우코

◇ 일본에 오게되는 계기 ◇

김씨는 서울근교에 있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중인 4학년생이다. 졸업까지 한학기를 남겨둔, 2010년 7월, 대학을 휴학하고 일본으로 왔다. 일본어는 중학교때 배우기 시작했다. 김씨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배우는 영어외에 제2외국어반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일본어 수업에서는 시험 때 100점 혹은 95점 등 고득점을 올릴수가 있었고, 그것이 기뻐서 일본어가 좋아졌다. 「우선 저는, 자신있는 것이 없었지만, (중략) 100점을 받았을때, (중략) 이거라면 아마도 자신감이 생길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일본어 수업을 이수했지만, 수업내용의 레벨에는 불만이였다. 중학교에서는 초급레벨의 수업이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중급레벨의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나, 수험공부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수업 레벨도 별로 높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외에, 일본어 공부도 계속했다. 한국에서는 취직 할 곳을 찾기 전에 대학을 졸업해 버리면, 취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어학력등 취직할때 유리한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김씨도 일본어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처음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왔다.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바로 졸업하는것도 무섭고, 좀더 일본어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조금 도망쳐서 이곳으로 온 것인

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

◇ 신주쿠・신오오쿠보 ◇

주거지는 한국의 대리점을 통해서 찾았고, 처음 6개월은 신오오쿠보에 살았다. 하지만, 모처럼 일본에 온것이기에, 한국인이 많은 신오오쿠보에서 신주쿠구내의 다른 장소로 이사를 했다. 신주쿠구에 연연한것은, 다른 곳 보다도 한국인이 아르바이트를 찾기 쉬운 곳이라는 것, 일본 어학교와 대학 등이 모여있다는 것, 공공교통의 면에서 편리하다는것, 등이 이유이다. 그리고 신주쿠의 이미지를 물어보았더니, 「처음 왔을때는, 정말로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오오쿠보에 살고 있었을때는, 싫은 경험도 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일본인 상사인 듯한 사람이, 한국인 부하인 듯한 사람과 큰소리로 싸움을 했고, 게다가, 「조선인, 꺼져라, 꺼져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들었을때는, 상당히 놀람과 동시에, 분노 또한 끌어올랐다.

◇ 아르바이트 ◇

처음 1개월간은,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했다. 모처럼 일본에 왔으므로, 한국요리점이 아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등의 구인을 보고 전화했다. 그러나, 일본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점양어도 전부 구사할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찾아야지 라고, 신주쿠구내의 한국요리점에 전화했더니, 너무 간단히 고용해 주셨다. 이곳에서 6개월 일하고, 그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주쿠구내의 야끼니꾸 점에서 일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야끼니꾸 점에서는接客담당으로, 주문을 받아, 요리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

접객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손님이 하시는 말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이다. 손님에 따라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 단어를 반복할 뿐인 손님도 있다고 한다. 그럴때에, 손님의 표정등에서 「역시 외국인은・・・」이라고 하는 느낌을 눈치챌수 있고, 씩씩한 기분일때도 있다. 그러나, 최근은 K-POP이나,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남성, 여성 불구하고 한국에 흥미를 보이는 손님이 많고, 「정말로 살기 좋다고 할까, 편하네요」라고 한다.

◇ 일본어 ◇

일본어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전화 회화에서 존경어로 답변을 받을 때이다. 일본에서 3개월째 일때, 미용실에 예약전화를 했다. 미용실 종업원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의미를 모른채 곤란했던 적이 있다. 「하시다」가 「하다」라는 의미의 존경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것을 되물었을때, 그 종업원은 「손님, 무엇을 하실 예정이세요」라고 더욱더 존경어로 대응해 왔다. 이럴때에는, 굳이 존경어를 쓰지않고, 평상시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주는 편이 알기쉽다고 한다.

일본어에 익숙해지면 말할수있게는 되지만, 「문법이나 이런것이 정말로 엉망진창. (중략) 유학생들 속에서 공부하고 있기에, 내가 틀려도, 제대로 고쳐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중략) 이대로 돌아가도, 1년간 무얼 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일본어 능력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 더 일본체재를 연장하려고 결심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만 유효하기 때문에 한해 더 일본에 체재하려고 하면, 다음 해는 학생 비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어 학교의 학비는 싸지 않기에, 그것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서 6개월간은 일본어 학교에 다녔지만, 그후의 6개월은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고, 점심때의 런치타임과 저녁 영업시간, 양쪽 모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

◇ 동일본 대지진 재해 ◇

다음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열심이였을 무렵,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가 일어났다. 부모님들은, 빨리 한국에 돌아오길 바라시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알고 지내던 한국인 중에 귀국한 사람도 많고, 「혼자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금방 무너져 내릴 리도 없고, 동경은 안전했으며... (중략) . 방사능은 무섭지만, 일본과 한국은 가까워서, 이쪽이 문제라면, 한국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도망가는 것은 좀 싫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하게 지금 돌아간다면, 또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라고 김씨는 얘기한다. 귀국한 사람 중에도, 다시 일본에 돌아온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 친구관계 ◇

일을 하고 있기에, 좀처럼 동년배의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는것은 어렵다. 현재의 아르바이트 장소인 야끼니꾸점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아르바이트는 있지만, 일본인의 아르바이트는 없다. 중국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가게에서는 친하지만, 가게 밖에서도 만날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일본에 오기전에, 펜팔 사이트에서 일본인 친구를 찾았고, 그 친구하고는 지금도 친하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요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을때의 단골손님으로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손님하고도 친해졌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친구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본인 친구는 만날 날짜를 미리 정해두려고 하지만, 한국인 친구는 만나고 싶을때 바로 연락해서, 안되면 그걸로 포기하기 때문에, 부르기 쉽다고 한다. 게다가 거절할때의 「좀 안될 것 같아」하는 간접적으로 돌려표현하는 법에도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일본인 친한 친구와 역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왜 옛날 일로 우리들이 싫은 생각들을 하지않으면 안되는거지」라는 것을, 그 친구와 자주 이야기 한다고 한다. 일본어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르바이트 장소의 점장이 역사문제를 건드릴때도 있지만, 역시 일본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기때문에, 「들으면, 역시 다르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김씨는 말한다.

◇ 현재의 생활과 장래 ◇

현재는, 학생비자로 변경했기에, 아침 9시20분 부터 4시간의 수업을 하고, 점심때쯤 학교를 마치며, 주 4일, 저녁부터 심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하고있다.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은, 한달에 10만엔 이상은 되지만, 그 반정도를 집값으로 내기 때문에, 그다지 남는 편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홋카이도에도 여행가고 싶지만,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면, 귀국 직전까지는 갈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래는, 전공인 관광경영학을 살려서, 관광관계로 취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본계 항공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생각 했지만, 여러가지로 조사해본 결과, 외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일본의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모하는 것도 무리

라고 했다고 한다. 만약 항공관계에서 취직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호텔 업계등도 생각 중이다. 현재는 일본어를 배우는 것으로도 버겁지만, 한국에 귀국하면, 영어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다. 영어는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없다」 라고 하지만, 취직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어쩔수 없다」 라고 한다.

<인터뷰 50>

L씨 (30대 후반·남성)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자로서 신오오쿠보에 대한 작은 바람」

2011년 8월 6일, 경기도 안양 출신 회사원, 일본체재 13년
인터뷰: 이해미

L씨는 1972년생으로 경기도 안양 출신이다. 현재,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동경의 江戸川区에 거주중이며, 한국 식품점과 음식점에 한국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 일본에 오게 된 계기와 대학교 입학까지 ◇

L씨는 1998년 일본에 왔으며, 현재 13년째 일본에 거주중이다. 1998년,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갔고, 군 제대 후에는 한국의 S전자회사 계열사에서 품질관리를 하며 2년 가까이 근무 했다.

26살의 L씨가 회사를 그만 두고 일본에 오게 된 계기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졌고, L씨는 여러가지 고민 끝에 자신을 위한 일본 유학길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친척들과 먼저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친구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던 L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며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생활도 가능하다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조언은 L씨가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당시 2남 1녀의 장남이었던 L씨가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결정에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응원해 주었다고 한다.

일본에 온 후, 처음에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

았다. 하지만,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혼자 힘으로 해결하며 지내왔다. 어학교에서 2년간 어학공부를 마친 뒤에는, 동경 근교의 사립대학에 입학했고 4년간 유통 마케팅을 공부하고 졸업했다.

◇ 일본에서의 사회생활 ◇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 현재까지 7년간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한국 식료품을 한국 식품점이나 음식점에 유통하는 회사로 이 업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한다. 한국계 회사이며, 한국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다. 직원은 60명 정도로 대부분 한국인이지만, 재일교포, 일본인, 조선족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이다 보니,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은 신주쿠, 그리고 신오오쿠보이다.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일본 회사들보다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원에게 지켜야 할 노동기준법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다. L씨가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모든 일본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후생연금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노후를 보낼 아무런 연금도 없이 지내는 게 가끔 불안하죠.」라며 걱정을 표현했다.

◇ 가족과 자녀교육 ◇

L씨와는 현재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江戸川区의 飛來에서 2010년에 구입한 맨션에서 거주중이다.

98년부터 일본에서 지내 온 L씨가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시절이었다. 방학 동안 한국에 갔다가 부인을 알게 되었고, 2002년 결혼했다. 결혼 후, 바로 일본에서의 신혼 살림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외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던 부인은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한다. 「학생이라서 돈도 없었고,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형편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어도 잘 하지 못했으니까요.」라며 신혼 때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던 L씨의 부인도 시간

이 지나면서 점차 일본 생활에 익숙해졌다. 지금은 오히려 회사생활때문에 바쁜 L씨 보다 부인 쪽이 이웃이나 아이들 친구들의 부모님같은 일본인들과의 교류는 훨씬 많은 편이라고 한다. 「특히 요즘은 한류 덕분에, 아이들 학교 친구 엄마들하고 만나서 한국 음식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라며 흐뭇해하는 듯한 미소를 보여 주기도 했다.

L씨는 초등학교 1학년생(7살)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살의 두 아들의 아버지이다. 두 아이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서, 잠시 한국에 다녀온 경험 이외에는 일본을 떠나 본 경험이 없다. 아이들은 일본인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L씨 부부는 두 아들이 가질 정체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자식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부모가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본인들도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오고, 계속 일본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왜 한국을 응원해야 하는지, 학교 친구들과 자신이 왜 성이 다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다.

그런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간의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하고 있다. 아이들도 한국어로 듣거나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은 한글을 읽거나 쓰지는 못한다. 한국어를 따로 교육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따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 계획 중이라고 한다. 동경한국학교 라는 선택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 학교에 보낼 생각은 없다. 동경한국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비자 문제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많이 관대한 편이다. 2010

년 2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생활 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이다.

◇ 신주쿠·신오오쿠보 ◇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보니, 가장 거래가 많은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에는 일주일에 2, 3번으로, 자주 가는 편이다. 예전에 비해서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한국 음식점이나 식품점들의 경기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예전의 신오오쿠보는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고, 음식 가격 자체가 비싼 편이었다. 음식 가격이 비싸서, 한정되어 있는 손님 대상으로밖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해졌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점들과 한국 가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신오오쿠보 거리는 아직은 코리아 타운이라고 불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요코하마 중화거리처럼 그곳을 한국 거리라고 말 하기에는 분위기가 많이 틀린것 같다. 지금 신오오쿠보의 모습은, 단지 한류라는 유행을 따라 가기에 촉박해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유행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은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그 전성기가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오오쿠보가 다시 한번 변하게 될 지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インタビュー 51>

Hさん(20代・女性)「今はただ深く考えずに絵を描きたい」

2011年8月8日、釜山出身、アルバイト
日本滞在歴6カ月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一度目の長期滞在と二度目の来日まで ◇

Hさんが初めて日本に長期滞在したのは、2008年の4月である。高校3年の時、卒業したら日本に留学しようと、日本の大学を受験し、都内の大学に合格した。専攻は法律だったが、これはHさん自身の希望というより、父親や高校の先生に勸